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책임연구원: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보조원: 이효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간 사 ■ ■ ■

최근 청소년활동의 기회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공교육의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확대와 더불어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위한 특성화전문화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활동의 강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며, 국가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덕체가 조화된 완전한 인간의 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입시위주 학교교육이나 교실 안에서는 완전한 인간을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결국 다양한 긍정적인 활동경험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국립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한 청소년활동의 거점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의 대폭적인 증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의 확대, 청소년관련학과의 획기적인 증대로 인한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확대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 기반의 획기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의 질과 양, 청소년들의 참여 현황과 문제점, 효과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근거중심(evidence-based) 청소년활동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5년도는 그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정리된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를 하고, 조사도구를 보완·개발하며,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근거중심 청소년활동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진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청소년 분야 학자들과 청소년현장 전문가,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초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 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97.4%로 매우 높았으며, 영역별로는 ‘건강·보건활동’(93.7%)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고,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청소년활동을 방해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상의 문제였으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는 ‘문화예술활동’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되었다. 아울러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의 정의적 특성은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참여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시간부족’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언급되었다. 참여 청소년, 운영기관 및 지도자,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 살펴본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활동 인식개선’이 각각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의 현 문제점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이,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과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가,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이, 청소년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이 지적되었다. 향후 가장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및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을 참여 청소년, 운영기관 및 지도자, 가정·학교·지역사회,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각각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측면에서는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가,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은 청소년 주도성, 활동기반의 안정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전문성, 연계·협력의 지속성, 활동의 효과성 등으로 제시하였고,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보장, 둘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셋째,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지원 확보,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 등 5대 영역 17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통합조사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초연구적 성격을 띠고 있음.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특성상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정책방안의 제시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문헌 분석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변형비례배분 층화표집
- 전문가의견조사
 - 학계, 현장, 공무원 25명 대상
 - 1차 개방형, 2차 중요도 체크 형태로 2차례 실시
- 전문가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 전문가자문회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정책실무협의회의: 여성가족부 등 유관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3. 주요결과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등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다수의 청소년들(97.4%)이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93.7%), '문화예술활동'(79.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3.8%), '모험개척활동'(55.7%), '봉사활동'(55.4%), '과학정보활동'(53.6%), '환경보존활동'(42.4%), '자기(인성)계발활동'(41.3%), '교류활동'(25.5%), '청소년참여활동'(15.3%)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임.
- 하위 영역별로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은 '학교폭력 예방활동'(87.7%), '과학정보 활동'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43.0%), '교류활동'은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21.1%), '모험개척활동'은 '등반활동'(42.1%), '문화예술활동'은 '음악활동'(57.5%), '봉사활동'은 '일손돕기 활동'(36.0%),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은 '진로탐색활동'(55.3%), '환경보존활동'은 '생태체험 활동'(27.4%), '자기(인성)계발활동'은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30.3%),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특별회의'(8.0%)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2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지도자 만족도'는 평균 3.36, '활동내용 만족도'는 평균 3.3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는 평균 3.27, '일정·시간 만족도'는 평균 3.22로 확인됨.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는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51.0%)했다고 대답했으며,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38.7%)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3.1%)임.

-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8.1%)는 것이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문화예술활동’(21.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0%), ‘모험개척활동’(16.4%), ‘과학정보활동’(11.6%), ‘건강·보건활동’(9.7%), ‘청소년참여활동’(5.2%), ‘봉사활동’(5.0%), ‘자기(인성)계발활동’(4.7%), ‘교류활동’(3.6%), ‘환경보존활동’(1.7%)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중 ‘도서관’ 이용률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청소년수련관’ 31.4%, ‘청소년수련원’ 28.4%, ‘청소년유스호스텔’ 21.1%, ‘청소년야영장’ 14.2%, ‘청소년문화의집’ 12.7%의 순으로 확인됨.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운영위원회’(M=1.41), ‘청소년어울림마당’(M=1.40) ‘청소년참여위원회’(M=1.3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M=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대부분의 하위영역별로도 참여 청소년과 비참여 청소년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2)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함.
-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간부족’(M=4.28),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M=4.08) 등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M=4.48),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여건 미흡’(M=4.28), ‘운영기관의 열악한 재정상태’(M=4.24) 등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M=4.64)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M=4.52),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입시부담 완화’(M=4.40) 등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재정지원 확대’(M=4.5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M=4.44) 등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M=4.56),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M=4.40)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함.
-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M=4.76),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역할·기능 미흡’(M=4.72) 등을, 청소년기관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과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M=4.20) 등을, 청소년수련시설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M=4.52),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의 문제’와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M=4.28) 등을, 청소년단체 측면에서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M=4.48), ‘학교 의존적인 활동’과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모호’(M=4.20) 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M=4.6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M=4.60) 등이, 청소년기관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과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

력 강화'(M=4.44) 등이, 청소년수련시설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M=4.56),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M=4.52) 등이, 청소년단체 측면에서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M=4.40),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M=4.36),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M=4.32)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됨.

-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M=4.4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활동정책 부족'(M=4.36), '개인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부족'(M=4.32) 등이,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M=4.56),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 및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M=4.36) 등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M=4.56), '지역사회 내 연계시스템 미흡'(M=4.52) 등이,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M=4.52),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부족'(M=4.48)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M=4.48),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40) 등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M=4.48),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 및 배치'(M=4.44) 등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M=4.4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4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M=4.40) 등을,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M=4.60),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M=4.48) 등을 중요하다고 평가함.

3) 기본전략 및 정책제언

- 청소년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정책연구협의회의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함.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은 ①청소년 주도성(Initiative), ②활동기반의 안정성(Stability), ③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전문성(Specialty), ④연계·협력의 지속성(Sustainability), ⑤활동의 효과성(Effectiveness)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정책영역	정책과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보장	1. 학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2. 청소년 친화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3.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1. 표준임금표 개선 등 청소년지도자 복지 증진 2. 청소년수련시설 직종전환 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 재정여건 개선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강화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원 확보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2.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강화 3. 가족, 학교,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확대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2. 청소년기관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3.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4.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전문 인력확보·배치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의 개선·보완

목 차

제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제2 장 이론적 조망	9
1. 청소년활동의 개념고찰	11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개요	26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의 방향	32
제3 장 설문조사 개요	35
1. 표본설계	37
2. 조사도구	51
3. 분석방법	61
제4 장 설문조사 결과	6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66
3. 정의적 특성	168
4.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2
5. 소 결	182
제5 장 전문가 의견조사	183
1. 조사개요	185
2. 조사결과	186
3. 소 결	202
제6 장 요약 및 정책제언	205
1. 요 약	207
2. 정책제언	211
참고자료	227
부 록	233

표 목차

〈표 2-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타난 청소년활동의 개념	15
〈표 2-2〉 발달적 맥락으로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청소년활동의 특성	22
〈표 2-3〉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의 개요	27
〈표 2-4〉 2014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항목 구성	29
〈표 2-5〉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30
〈표 3-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38
〈표 3-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38
〈표 3-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39
〈표 3-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39
〈표 3-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40
〈표 3-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40
〈표 3-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41
〈표 3-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41
〈표 3-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43
〈표 3-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44
〈표 3-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44
〈표 3-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45
〈표 3-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45
〈표 3-14〉 2014년도-2015년도 조사문항 비교	52
〈표 3-15〉 2015년도 조사문항 구성	53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
〈표 4-2〉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67
〈표 4-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69

〈표 4-4〉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70
〈표 4-5〉 건강·보건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71
〈표 4-6〉 건강·보건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72
〈표 4-7〉 건강·보건활동: 성교육활동	73
〈표 4-8〉 건강·보건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74
〈표 4-9〉 건강·보건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74
〈표 4-10〉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과학정보활동	76
〈표 4-11〉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77
〈표 4-12〉 과학정보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78
〈표 4-13〉 과학정보활동: 우주천체활동	79
〈표 4-14〉 과학정보활동: 정보캠프활동	80
〈표 4-15〉 과학정보활동: 영상매체활동	80
〈표 4-16〉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교류활동	82
〈표 4-17〉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83
〈표 4-18〉 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84
〈표 4-19〉 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85
〈표 4-20〉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모험개척활동	86
〈표 4-21〉 모험개척활동: 등반활동	87
〈표 4-22〉 모험개척활동: 야영활동	88
〈표 4-23〉 모험개척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89
〈표 4-24〉 모험개척활동: 극기훈련활동	90
〈표 4-2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문화예술활동	92
〈표 4-26〉 문화예술활동: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93
〈표 4-27〉 문화예술활동: 미술활동	94
〈표 4-28〉 문화예술활동: 음악활동	95

〈표 4-29〉 문화예술활동: 춤·무용활동	96
〈표 4-30〉 문화예술활동: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97
〈표 4-31〉 문화예술활동: 전통예술활동	98
〈표 4-32〉 문화예술활동: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99
〈표 4-3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봉사활동	101
〈표 4-34〉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102
〈표 4-35〉 봉사활동: 위문활동	103
〈표 4-36〉 봉사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	104
〈표 4-37〉 봉사활동: 캠페인활동	105
〈표 4-38〉 봉사활동: 자선·구호활동	106
〈표 4-39〉 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107
〈표 4-40〉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109
〈표 4-4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활동	110
〈표 4-4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경제캠프활동	111
〈표 4-43〉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112
〈표 4-44〉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113
〈표 4-4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환경보존활동	115
〈표 4-46〉 환경보존활동: 생태체험활동	116
〈표 4-47〉 환경보존활동: 환경탐사활동	117
〈표 4-48〉 환경보존활동: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	118
〈표 4-49〉 환경보존활동: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119
〈표 4-50〉 환경보존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120
〈표 4-5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자기(인성)계발활동	122
〈표 4-52〉 자기(인성)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123
〈표 4-53〉 자기(인성)계발활동: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	124

〈표 4-54〉 자기(인성)계발활동: 심성수련활동	125
〈표 4-5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참여활동	127
〈표 4-56〉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특별회의	128
〈표 4-57〉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129
〈표 4-58〉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130
〈표 4-59〉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131
〈표 4-60〉 청소년참여활동: 인터넷 청소년참여활동	132
〈표 4-61〉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134
〈표 4-62〉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135
〈표 4-6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135
〈표 4-64〉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136
〈표 4-65〉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137
〈표 4-6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39
〈표 4-67〉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41
〈표 4-68〉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42
〈표 4-69〉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44
〈표 4-70〉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146
〈표 4-71〉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수련관	148
〈표 4-72〉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수련원	149
〈표 4-73〉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문화의집	150
〈표 4-74〉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야영장	151
〈표 4-75〉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유스호스텔	152
〈표 4-7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도서관	153
〈표 4-77〉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공연 및 전시시설	154
〈표 4-78〉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사회복지관	155

〈표 4-79〉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156
〈표 4-80〉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주민센터, 문화센터	157
〈표 4-81〉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159
〈표 4-82〉 청소년정책인지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60
〈표 4-83〉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어울림마당	161
〈표 4-84〉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특별회의	162
〈표 4-85〉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참여위원회	163
〈표 4-86〉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운영위원회	164
〈표 4-87〉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165
〈표 4-88〉 청소년정책인지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166
〈표 4-89〉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67
〈표 4-90〉 자아존중감	168
〈표 4-91〉 진로성숙도	169
〈표 4-92〉 주관적 행복감	170
〈표 4-93〉 리더십생활기술	171
〈표 4-94〉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2
〈표 4-95〉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3
〈표 4-96〉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3
〈표 4-97〉 교류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4
〈표 4-98〉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5
〈표 4-99〉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6
〈표 4-100〉 봉사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7
〈표 4-10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8
〈표 4-102〉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79
〈표 4-103〉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80
〈표 4-104〉 청소년참여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81

〈표 5-1〉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참여 청소년 측면	187
〈표 5-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 청소년 측면	187
〈표 5-3〉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188
〈표 5-4〉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189
〈표 5-5〉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	190
〈표 5-6〉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	190
〈표 5-7〉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측면	191
〈표 5-8〉 청소년활동정책의 향후 필요한 정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측면	192
〈표 5-9〉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청소년기관 측면	193
〈표 5-10〉 청소년활동정책의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기관 측면	193
〈표 5-11〉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 측면	194
〈표 5-12〉 청소년활동정책의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수련시설 측면	195
〈표 5-13〉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청소년단체 측면	195
〈표 5-14〉 청소년활동정책의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단체 측면	196
〈표 5-15〉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참여 청소년 측면	196
〈표 5-16〉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 청소년 측면	197
〈표 5-17〉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198
〈표 5-18〉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198
〈표 5-19〉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	199
〈표 5-20〉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	199
〈표 5-21〉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제도적·정책적 측면	200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제도적·정책적 측면	201

그림 목차

【그림 1-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6
【그림 3-1】 조사문항 개발절차	51
【그림 4-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66
【그림 4-2】 2014~2015년 청소년활동 참여율 비교1)2)	68
【그림 4-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68
【그림 4-4】 건강·보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69
【그림 4-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과학정보활동	75
【그림 4-6】 과학정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76
【그림 4-7】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교류활동	81
【그림 4-8】 교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82
【그림 4-9】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모험개척활동	85
【그림 4-10】 모험개척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86
【그림 4-1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문화예술활동	91
【그림 4-12】 문화예술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92
【그림 4-1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봉사활동	100
【그림 4-14】 봉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101
【그림 4-1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108
【그림 4-16】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109
【그림 4-17】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환경보존활동	114
【그림 4-18】 환경보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115
【그림 4-19】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자기(인성)계발활동	121
【그림 4-20】 자기(인성)계발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122
【그림 4-2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참여활동	126

【그림 4-22】 청소년참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127
【그림 4-23】 청소년활동 만족도	133
【그림 4-24】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38
【그림 4-25】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40
【그림 4-26】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41
【그림 4-27】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43
【그림 4-28】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145
【그림 4-29】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47
【그림 4-30】 청소년정책 인지도	158
【그림 6-1】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211
【그림 6-2】 청소년활동의 참여 활성화 방안	213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청소년 친화적인 프로그램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며, 국가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경험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보호, 규제, 단속 중심의 소극적인 청소년정책’에서 ‘육성, 지원 중심의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김진호, 권일남, 이광호, 최창욱, 2009).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국립청소년수련원 5곳을 포함한 청소년활동의 거점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의 증가, 청소년수련활동인 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의 확대, 청소년관련학과의 획기적인 확대에 의한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확대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분야의 단일화된 개념정의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광의적인 개념, 협의적인 개념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학계 및 현장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2013)의 연구 등을 통하여 시도를 하였으나, 합의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청소년활동 기반의 획기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미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청소년활동정책 개발과 적용에 있어 일정정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등을 통하여 개략적인 변화는 살펴볼 수 있지만, 청소년활동 실태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조사범위와 내용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6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장근영, 김기현, 2006;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외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2012년),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2013년)에서 실시하였으나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는 참여 현황파악에 초점을 맞춘 조사로 2년에 걸쳐 실시 후 중단되었고, 김현철 외(2012, 2013)의 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활동정책 체계화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청소년 체험활동이 영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에 있어서도 비정기적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는 부족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과학적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효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근거중심(evidence-based) 청소년활동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4년도 1차년도 연구는 그간의 청소년활동 개념을 광의적으로 포괄하고, 이에 맞추어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에 대한 광의적 정의는 조사도구의 개발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활동 참여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14년 1차년도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정리된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를 하고, 둘째, 1차 연구의 조사도구를 계승·발전시킨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보완·개발하며, 셋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이론적 조망

선행연구 분석과 청소년활동 관련 각종 선행 조사를 분석하여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이론적 조망을 실시하였다.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보완 및 신규개발

청소년활동의 개념정립과 하위영역 설정에 따라 기존 2014년도 설문지를 점검·수정하고, 신규로 필요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보완하였다.

- 기존 설문문항 점검: 현재 청소년 체험활동 9개 영역, 문화활동 30개 영역, 직업체험활동 9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내용을 재구조화하여 반복횡단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항들을 제외한 복잡한 문항들을 삭제 및 단순화하고, 설문조사 양식도 반복횡단조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재구조화하였다.
- 신규 설문문항 개발: 새롭게 설정된 하위영역에 따라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설문문항을 추가로 보완하였으며, 청소년활동 결과부분에 해당하는 정성적 지표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분석은 반복횡단조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를 통하여 전국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는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에서 2년마다 일본청소년체험활동 실태조사¹⁾를 실시하고 있어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문항을 추가하였다. 일본청소년체험활동 실태조사 결과는 2016년 상반기에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 결과는 2016년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활동 현장 및 학계, 공무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문제점 진단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 일본 청소년체험활동 실태조사: 2년마다 초1부터 초6, 중2, 고2를 대상으로 전국규모 실태조사로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실태조사는 2015년 2월 현재 일본 전국 청소년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청소년활동 실태를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청소년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현장, 학교, 가정 등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5)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안)

1차년도 (2014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2차년도 (2015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 · 부가조사(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3차년도 (2016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3차년도 조사 · 부가조사(일본 청소년 체험활동 실태와 국제비교)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4차년도 (2017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4차년도 조사 · 부가조사(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세부과제별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5차년도 (2018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 일본과 국제비교 및 5개년 실태조사 종합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그림 1-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과제가 기초과제로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문지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전문가자문회의

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문지 개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3) 실태조사

2014년도에 실시한 1차년도 연구의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를 통하여 전국 규모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4) 전문가의견조사

청소년활동 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의견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청소년정책 현장의 청소년활동 담당 지도자, 학계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방안, 학교 밖 청소년 활동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등이다.

5) 기타 연구방법

정부와 활성화방안 활용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책실무협의회 및 개별 정책과제의 정책화를 위한 집중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의 개념고찰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개요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의 방향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의 개념고찰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실태를 조사하고, 과학적인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청소년활동의 목표, 청소년활동의 내용, 청소년활동의 방법론 등 세 가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제한적으로나마 정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체험활동, 청소년의 역량,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육성, 문화활동과 문화예술활동 등 청소년활동과 혼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개념적 특성들을 탐색하였고, 이들 용어들이 청소년활동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구별짓기 작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유사개념간의 구분도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내고 드러내려는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논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본질적인 모습과 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정책현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의 개념

청소년활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는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적 관심영역 중 하나이다. 즉, 하지만 청소년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청소년활동이라는 개념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여 청소년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많은 혼란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개념정의는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서의 청소년활동의 지위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한 재검토와 청소년활동의 범위와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를 시도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즉,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과 활동이라는 두 개념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활동의 개념을 이해하면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활동의 주체 혹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정책에서 논의되는 청소년활동의 주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9~24세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적 사전적인 의미에서 ‘활동’이란 ‘몸을 움직여서 행동함’,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씀’, ‘동물이나 식물이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이나 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희승, 2003).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 ‘청소년들이 무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쓰는 것’,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이나 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들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이나 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163-164)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정의들이다. 청소년활동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특수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의 개념적 특성을 포착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정의가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승희 외(1994)는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체험과 경험적 기회를 제공하여 덕과 체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서,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태익(2000)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명기(2006)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현재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면서 독립적인 사회성원으로 이행해가는 시기에 필요한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영향력을 가지며 건전한 사회성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기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이러한 청소년 자신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성인들의

동반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진호(2008)는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2010)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인성적 측면이나 정서적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고, 이를 개인성장의 변화에 수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리 외(2014)는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그들의 인지·정의·행동 영역의 변화를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은 '청소년지도자나 성인의 조력이 있건 없건 간에,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 행하는 체험중심의 교육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개념정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며,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험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이 연구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에 기초하여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의는 다분히 정책적 성격을 갖는 정의로 활동정책과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미리 외, 201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그 개념적 범위 안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위영역으로 모두 포괄하는 최상위의 개념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진호 외, 2009).

하지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뒷부분의 진술문이 앞부분의 진술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매우 이상하고 어색해서 앞부분의 개념정의를 오히려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오류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이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개념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교류활동 간에도 개념적으로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활동의 하위영역으로 제시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등이 왜 청소년문화활동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학문적 논리성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관련법 제정과 정책적 의지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164-165). 즉, 2004년 3월에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고 그 하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새롭게 제정할 때,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 중심에서 문화활동과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혼란과 혼선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²⁾.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청소년수련(修鍊)활동의 동양철학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나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과 개념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개념분리를 시도한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수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현재의 청소년활동과 개념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련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주5일 수업시대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의 흐름은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의 부각되면서,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편협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적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소년활동들을 정책적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새롭게 등장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		청소년활동의 개념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 (1991년)	정의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 수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활동영역 구분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항)	청소년활동은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 · 직장 · 복무처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학업 · 근무 · 복무 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 · 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 영역을 임의활동 영역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 (2004년)	정의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활동영역 구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3~5호)	■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교류활동 : 청소년이 지역간 · 남북간 · 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意識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문화활동 : 청소년이 예술활동 · 스포츠활동 · 동아리활동 ·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출처: 이미리 외(2014). 청소년법에 나타난 청소년활동의 개념. pp.281

이러한 상황에서 Mahony, Larson, & Eccles(2005)에 의해 제시된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조직화된 청소년활동(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의 개념은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매우 유용한 준거들을 제공하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조직화된 청소년활동이란 학교의 커리큘럼과 구분되는 활동으로서, 주로 6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조직화(organized)”된 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직화된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구조(structure)를 가지고 있고, 성인들의 관리와 감독(adult-supervision)이 존재하며,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강조(emphasis on skill-building)하고 있다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조직화된 청소년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둘째, 규칙적인(혹은 사전에 계획된) 만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규칙(rules)과 기대치(expectation)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여러 명의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성인들의 감독(supervision)과 지도(guidance)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이나 기타 다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된다는 점이다. 일곱째, 참가 청소년들의 능력발달과 수준향상을 위한 도전과제들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여덟째,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조직화된 청소년활동”은 지금까지 논의된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며,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과도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조직화된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TV시청이나 음악듣기, 친구들과 떼지어서 몰려다니기, 자동차타고 유람하는 것 과 같은 비구조화된 활동(unstructured activities)이나 기타 단순 휴식취하기, 군것질, 개인위생활동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가활동(passive leisure)들과 차별화된 활동이면서도 동시에 학교 커리큘럼 과도 차별화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에서 청소년활동의 영역으로 제시된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 중 고유활동영역과 임의활동영역을 제외한 수련활동영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발달과 활동경험, 그리고 교육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리고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현상이라면,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발달의 관계,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이란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이 진공 상태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형성하면서 생물학적·인지적·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심신의 형태, 구조, 기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적 관점에서의 인간발달이란 전 생애에 걸쳐서 양적·질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감소, 쇠퇴 등 하강적이고 퇴화적인 변화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발달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상승적인 변화 즉 크기에 있어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기능에 있어서는 미숙하고 낮은 수준에서 능숙하고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이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증대, 진보, 향상 등의 상승적이고 진화적인 변화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김진호 외, 2009: 30-31).

청소년발달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생물학적·인지적·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상승적 변화라고 정의할 때, 청소년발달의 개념은 성장(growth), 성숙(maturation), 학습(learning)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현립·김영숙, 2006; 정옥분, 2008). 여기에서 성장이란 청소년 개개인의 신장, 체중, 골격 등과 같은 양적인 증가와 관련된 것이다. 반면 성숙이란 뇌기능의 분화나 사춘기의 이차성징 출현과 같이 환경의 영향보다는 유전적 소질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청소년발달을 정의할 때 성장이나 성숙의 개념과 더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경험(experience)이다.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심리적·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바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발달에서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성장, 성숙은 경험이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양섭취가 필요하며, 인간이 인간답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오감의 자극이 필요하다(이재연, 1988). 그리고 학습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된 경험이나 훈련의 효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동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은 청소년기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진호 외, 2009: 30-31).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을 다양한 경험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경험을 확장시켜 준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청소년활동을 모두 교육적 경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듀이에 따르면,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발달이 청소년의 사고방식과 태도, 기능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경우에만 교육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엄태동, 2001). 따라서 청소년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경험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이후의 경험성장을 억제(抑制)하거나 왜곡(歪曲)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수많은 종류의 경험들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경험이 교육적인 것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활동이 제공하는 경험은 비교육적(mis-educative)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활동을 통한 경험이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인지적 영역만을 강조하는 교과중심의 학습이고 억압과 강제의 형태를 띤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이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비해 고차원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외부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은 축적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예외없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 마련이며, 그러한 변화는 청소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후속되는 경험의 특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은 그것보다 선행하는 경험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것에 후속하는 경험의 특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시키기 때문이다(엄태동, 2001). 따라서 학교교육이건 학교 밖 청소년활동이건 간에 그곳에서 형성된 경험이 향후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 즉 지속적인 경험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때라야만 교육적 경험이라는 준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경험제공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지닐 수 없으며, 청소년의 경험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교육적으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경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습관적인 경향성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며,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활동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갖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청소년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못지않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경험은 비교육적 경험과 반대되는 교육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teacher)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원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자(educator)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활동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활동의 개념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발달적 맥락(developmental context)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ahony et al, 2005). 다시 말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거나 청소년기에 개발되어야 할 중요한 역량들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지는 수많은 활동들은 모두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들 중 일부만이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핵심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들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의미있는 논의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Jeffs와 Smith(2010)는 청소년들과 행해지는 활동들이 청소년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의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과 복지(education and welfare)이다. 청소년활동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며, 다양한 결핍들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적 기능의 수행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며, 학습의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화, 경험, 관계망들을 통해 촉발되는 학습(learning)은 청소년활동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중심(young people)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 요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for youth)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에 의한 활동(by youth),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with youth)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을 위한 발달적 무대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이라는 장면에서 청소년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화려하게 주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생활세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며 청소년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문화의 특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관계망 구축(building relationship)이다.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상들과 의미있는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망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의미있는 학습과 경험, 배움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지도자가 해야 할 핵심적인 과업 중 하나는 청소년들과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구축된 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친화적, 접근가능성, 그리고 진정성과 반응성(being friendly, accessible, and responsive while acting with integrity)이다. 청소년들이 항상 접근가능할 수 있어야만 하며,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친화적이고, 청소년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진정성과 인성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활동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 언급한 5가지 요인들은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활동은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Jeff와 Smith(2010)는 주장하고 있다.

김진호(2008)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생활환경과의 구조적접속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게 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몰입경험을 창출하게 하는 환경적 조건들은 양질의 청소년활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은 임의적·맹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경험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활동이며, 청소년들이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권일남외,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3a).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품위(品位)³⁾를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점차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탐색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과 같다(장상호, 2004). 따라서 청소년활동에서

지향하는 성장과 발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성되고, 성숙하며, 세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연적 과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환희와 같은 유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Csikszentmihalyi(1990)에 의해 밝혀진 몰입경험(flow experience)과 매우 유사하다. 즉, 경험이 점차 성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활동에서는 사람들이 외적 보상을 떠나 활동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장상호, 2006: 재인용). 이는 몰입경험이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청소년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다(김진호, 2008: 2-3)

Eccles와 Gootman(2002)는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 신체적·심리적 안전(physical and psychological safety), ② 청소년발달을 위한 적절한 구조(appropriate structure), ③ 상호 지원적인 관계망 구축(supportive relationships), ④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opportunities for belonging), ⑤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positive social norms), ⑥ 청소년들의 효능감과 문제제기 지원(support for efficacy and mattering), ⑦ 다양한 기능습득의 기회제공(opportunity for skill building), ⑧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통합된 노력(integration fo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efforts) 등 8가지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특징들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해서 청소년활동이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들 8가지 특성들을 모두 만족스럽게 충족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cles와 Gootman의 논의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장상호(2004)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간성을 품위(品位: transtalent)라는 개념으로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되,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거점은 현재상태이다(現品). 그리고 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현품(現品)을 토대로 그 다음의 높은 단계인 미품(未品)을 점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드러난다. 따라서 교육은 품위를 연결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표 2-2 발달적 맥락으로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청소년활동의 특성

	활동현장의 특성	반대상황
신체적·심리적 안전	안전한 시설, 또래친구와의 안전한 상호작용 촉진, 또래친구들과 위험하게 대치되는 상황 감소	신체적 위험, 공포, 불안, 성희롱, 타인에 대한 욕설
적절한 구조	명확한 규칙,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명확한 경계, 연령에 적합한 모니터링	무질서, 혼돈, 방임, 엄격성, 과잉억제, 독재적인 분위기
지원적 인간관계	따뜻함, 친밀함, 유대감, 좋은 의사소통, 지원과지지, 적절한 지도, 애착관계, 반응적 관계	쌀쌀함, 냉담함, 애매모호한 지원, 비신뢰, 승부욕, 무뎉둑함, 비반응적 관계, 거절
소속할 수 있는 기회	의미있는 집단참여, 사회적 소속과 참여, 통합, 사회문화적 정체감 형성 기회, 양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지원	배척, 무시, 집단간 갈등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	행동규범, 기대, 친사회적 규범, 긍정적인 가치기준과 도덕성	무규범상태, 도덕적 무질서, 자유방임적 행동, 반사회적-폭력적 규범, 무모한 행동, 소비향락주의
효능감과 문제제기에 대한 지원	청소년중심, 자발적 행동 지원, 임파워먼트, 지역사회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참여, 의미있는 도전, 현재의 실패보다는 희망적인 미래 중시	도전하지 않는 분위기, 과잉통제,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분위기, 희망적인 미래보다는 현재의 실패 중시
기능향상의 기회	신체적·지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 역량강화의 기회, 의도적 학습기회에 노출, 미디어 문해능력 향상기회, 커뮤니케이션능력 향상 기회, 직업준비, 사회·문화적 자본축적의 기회	나쁜 습관 습득 기회, 학습을 방해하는 기회,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회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통합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조화와 화합	부조화, 커뮤니케이션 부족, 갈등

※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2002), pp.90-91.

4)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

청소년활동은 방과후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 여가활동(leisure activities), 아웃도어 활동(outdoor activities), 비교과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등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용어들과의

개념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다 심도있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활동은 구조화된 활동, 비구조화된 활동, 반구조화된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다양한 유형의 활동과 청소년활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적 성격과 여가/레크레이션의 성격을 양측으로 했을 때 청소년활동은 어느 지점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개념정립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조직화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이다. Mahony, Larson, & Eccles(2005)에 의해 제시된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조직화된 활동(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1991)에서 정의된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소년지도자의 관리/감독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논쟁이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명기(2006)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지도자나 성인과 같은 외부의 타자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같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이면서도 자생적인 활동이 청소년활동의 범주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for youth)과 ‘청소년에 의한 활동’(by youth)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직화된 활동”만을 청소년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측면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화된 활동”의 개념이 비구조화된 활동(unstructured activities)이나 소극적 여가활동(passive leisure)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TV시청하기와 같은 비구조화된 활동이나 임의적이고 맹목적인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이 배제되어 있다면 “조직화된 활동”의 개념정의는 충분히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 기존에 사용되었던 “수련활동”의 의미가 다분히 강제적이고 극기 훈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에 청소년활동으로 개칭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미리 외, 2014),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조직화된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과 관련하여 그 분류체계가 상당히 비체계적이고, 유사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아서 개념 간 혼선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점과 관련된 논의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스포츠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영역별 분류기준에 보면 청소년봉사활동은 청소년문화예술활동과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에 대한 분류체계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임의적으로 정의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많은 개념적 혼선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after-school program), 아웃도어 활동(outdoor activities), 비교과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학교 밖 활동(out-of-school activities),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용어들이 청소년활동과 혼용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과 차별화된 모습들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개념정의를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hony, Larson과 Eccles(2005)은 청소년활동을 분류할 때 who, where, what, when, how와 같은 기준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Who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청소년활동을 구분할 때 활용가능하며(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탈학교청소년, 장애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Where는 장소에 의해 청소년활동을 구분할 때(ex: school-based, community-based), When은 시간기준에 의해 청소년활동을 구분할 때(ex: after-school, extra curricular, summer 등)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What은 청소년활동의 주요 내용(contents)에 의해 청소년활동을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현행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인증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에 대한 비체계적인 구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형식성의 정도와 관련된 논쟁이다. 형식성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적 장면은 형식적인 교육(formal education)과 비형식적 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youth work)에서는 전통적으로 형식적인 특성보다는 비형식적인 특성이 청소년활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활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관심과 요구, 흥미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관심사에 의해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자와 재정지원자들은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해 컨트롤하기를 원하고, 극대화된 효과창출을 원하게 되면서 비형식적 교육의 특성이 감소하고 형식적 교육의 특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추세로 인해 청소년정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점점 학교교육의 커리큘럼적 특성을 닮아가면서, 과연 청소년활동이 학교의 커리큘럼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청소년활동만의 차별화된 특성은 무엇인지가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Jeffs & Smith, 2010).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학교교육의 커리큘럼과 비슷하다면 이제 형식적 교육의 특성이 강해지고 있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관이나 시설에서 주도되기 보다는 학교 공교육시스템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특성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주도되어가는 사회적 트렌드를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청소년활동의 고유한 특성인 비형식적 교육의 특성을 현재의 흐름 속에서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육적 측면과 레크리에이션적 측면 중 어느 쪽이 강조되어야 하느냐와 관련된 논쟁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과 연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활동은 교육적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하지만 순수하게 재미만을 추구하는 활동(unalloyed pursuit of fun)이나 레크리에이션만을 위한 활동은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가? 실제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활동에서는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의미가 청소년활동에서는 재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미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은 충분히 양립가능하며, 오히려 재미의 측면이 가미될 때 교육적 경험은 촉진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을 무시하고 오로지 재미만을 위한 활동(activity that is for fun), 레크리에이션만을 위한 활동이라면 그러한 활동은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경험을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순수한 재미추구”와 “교육적 경험의 추구”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청소년활동을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창의적인 답은 철저하게 청소년지도자의 스킬에 달려있다. 따라서 재미의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개요⁴⁾

1차년도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 정책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개발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설문문항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집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정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조사에서는 체험활동, 문화활동, 직업체험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협의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였고,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내동향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 교육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파악하였다. 국외 청소년활동정책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유럽연합의 주요 청소년활동정책을 탐색하였다. 한편, 설문지 구성과 관련하여 국내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조사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임희진, 송병국(2014)의 연구에서는 김현철 외(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 2-1>과 같이 각종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조사연구를 분석하였고 이중의 일부를 설문지 개발에 활용하였다.

4) 임희진, 송병국(2014)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의 주요 내용 요약

표 2-3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의 개요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 사회·문화(개인 활동 및 시설이용 경험/미디어, 인터넷) - 가정생활(부모님과의 활동/부모님의 대화/안전/가정생활 만족도) - 학교생활 및 방과 후 활동 - 진로 및 아르바이트(향후 진로 계획/진로교육 경험/진로체험 경험/장래 희망 직업/아르바이트 경험)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1~고3	- 배경(청소년인구/생활여건) - 투입(청소년 기관 및 프로그램/청소년지도사/청소년정책 재정) - 과정(청소년 활동/청소년 단체/청소년 복지/청소년 상담/청소년 교류/청소년 자원봉사/청소년 선도 및 교정/청소년 보호/학교교육) - 결과(신체적 건강/정의적 특성/인지적 특성/사회적 역량/시민적 역량/진로 및 직업적 역량)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 청소년 활동(활동의식-활동가치, 활동태도/활동경험-집단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시설이용) - 청소년 문화(문화의식-문화가치, 문화태도/문화경험-순수예술문화, 대중예술문화, 정보문화) - 청소년역량(정서적/인지적/사회적/시민적/직업적 역량)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초6 중1~중2 고1~고2	- 청소년활동을 여가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 - 각 유형별 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횟수, 참여 계기, 참여시기 및 기간, 활동만족도 -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주 5일제 수업의 영향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초,중,고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별 참가현황 - 일상생활과 청소년활동

연구자(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11~16세	- 과학정보, 봉사, 문화예술 - 교류, 직업체험, 모험개척, 환경보존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초,중,고	- 실태, 만족도, 효과성(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심도,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사고, 단체 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학습의욕)
김현철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형모형 개발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고3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만족도), 학업동기(내적/외적/무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김현철 외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초6 중2 고2	-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및 참여방식 - 참여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아존 중감, 동기, 몰입, 행복감, 학습활동참여

* 자료: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p. 47~48.

이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김현철 외(2013)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내용,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2013)의 「청소년 직업체험 실태조사」 내용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활동 · 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김아영, 2008; 김현철 외, 2012; 문화체육관광부, 2012; 여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 2013;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임지연 외, 2009; 한국고용정보원, 2006; 한국방정환재단, Rosenberg, 1965)를 검토하고 설문문항을 수정 · 보완하였다.

설문지 초안에 대해서 예비조사(집단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실태조사 조사항목, 출처는 다음 <표 2-2>, <표 2-3>과 같다.

표 2-4

2014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항목 구성

조 사 내 용		문 항	
		문항 수	문항번호
체험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방식과 참여도	건강·보건활동	9	문1, 문1-1(1~8)
	과학정보활동	9	문2, 문2-1(1~8)
	교류활동	9	문3, 문3-1(1~8)
	모험개척활동	9	문4, 문4-1(1~8)
	문화예술활동	9	문5, 문5-1(1~8)
	봉사활동	9	문6, 문6-1(1~8)
	직업체험활동	9	문7, 문7-1(1~8)
	환경보존활동	9	문8, 문8-1(1~8)
	자기(인성)개발활동	9	문9, 문9-1(1~8)
	사회참여활동	9	문10, 문10-1(1~8)
체험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2	문11(1~2)
참여하고 싶었던 체험활동 유무 및 참여 못한 이유		2	문12, 문12-1
적극적인 체험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요소		1	문13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5	문14(1~5)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40	문15(1~8)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20	문16(1~10)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9	문17(1~9)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6	문18(1~16)
동기		18	문19(1~18)
자아존중감		10	문20(1~20)
진로성숙도		27	문21(1~27)
행복감		7	문22(1~7)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1
부모님의 학력		2	배경문항2(1~2)
부모님의 직업		2	배경문항3(1~2)
응답자의 학교성적		1	배경문항4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5
총 문항수		254	

* 자료: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59.

표 2-5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영역	내용	출처
체험활동 참여변인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여부 · 건강·보건활동 · 과학정보활동 · 교류활동 · 모험·개척활동 · 문화예술활동 · 봉사활동 · 직업체험활동 · 환경보존활동 · 자기(인성)개발활동 · 사회참여활동	· 여성가족부(2013)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작성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 · 8개 참여방식에 대한 참여여부 및 참여도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응답)	· 김현철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참여전후 교육여부 · 사전교육 · 사후교육	· 안선영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참여하고 싶은 활동 중 참여하지 못한 활동 유무 · 참여하지 못한 이유(1, 2, 3순위로 응답) · 체험활동 적극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 (1, 2, 3순위로 응답)	· 임지연 외(2009) 수정·보완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정도 (5개 시설 각각에 대한 이용경험)	· 여성가족부(2012)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 · 문화예술 행사 관람여부 및 관람횟수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참여횟수	· 문화체육관광부(2012)를 참고하여 작성
	진로체험 경험여부 ·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서울시교육청(2014)의 진로체험 유형과 안선영 외(2013)를 참고하여 작성
정의적 특성변인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15개 문항)	· 김현철 외(2012)
	자아존중감(10개 문항)	· Rosenberg(1965)
	동기 · 외재적 동기(6개 문항) · 내재적 동기(6개 문항) · 무동기(6개 문항)	· 김아영(2008)
	진로 성숙도 · 계획성(5개 문항) · 독립성(5개 문항) · 태도(5개 문항) · 자신지식(6개 문항) · 진로행동(6개 문항)	· 한국고용정보원(2006)
	행복감 · 주관적 행복(6개 문항) · 행복도(1개 문항)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 자료: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180.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있어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99.3%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고 있었고, 참여율이 높은 체험활동 영역은 「문화예술활동」, 「직업체험활동」, 「건강·보건활동」이었으며, 2013년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건강·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모험개척활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는 유의차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참여율의 경우에도 같았다.

둘째, 체험활동의 폭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외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0%였다. 체험활동의 참여 경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모든 활동 영역에서 많았다.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은 「진로캠프」, 「직업인 초청 강연」, 「시청각자료를 통한 체험」 등의 간접 체험 경험률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직업모의체험」, 「직업현장 업무 체험」, 「학교에서의 실습 및 견학」 등 직접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매번 교육을 받았다는 청소년은 각각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전·사후교육은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 고등학교,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미흡하였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 있었고,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과 관련해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시설 이용률도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더 많은 종류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사전·사후교육은 프로그램의 안전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사후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방식일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진로성숙도 중에서는 특히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기반하여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타 부처 정책사업과의 연계,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의 방향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 연구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의 한계를 밝혀내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그 한계를 살펴보고 2차년도 연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을 전문가자문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의 한계를 ① 전체 연구틀, ② 청소년활동의 개념, ③ 조사도구 구성 등 크게 3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전체 연구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5년 동안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지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연구의 방향과 틀거리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1차년도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사연구 설계과정에 있어 5년간의 연구내용을 제시하였지만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실태조사의 대상인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이론적 배경에서 명확하게 결정짓지 못하고, 매우 광의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은 조사도구의 개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 하에 2차년도 학교밖 청소년시설 활동, 3차년도 문화예술활동, 4차년도 교육정책과 연관된 자유학기제 및 직업체험활동 등의 부가연구를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둘째, 청소년활동을 광의적으로 개념 설정하였다.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이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기존 활동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한 한계가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청소년활

동, 수련활동, 체험활동, 청소년역량, 청소년사업, 청소년육성, 문화활동/문화예술활동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개념들을 개괄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각 개념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뿐만 아니라 각 개념들이 청소년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도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차년도에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것은 ‘참여’와 ‘참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처럼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이 아니라,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초점이 있어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조사도구의 구성이 너무 포괄적이다. 청소년활동이 광의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하위영역을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활동이나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업체험활동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설문도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활동은 9개 활동영역으로 구분해서 최근 1년간 참여했는지 안했는지 형태로 구성하고, 참여방식과 참여강도를 설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총 30개 활동으로 구분하여 경험여부와 횟수를 설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업체험과 관련해서는 총 9개 활동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경험여부와 도움여부를 설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은 9개, 문화예술은 30개, 직업체험은 9개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소년활동은 9개의 질문으로 요약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은 매우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활동으로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은 참여여부와 참여방식, 참여강도를 물어보고 있지만, 문화예술활동은 경험여부와 횟수를, 그리고 직업체험활동은 경험여부와 도움여부를 물어보고 있어서 각 영역간의 질문방식에 통일성이 다소 낮아 보인다.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를 파악하는 정의적 특성변인(동기,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등)에 있어서도 효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들이 제대로 설정된 선행연구가 없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청소년활동 참여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정의적 특성변인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1차년도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도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만 있을 뿐 청소년학계에서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1차년도 핵심 조사도구들을 살리면서 수정·보완·추가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현재 기설정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설계 재구조화를 추진하였다. 1차년도 연구를 기본연구라 생각하고 향후 진행될 4년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재구성 및 보완해나갈 생각이다. 현재의 평면적인 연구접근을 보완하여,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담보하기 위한 기초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들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효과에 대한 합의도출,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마련방안, 현존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때문이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다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인 경계구분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활동 개념을 신규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청소년활동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1차년도 연구결과와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된 청소년활동 보다는 기존의 청소년활동 개념들을 유지하되, 하위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청소년활동들을 세분화하고,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향후 청소년활동의 개념 정의와 청소년활동 하위영역에 대한 논의는 연차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며, 논의의 시작을 위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정책제언에 제시하였다.

셋째, 조사도구 구성에 있어서 1차년도 설문문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차년도 조사에서 핵심적인 실태조사 항목들은 매년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유지시키고, 신규로 필요한 조사항목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차년도 연구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분류한 9개 하위영역은 유지하면서 9개 영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은 단순화해서 매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조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9개 영역 중 문화예술활동에, 진로체험활동 경험은 9개 영역 중 직업체험활동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4년도 1차조사의 사회참여활동 영역은 청소년참여활동 영역으로 변경, 강화하여 포함하였다. 한편 다양한 정의적 특성변인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나 협의회를 통하여 유지할 항목과 개선할 항목을 구분하여 수정·보완·추가하였다.

제 III 장

설문조사 개요

1. 표본설계
2. 조사도구
3. 분석방법

제 3 장

설문조사 개요

1. 표본설계⁵⁾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3-1>과 <표 3-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911,00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78,934명(28.1%), 중학교 1,705,146명(34.7%), 고등학교 1,826,924명(37.2%)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고 1,295,108명(26.4%), 자율고 143,783명(2.9%), 특성화고 336,239명(6.8%), 특수목적고 51,794명(1.1%)이다.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실업, 해양고등학교 등
- 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예술, 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3-2>~<표 3-8>에 정리되어 있다.

5) 이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본설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4개의 과제가 동일한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함.

표 3-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6,480	78,984	77,406	86,604	99,910	98,528	598	598	598	383	383	381
경기	121,311	124,487	120,637	135,545	152,525	148,525	1,200	1,202	1,203	603	602	602
인천	25,505	26,907	25,956	29,581	33,146	33,004	238	240	243	132	133	134
강원	13,279	13,722	14,161	15,985	17,822	17,779	328	335	340	162	162	162
충북	14,342	14,656	14,795	17,018	18,798	18,651	259	259	264	128	128	128
충남	20,176	20,407	20,131	23,145	25,552	24,933	419	420	420	201	201	200
대전	15,218	15,759	15,398	17,410	19,636	19,229	144	146	146	88	88	87
경북	21,204	22,267	22,188	25,716	29,391	29,327	403	410	425	286	287	287
경남	30,668	31,606	31,321	36,103	40,842	40,468	468	472	474	273	273	272
부산	25,743	27,376	26,914	31,646	35,826	35,934	304	304	305	170	169	170
대구	21,790	23,591	22,936	26,925	30,647	31,168	219	219	219	124	123	123
울산	10,708	11,334	10,898	13,055	14,871	14,909	120	119	120	62	61	61
전북	16,811	17,580	17,947	20,732	23,258	22,799	383	385	388	209	208	209
전남	15,699	16,406	16,771	19,437	22,115	22,094	412	408	422	253	253	254
광주	15,419	16,603	16,280	18,764	21,453	21,091	151	151	151	88	88	87
제주	6,179	6,555	6,423	7,340	8,110	7,799	112	110	110	44	44	43
합계	450,532	468,240	460,162	525,006	593,902	586,238	5,758	5,778	5,828	3,206	3,203	3,200

표 3-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7,833	72,214	73,359	13,752	14,051	13,848	17,616	16,745	16,646	4,079	4,303	4,227
경기	121,161	121,388	119,903	4,262	4,197	3,955	20,391	21,363	20,705	3,888	3,969	4,018
인천	22,494	23,667	23,976	1,782	1,859	1,823	7,626	7,537	6,914	1,060	1,053	1,022
강원	14,600	14,714	14,601	157	149	149	3,587	3,439	3,180	370	373	304
충북	11,554	11,901	11,960	1,616	1,556	1,533	5,504	5,398	5,250	432	415	345
충남	17,425	17,508	17,314	2,245	1,913	1,868	6,074	5,977	5,999	663	635	470
대전	12,831	12,831	12,946	3,039	2,807	2,929	3,565	3,597	3,611	753	872	785
경북	19,897	20,881	20,904	2,669	2,675	2,699	6,779	6,827	6,667	594	593	481
경남	31,087	31,479	31,871	2,854	2,880	2,836	5,813	6,033	6,223	734	699	537
부산	22,687	24,152	24,920	3,619	3,737	3,905	8,461	8,241	8,694	2,148	2,179	2,074
대구	18,703	19,946	20,133	5,815	5,996	6,125	6,336	6,355	6,414	846	843	809
울산	10,774	11,562	12,202	957	997	686	3,269	3,219	2,870	419	345	291
전북	17,036	17,081	17,304	1,351	1,327	1,338	5,392	5,345	5,294	581	559	443
전남	13,963	13,968	14,087	2,295	2,331	2,365	6,344	6,604	6,458	468	450	339
광주	15,520	15,825	15,492	1,440	1,349	1,360	4,273	4,631	4,437	359	322	256
제주	5,779	5,910	5,765	225	225	237	1,474	1,543	1,519	141	142	106
합계	423,344	435,027	436,737	48,078	48,049	47,656	112,504	112,854	110,881	17,535	17,752	16,507

표 3-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2	182	180	44	44	44	74	74	74	18	18	18
경기	341	336	325	13	13	12	79	79	79	18	18	18
인천	79	79	77	7	7	7	29	29	29	7	7	7
강원	86	86	86	1	1	1	25	25	25	4	4	4
충북	46	45	46	6	6	6	27	27	27	4	4	4
충남	72	70	70	10	9	9	36	36	36	6	6	5
대전	37	37	36	8	8	8	12	12	12	5	5	5
경북	119	119	118	11	11	11	55	55	55	6	6	6
경남	136	136	135	10	10	10	38	38	38	6	6	6
부산	80	80	80	14	14	14	38	39	38	11	11	11
대구	50	50	50	17	17	17	20	20	20	5	5	5
울산	35	35	35	4	4	3	11	11	11	4	3	3
전북	89	89	89	5	5	5	34	34	34	4	4	4
전남	82	84	84	8	8	8	51	51	51	5	5	5
광주	45	45	45	5	5	5	14	14	14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499	1,493	1,476	164	163	161	550	551	550	108	107	106

표 3-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9,390	40,825	40,025	37,090	38,159	37,381	45,084	52,251	51,523	41,520	47,659	47,005
경기	62,467	64,322	62,579	58,844	60,165	58,058	70,375	79,349	76,846	65,170	73,176	71,679
인천	13,132	13,777	13,413	12,373	13,130	12,543	15,250	17,134	17,190	14,331	16,012	15,814
강원	6,923	7,087	7,392	6,356	6,635	6,769	8,375	9,418	9,246	7,610	8,404	8,533
충북	7,501	7,615	7,737	6,841	7,041	7,058	8,830	9,824	9,715	8,188	8,974	8,936
충남	10,384	10,544	10,558	9,792	9,863	9,573	11,868	13,282	13,007	11,277	12,270	11,926
대전	7,828	8,126	8,063	7,390	7,633	7,335	9,135	10,161	10,054	8,275	9,475	9,175
경북	11,217	11,684	11,775	9,987	10,583	10,413	13,562	15,645	15,564	12,154	13,746	13,763
경남	16,192	16,723	16,499	14,476	14,883	14,822	19,063	21,756	21,175	17,040	19,086	19,293
부산	13,234	14,300	14,040	12,509	13,076	12,874	16,525	18,868	19,029	15,121	16,958	16,905
대구	11,412	12,386	12,308	10,378	11,205	10,628	14,179	16,280	16,463	12,746	14,367	14,705
울산	5,657	6,049	5,731	5,051	5,285	5,167	6,950	7,862	7,842	6,105	7,009	7,067
전북	8,655	9,016	9,491	8,156	8,564	8,456	10,604	12,031	11,767	10,128	11,227	11,032
전남	8,174	8,498	8,712	7,525	7,908	8,059	10,159	11,598	11,537	9,278	10,517	10,557
광주	7,992	8,726	8,481	7,427	7,877	7,799	9,681	11,214	10,942	9,083	10,239	10,149
제주	3,261	3,432	3,464	2,918	3,123	2,959	3,879	4,168	4,077	3,461	3,942	3,722
합계	233,419	243,110	240,268	217,113	225,130	219,894	273,519	310,841	305,977	251,487	283,061	280,261

표 3-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4,170	36,152	36,817	9,450	9,684	9,476	8,497	7,850	7,871	1,197	1,343	1,258
경기	62,855	62,743	62,482	2,092	2,105	2,016	11,279	11,433	11,410	1,204	1,247	1,386
인천	11,751	12,111	12,386	1,073	1,120	1,146	3,940	3,892	3,565	444	468	425
강원	7,253	7,168	7,217	85	88	82	2,373	2,261	2,103	173	179	127
충북	5,789	5,900	6,044	936	914	946	3,097	2,900	2,839	186	181	131
충남	8,852	8,818	8,882	1,268	1,102	1,101	3,551	3,435	3,525	232	212	147
대전	6,152	6,133	6,208	1,951	1,842	1,925	2,148	2,112	2,163	310	347	292
경북	9,766	10,265	10,333	1,743	1,743	1,732	4,254	4,151	4,203	261	243	163
경남	15,006	15,253	15,943	2,311	2,268	2,219	3,618	3,653	3,816	316	308	216
부산	11,505	12,238	12,834	2,051	2,118	2,259	5,420	5,004	5,367	841	794	718
대구	9,384	9,797	10,035	3,258	3,348	3,454	4,083	4,016	3,996	366	336	304
울산	5,596	5,900	6,496	495	529	346	2,015	1,931	1,691	168	125	82
전북	8,138	8,279	8,264	1,222	1,201	1,211	3,178	3,057	3,006	222	227	149
전남	6,395	6,378	6,497	1,698	1,717	1,769	3,717	3,771	3,728	191	192	112
광주	7,806	7,828	7,719	869	858	856	2,265	2,518	2,422	177	155	92
제주	3,137	3,275	3,204	0	0	0	746	771	723	63	59	42
합계	213,555	218,238	221,361	30,502	30,637	30,538	64,181	62,755	62,428	6,351	6,416	5,644

표 3-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3,663	36,062	36,542	4,302	4,367	4,372	9,119	8,895	8,775	2,882	2,960	2,969
경기	58,306	58,645	57,421	2,170	2,092	1,939	9,112	9,930	9,295	2,684	2,722	2,632
인천	10,743	11,556	11,590	709	739	677	3,686	3,645	3,349	616	585	597
강원	7,347	7,546	7,384	72	61	67	1,214	1,178	1,077	197	194	177
충북	5,765	6,001	5,916	680	642	587	2,407	2,498	2,411	246	234	214
충남	8,573	8,690	8,432	977	811	767	2,523	2,542	2,474	431	423	323
대전	6,679	6,698	6,738	1,088	965	1,004	1,417	1,485	1,448	443	525	493
경북	10,131	10,616	10,571	926	932	967	2,525	2,676	2,464	333	350	318
경남	16,081	16,226	15,928	543	612	617	2,195	2,380	2,407	418	391	321
부산	11,182	11,914	12,086	1,568	1,619	1,646	3,041	3,237	3,327	1,307	1,385	1,356
대구	9,319	10,149	10,098	2,557	2,648	2,671	2,253	2,339	2,418	480	507	505
울산	5,178	5,662	5,706	462	468	340	1,254	1,288	1,179	251	220	209
전북	8,898	8,802	9,040	129	126	127	2,214	2,288	2,288	359	332	294
전남	7,568	7,590	7,590	597	614	596	2,627	2,833	2,730	277	258	227
광주	7,714	7,997	7,773	571	491	504	2,008	2,113	2,015	182	167	164
제주	2,642	2,635	2,561	225	225	237	728	772	796	78	83	64
합계	209,789	216,789	215,376	17,576	17,412	17,118	48,323	50,099	48,453	11,184	11,336	10,863

표 3-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4	24.3	24.0	29.1	31.2	31.3
경기	23.6	23.5	23.3	31.7	32.0	31.9
인천	22.9	22.7	22.2	29.2	32.0	32.2
강원	14.5	14.3	14.2	20.9	23.6	23.4
충북	16.5	16.6	16.5	24.1	25.7	25.7
충남	16.4	16.6	16.4	25.0	26.4	25.9
대전	22.5	22.2	22.2	30.3	32.1	32.0
경북	17.5	17.2	16.9	20.8	21.7	21.9
경남	17.9	17.8	18.0	25.2	26.9	26.9
부산	21.4	21.7	21.4	28.5	30.8	31.0
대구	21.9	22.3	21.7	28.8	31.5	32.7
울산	21.5	21.8	21.2	27.9	30.9	30.8
전북	15.3	15.0	15.1	22.4	23.2	23.3
전남	14.8	15.2	15.1	22.1	22.6	23.1
광주	22.5	22.5	22.5	30.8	32.8	33.6
제주	17.9	18.1	18.3	27.9	29.1	29.0
합계	19.8	19.8	19.6	26.6	28.1	28.2

표 3-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	33.6	34.0	30.7	30.4	29.8	26.3	24.8	24.7	29.9	30.3	31.0
경기	32.7	33.5	34.0	31.5	30.9	31.1	28.8	29.3	28.1	29.0	29.4	28.3
인천	28.8	30.5	30.7	30.3	31.0	29.7	28.6	28.3	25.9	26.5	26.3	23.7
강원	28.0	28.1	27.6	14.3	13.5	13.5	23.8	22.3	20.6	26.2	29.6	23.3
충북	33.2	33.6	33.2	30.6	29.4	29.8	29.1	28.5	27.6	24.3	23.8	20.0
충남	31.5	31.9	31.7	29.7	29.0	28.7	25.8	25.6	24.9	26.8	26.1	23.2
대전	34.5	34.8	35.3	35.8	32.8	33.1	28.6	28.3	28.5	26.8	28.6	25.7
경북	27.6	28.3	28.3	30.8	31.1	31.3	25.1	25.0	23.9	29.2	29.0	22.1
경남	30.7	30.7	30.6	31.4	31.1	30.9	24.0	24.1	24.1	24.9	24.6	18.6
부산	30.2	31.6	32.2	29.7	30.3	29.8	25.1	23.7	24.5	26.6	26.8	26.4
대구	32.5	34.6	34.9	33.3	33.6	34.2	28.1	27.5	27.3	27.5	26.5	24.7
울산	32.4	34.9	36.4	29.8	31.1	31.0	31.1	29.9	27.8	23.0	22.8	19.7
전북	28.0	27.7	28.5	30.9	30.4	30.8	25.7	24.9	24.5	27.0	25.5	20.0
전남	27.7	27.8	27.5	32.4	33.0	34.0	22.2	22.5	21.3	25.2	23.1	19.0
광주	35.9	36.7	37.5	36.0	34.5	35.7	30.9	31.4	30.2	27.5	26.7	22.1
제주	34.6	35.0	34.1	32.1	32.1	33.9	28.6	29.7	29.8	22.5	22.9	17.0
합계	31.0	31.8	32.0	31.3	31.1	31.0	26.4	26.0	25.2	27.3	27.4	24.9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 s)^2}{N d^2 + (z 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5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4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3-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 학교	초등 학교	4	450,532	1,378,934 (28.1%)	2,667 (28.1%)		2,700 (28.4%)	
		5	468,240					
		6	460,162					
중 학 교	중학교	1	525,006	1,705,146 (34.7%)	3,298 (34.7%)		3,132 (32.9%)	
		2	593,902					
		3	586,238					
고 등 학 교	일반고	1	423,344	1,295,108 (26.4%)	2,505 (26.4%)		2,400 (25.2%)	
		2	435,027					
		3	436,737					
	자율고	1	48,078	143,783 (2.9%)	278 (2.9%)	3,486 (36.7%)	480 (5.0%)	
		2	48,049					
		3	47,656					
	특성화고	1	112,504	336,239 (6.8%)	650 (6.8%)		648 (6.8%)	
		2	112,854					
		3	110,881					
	특수 목적고	1	17,535	51,794 (1.1%)	100 (1.1%)		156 (1.6%)	
		2	17,752					
		3	16,507					
합계				4,911,004 (100.0%)	9,500 (100.0%)		9,516 (100.0%)	

표 3-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55	555	412	42	179	95
경기	716	850	699	69	77	
인천	153	186	135			
강원	80	100	85	45	86	
충북	86	106	68			
충남	119	143	101			
대전	91	110	74			
경북	128	164	119	75	208	
경남	183	228	182			
부산	156	201	138			
대구	134	173	113			
울산	64	83	67	44	68	
전북	102	130	99			
전남	96	124	81			
광주	94	119	90			
제주	37	45	34			
합계	2,696	3,318	2,498	275	617	95

* 총계: 9,500명

표 3-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2.8	19.1	12.9	1.3	6.6	3.7
경기	35.8	29.3	21.8	2.2	2.8	
인천	7.7	6.4	4.2			
강원	4.0	3.5	2.6	1.4	3.2	
충북	4.3	3.7	2.1			
충남	5.9	4.9	3.1			
대전	4.5	3.8	2.3			
경북	6.4	5.7	3.7	2.4	7.7	
경남	9.1	7.9	5.7			
부산	7.8	6.9	4.3			
대구	6.7	6.0	3.5			
울산	3.2	2.9	2.1	1.4	2.5	
전북	5.1	4.5	3.1			
전남	4.8	4.3	2.5			
광주	4.7	4.1	2.8			
제주	1.9	1.6	1.1			
합계	134.8	114.4	78.1	8.6	22.9	3.7

* 총계: 362.4개

표 3-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7)	18(6)	12(4)	3(1)	6(2)	6(2)
경기	33(11)	27(9)	18(6)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9(3)	6(2)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6(2)	3(1)	3(1)	3(1)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35(45)	108(36)	75(25)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3(121)개

표 3-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20	522	384	96	162	156
경기	660	783	576	96	81	
인천	180	174	96			
강원	60	87	96	96	81	
충북	60	87	96			
충남	120	174	96			
대전	120	87	96			
경북	120	174	96			
경남	180	261	192	96	243	
부산	180	174	96			
대구	120	174	96			
울산	60	87	96			
전북	120	87	96			
전남	120	87	96			
광주	120	87	96			
제주	60	87	96			
합계	2,700	3,132	2,400	480	648	156

* 총계: 9,516명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 $\times$ 학교급=43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3-10>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3-11>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62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44명(학년당 약 15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5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3-9>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 $\times$ 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6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9,500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9명, 일반고 32명, 자율고 32명, 특성화고 27명, 특수목적고 26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 $\times$ 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3-12>, <표 3-13>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3-12>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물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가설검정 등을 위해 표준화 가중치(standardized weight)를 사용하였다. 표준화 가중치는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크기와 같도록(가중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원 가중치를 변환한 것으로, 원 가중치와 표준화 가중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ext{표준화 가중치} = \text{원 가중치} \times \frac{n(\text{표본 크기})}{N(\text{모집단 크기})}$$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 $\times$ 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2. 조사도구

1) 조사문항 개발절차 및 구성

2015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은 문헌연구, 자문회의, 연구진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문항 개발절차는 다음 [그림 3-1]과 같이 2014년 1차년도 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전문가 자문(학계전문가 2인, 현장전문가 2인, 관계공무원 1인)과 연구진 검토회의를 통해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림 3-1】 조사문항 개발절차

6) 본 과제의 설문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개의 과제(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을 하나의 통합설문으로 제작하여 실시함. 이 과정에서 최종설문지에 공통문항(성별, 가족구성원, 거주 지역, 부모님 학력 및 취업여부,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을 추가함.

조사문항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향후 5년간 비교·분석하기 위해 1차년도에 핵심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였다(표 3-14).

표 3-14 2014년도-2015년도 조사문항 비교

조사 영역	조사내용	2014년	2015년		
			동일	수정·보완	신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		○	
	청소년활동 만족도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		○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		○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	
	청소년정책 인지도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		○	
	청소년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			
	참여하고 싶었던 청소년활동 유무	○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			
정의적 특성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자아존중감	○	○		
	진로성숙도	○		○	
	행복감	○	○		
	리더십생활기술				○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배경변인	동기	○			
	성별	○	○		
	가족구성원	○	○		
	거주 지역				○
	부모님 학력	○	○		
	부모님 취업여부	○	○		
	학업성적	○	○		
청소년활동 및 생활실태 국제비교	가정의 경제수준	○	○		
	체험				○
	생활습관				○
	생활실태				○
	의식				○

구체적으로 2015년도 조사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3-15>와 같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정책 인지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정의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을 포함하였다. 배경변인은 성별, 가족구성원, 거주 지역, 부모님 학력 및 취업여부,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이다.

표 3-15 2015년도 조사문항 구성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7	문1(1~7)
		과학정보활동	6	문2(1~6)
		교류활동	4	문3(1~4)
		모험개척활동	5	문4(1~5)
		문화예술활동	8	문5(1~8)
		봉사활동	7	문6(1~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5	문7(1~5)
		환경보존활동	6	문8(1~6)
		자기(인성)계발활동	4	문9(1~4)
		청소년참여활동	6	문10(1~6)
	청소년활동 만족도		5	문11(1~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	문12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	문13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문14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	문1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문1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0	문17(1~10)
	청소년정책 인지도		9	문18(1~9)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문19(1~10)
	진로성숙도		7	문20(1~7)
	행복감		7	문21(1~6), 문21(7)
	리더십생활기술		30	문22(1~30)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배경변인	성별	1	배경문항1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2
	거주 지역	1	배경문항3
	부모님 학력	1	배경문항4
	부모님 취업여부	1	배경문항5
	학업성적	1	배경문항6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7
청소년활동 및 생활실태 국제비교	체험	16	· 생활 및 자연체험실태: 문23(1~5) · 집안일 돕기: 문24(1~3) · 학교수업 및 행사 이외의 체험활동: 문29(1~8)
	생활습관	8	· 기본생활습관: 문25(1~6) · 기상 및 취침시간: 문31, 문32
	생활실태	37	· 일상생활: 문26(1~14), 문30, 문33(6~7), 문34, 문40, 문41, 문42, 문43(1~2) · 생활환경: 문35, 문36, 문37, 문38 · 미디어 이용실태: 33(1~5), 39(1~5)
	의식	22	· 자기긍정감: 문28(1~6) · 자립적인 행동습관: 문27(1~14) · 도덕성 · 정의감: 문25(7~8)

한편, 2015년도 조사문항에는 청소년활동 및 생활실태의 국제비교를 위해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체험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에서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로부터 받아 번역한 2015년도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문항을 선택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에 추가하였다. 관련내용은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인 2016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에서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활동 및 생활실태 국제비교의 조사내용 명명과 구분은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의 2014년도 ‘청소년체험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2) 조사내용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①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의 영역별 참여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2014a)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영역 및 영역별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9개의 인증수련활동 영역에 청소년참여활동을 추가하여 10개의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개의 영역 명칭을 변경(직업체험활동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으로 변경)하였다. 영역별 활동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수정·보완했으며,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를 참고로 문화예술행사를 구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영역을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의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활동의 참여 여부를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최근 1년간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1~2번, 3~4번, 5번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② 청소년활동 만족도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성호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반적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의 총 5문항으로 참여한 활동의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③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형태는 김현철 외(2013)를 참고하여 임희진, 송병국(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교내-교외 연계활동으로 참여’,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온라인동아리

활동으로 참여', '종교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참여', '가족과 함께 참여'의 9개 문항에 대해 최근 1년간 주로 어떠한 형태로 참여했는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④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2014b)의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질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경로는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⑤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임지연 외(2009)의 연구를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최근 1년간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을 선택하게 하였다.

⑥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희진, 송병국(2014)이 임지연 외(2009)를 참고로 구성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기타'의 9개 문항에 대해 선택하게 하였다.

⑦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활동 10가지 영역(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 중 희망하는 3가지 활동을 순서대로 선택하게 하였다.

⑧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의 이용경험은 여성가족부(2012)를 참고로 임희진, 송병국(2014)이 작성한 문항, 여성가족부(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도서관, 공연 및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주민센터·문화센터에 대해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한 적 있음’(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⑨ 청소년정책 인지도

청소년정책 인지도는 여성가족부(2014b)의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설문문항을 수정·보안하였다. 문항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의 3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2) 정의적 특성

① 자아존중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했다.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이 중 5문항은 역 문항(문19-3, 문19-5, 문19-8, 문19-9, 문19-10)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 문항 변환 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임희진, 송병국,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46으로 분석되었다.

②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문항을 활용하였다(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척도는 총 7문항이며, 모두 역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88로 나타났다.

③ 행복감

행복감은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6개 문항에 1개의 단일 문항을 추가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연구를 재인용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의 주관적 행복감 6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문21-6번은 역 채점).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95로 조사되었다.

④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는 최창욱(2001)이 Dormody & Seevers(1995), Morris(1996), Seevers & Dormody(1995), Seevers, Dormody & Clason(1995), Wingenbach(1995) 등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리더십생활기술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61로 확인되었다.

(3) 배경변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가족구성원, 거주 지역, 부모님 학력, 부모님 취업여부,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일반적 특성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4) 청소년활동 및 생활실태 국제비교

① 체험

체험에서는 청소년의 생활 및 자연체험실태, 집안일 돕기, 학교수업 및 행사 이외의 체험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생활 및 자연체험실태는 ‘전혀 없다’, ‘조금 있다’, ‘자주 있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도로와 공원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다’, ‘따돌림 혹은 싸움을 말려 본 적이 있다’, ‘장애인, 노인, 곤란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다’, ‘외국 사람과 교류를 하거나,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다’, ‘캠핑을 해 본 적이 있다’의 총 5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집안일 돕기는 ‘장보기 등 심부름을 해 본 적이 있다’, ‘집 청소 및 정리정돈을 도와준 적이 있다’,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의 총 3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수업 및 행사 이외의 체험활동은 ‘등산,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바다와 강 등에서 수영을 하거나, 보트·카누·요트를 타기’, ‘캠핑하기’, ‘스키, 눈썰매 등 눈에서의 활동’, ‘방과 후, 휴일에 몸을 움직이는 놀이와 스포츠 하기’, ‘식사지원, 장보기, 청소 돕기’, ‘지역의 청소 활동과 폐품 회수(재활용 수거) 활동’, ‘지역의 스포츠대회와 문화제 등의 행사에 참가하기’의 총 8문항에 대해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의 3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② 생활습관

기본생활습관, 기상 및 취침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기본생활습관은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는다’, ‘아침에 식사를 한다’, ‘자신의 이불을 정리정돈 한다’, ‘아침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난다’, ‘집에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웃 사람들과 아는 사람을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의

총 6문항으로 살펴보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상 및 취침시간은 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대해 해당 보기를 선택하게 하였다.

③ 생활실태

생활실태는 일상생활, 생활환경, 미디어 이용실태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일상생활은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경우가 있다’,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한 적이 있다’, ‘저녁을 혼자서 먹는 경우가 있다’,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저금을 한다’ 등 총 14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전혀 없다’ ~ ‘자주 있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독서량, 만화책 읽는 시간, 공부시간, 피로감, 청소년단체·스포츠단체·학교동아리 소속여부, 사교육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만화와 잡지를 제외한 한 달 독서량은 ‘전혀 읽지 않음’, ‘1~2권’, ‘3~5권’, ‘6~9권’, ‘10권 이상’ 중 선택하게 하였다. 만화책(만화 잡지도 포함) 읽기와 공부(학교 수업, 방과 후 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시간은 ‘전혀 안함’, ‘1시간미만’, ‘1시간~2시간미만’, ‘2시간~3시간미만’, ‘3시간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평소에 운동이나 스포츠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로를 느낀 적이 있는지는 ‘전혀 없다’ ~ ‘자주 있다’의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청소년단체, 스포츠단체, 학교의 동아리 소속여부는 ‘예’, ‘아니오’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공부를 위한 학원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을 며칠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다니고 있지 않다’, ‘1~2일’, ‘3~4일’, ‘5~6일’, ‘매일’로 질문하였다.

생활환경에서는 형제자매가 몇 명 있는지,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지, 자신의 방이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형제나 자매가 몇 명인지 묻는 문항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다’로 질문하였다. 혼자서 사용하는 자신의 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물건을 살펴보기 위해 ‘텔레비전’, ‘휴대폰(스마트폰은 제외)’,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로 질문했으며,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미디어 이용실태는 ‘텔레비전, 비디오, DVD 시청’, ‘비디오게임, 컴퓨터게임’,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태블릿 사용’, ‘인터넷 이용’의 5문항에 대해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전혀 안함’, ‘1시간미만’, ‘1시간~2시간미만’, ‘2시간~3시간미만’, ‘3시간이상’으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이용실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린다’, ‘식사나 대화중에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이 신경 쓰인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메일 또는 SNS에서 대화를 나눈다’, ‘메일,

문자메시지, SNS의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변을 한다’, ‘매일, 문자메시지, SNS의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답변이 없으면 불안하다’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④ 의식

의식에서는 청소년의 자기긍정감, 자립적인 행동습관, 도덕성·정의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긍정감은 ‘교내에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교외의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지금의 나를 좋아한다’, ‘나에게는 나다운 개성이 있다’, ‘체력에 자신이 있다’의 총 6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립적인 행동습관은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한다’, ‘주변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자신이 가능한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알아본다’ 등의 총 4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도덕성·정의감은 ‘버스와 전철에서 몸이 불편한 분 또는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다’,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만하도록 타이른다’의 2문항으로 살펴보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 분석은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배경변인별 χ^2 검증, t 검증, ANOVA(사후검증 Scheffe)를 실시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된 배경변인은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업성적(상, 중, 하), 경제수준(상, 중, 하)이다.

제 IV 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3. 정의적 특성
4.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5. 소 결

제 4 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10,506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52.1%(5,476명), 여자 청소년이 47.9%(5,030명)로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506	100.0
성별	남자	5476	52.1
	여자	5030	47.9
학교급	초등학교	2950	28.1
	중학교	3648	34.7
	고등학교	3908	37.2
지역규모	대도시	4597	43.8
	중소도시	4321	41.1
	읍면지역	1588	15.1
학업성적	상	3365	32.0
	중	4424	42.1
	하	2654	25.3
	무응답	63	0.6
경제수준	상	4546	43.3
	중	4495	42.8
	하	1451	13.8
	무응답	14	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8.1%(2,950명), 중학생이 34.7%(3,648명), 고등학생이 37.2%(3,908명)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3.8%(4,597명),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1.1%(4,321명),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5.1%(1,588명)로 확인되었다. 성적의 경우, 상위권에 속한 청소년이 32.0%(3,365명), 중위권이 42.1%(4,424명), 하위권이 25.3%(2,654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 집단이 43.3%(4,546명), 중 집단이 42.8%(4,495명), 하 집단이 13.8%(1,451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다수(97.4%)의 응답자가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2.6%에 해당하는 소수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4-2〉), 여자 청소년(98.3%)이 남자 청소년(96.6%)보다($p < .001$), 학교급(초 98.2%, 중 97.5%, 고 96.7%)이 낮을수록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거주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98.7%), 대도시(97.6%), 중소도시(96.7%)의 순으로($p < .001$),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상 98.5%, 중 97.3%, 하 96.1%)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98.3%), 하 집단(97.0%), 중 집단(96.6%)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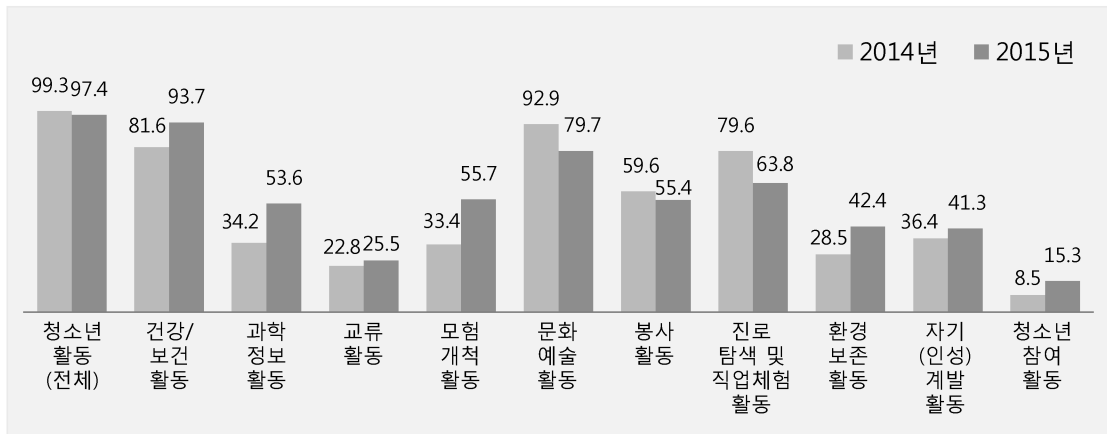
표 4-2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97.4	2.6	100.0	—
성별	남자	96.6	3.4	100.0	$\chi^2=27.484$ $p=0.000$
	여자	98.3	1.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8.2	1.8	100.0	$\chi^2=14.244$ $p=0.001$
	중학교	97.5	2.5	100.0	
	고등학교	96.7	3.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7.6	2.4	100.0	$\chi^2=19.466$ $p=0.000$
	중소도시	96.7	3.3	100.0	
	읍면지역	98.7	1.3	100.0	
학업성적	상	98.5	1.5	100.0	$\chi^2=32.841$ $p=0.000$
	중	97.3	2.7	100.0	
	하	96.1	3.9	100.0	
경제수준	상	98.3	1.7	100.0	$\chi^2=26.118$ $p=0.000$
	중	96.6	3.4	100.0	
	하	97.0	3.0	100.0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보면([그림 4-2]), ‘건강·보건활동’의 참여율이 93.7%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문화예술활동’(79.7%)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3.8%)에도 비교적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모험개척활동’(55.7%), ‘봉사활동’(55.4%), ‘과학정보활동’(53.6%), ‘환경보존활동’(42.4%), ‘자기(인성)계발활동’(41.3%), ‘교류활동’(25.5%), ‘청소년참여활동’(15.3%)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활동의 전체 참여율은 유사하였으나 영역별 참여율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모험개척활동’(22.3%p), ‘과학정보활동’(19.4%p), ‘환경보존활동’(13.9%p), ‘건강·보건활동’(12.1%p)은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15.8%p), ‘문화예술활동’(13.2%p)의 참여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4-2】 2014~2015년 청소년활동 참여율 비교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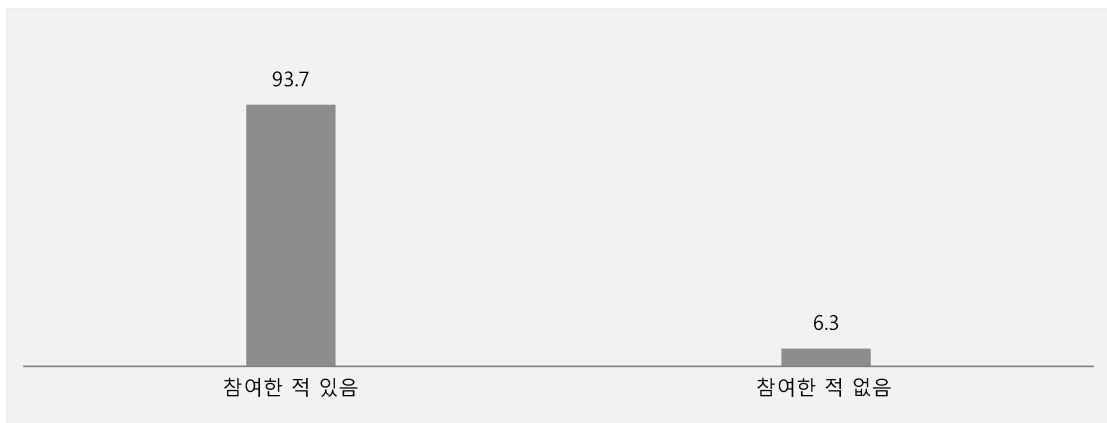
1) 2014년 자료: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91.

2) 임희진, 송병국(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활동의 영역은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사회참여활동으로 분류함.

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최근 1년간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참여한 적 있음’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93.7%, ‘참여한 적 없음’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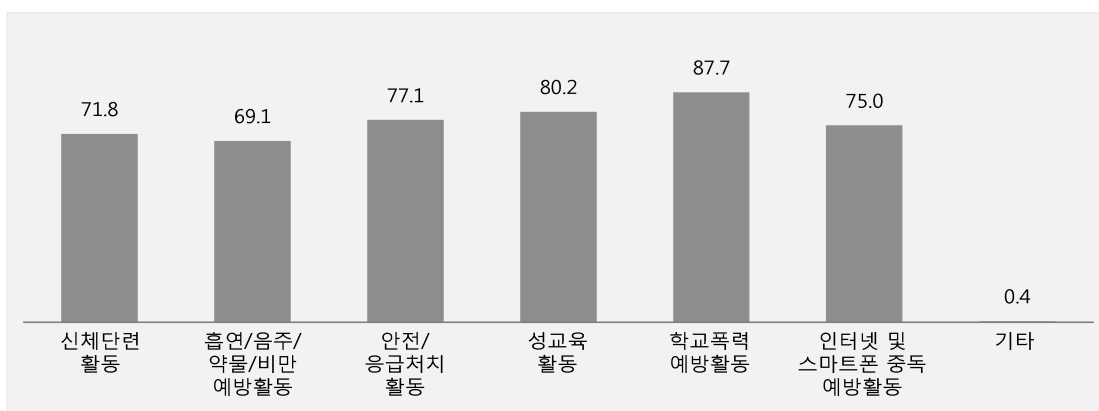
【그림 4-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특히, 여자 청소년(94.4%)이 남자 청소년(93.0%)보다($p<.01$), 학교급(초 95.5%, 중 94.3%, 고 91.7%)이 낮을수록 건강·보건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읍면지역(96.8%), 대도시(93.8%), 중소도시(92.3%)의 순으로($p<.001$), 학업성적(상 95.2%, 중 93.6%, 하 91.6%)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95.0%)이 하 집단(92.8%)이나 중 집단(92.6%)에 비해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표 4-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93.7	6.3	100.0	—
성별	남자	93.0	7.0	100.0	$\chi^2=8.473$ $p=0.004$
	여자	94.4	5.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5.5	4.5	100.0	$\chi^2=45.482$ $p=0.000$
	중학교	94.3	5.7	100.0	
	고등학교	91.7	8.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3.8	6.2	100.0	$\chi^2=38.958$ $p=0.000$
	중소도시	92.3	7.7	100.0	
	읍면지역	96.8	3.2	100.0	
학업성적	상	95.2	4.8	100.0	$\chi^2=32.476$ $p=0.000$
	중	93.6	6.4	100.0	
	하	91.6	8.4	100.0	
경제수준	상	95.0	5.0	100.0	$\chi^2=24.028$ $p=0.000$
	중	92.6	7.4	100.0	
	하	92.8	7.2	100.0	



【그림 4-4】 건강·보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구체적으로 건강·보건활동의 세부 활동별로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그림 4-4]),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8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교육활동’(80.2%), ‘안전·응급처치활동’(77.1%),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75.0%), ‘신체단련활동’(71.8%),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69.1%)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①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 가량(71.8%)의 청소년이 신체단련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나머지 28.2%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학교급(초 74.1%, 중 72.5%, 고 69.5%)이 낮을수록($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75.6%), 대도시(73.1%), 중소도시(69.0%) 거주 청소년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75.1%, 중 71.3%, 하 68.0%)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74.6%, 중 70.5%, 하 67.2%)이 높을수록 신체단련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4-4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71.8	28.2	100.0	—
성별	남자	71.7	28.3	100.0	$\chi^2=0.037$ $p=0.848$
	여자	71.9	28.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4.1	25.9	100.0	$\chi^2=18.486$ $p=0.000$
	중학교	72.5	27.5	100.0	
	고등학교	69.5	30.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3.1	26.9	100.0	$\chi^2=31.090$ $p=0.000$
	중소도시	69.0	31.0	100.0	
	읍면지역	75.6	24.4	100.0	
학업성적	상	75.1	24.9	100.0	$\chi^2=36.953$ $p=0.000$
	중	71.3	28.7	100.0	
	하	68.0	32.0	100.0	
경제수준	상	74.6	25.4	100.0	$\chi^2=35.986$ $p=0.000$
	중	70.5	29.5	100.0	
	하	67.2	32.8	100.0	

② 건강·보건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전체 응답자 중 2/3 이상(69.1%)은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에 참여경험이 있었으며, 1/3 정도(30.9%)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 이외의 특성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70.2%)이 남자 청소년(68.1%)보다($p<.05$), 학교급별로는 중학생(76.0%)이 고등학생(65.9%)이나 초등학생(64.8%)보다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75.0%), 대도시(70.8%), 중소도시(65.2%) 순으로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71.0%)에 속한 청소년이 중(68.3%)·하위권(68.0%) 청소년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5$).

표 4-5 건강·보건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9.1	30.9	100.0	—
성별	남자	68.1	31.9	100.0	$\chi^2=5.288$ $p=0.021$
	여자	70.2	29.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4.8	35.2	100.0	$\chi^2=125.912$ $p=0.000$
	중학교	76.0	24.0	100.0	
	고등학교	65.9	34.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0.8	29.2	100.0	$\chi^2=62.203$ $p=0.000$
	중소도시	65.2	34.8	100.0	
	읍면지역	75.0	25.0	100.0	
학업성적	상	71.0	29.0	100.0	$\chi^2=8.127$ $p=0.017$
	중	68.3	31.7	100.0	
	하	68.0	32.0	100.0	
경제수준	상	69.4	30.6	100.0	$\chi^2=2.504$ $p=0.286$
	중	68.4	31.6	100.0	
	하	70.4	29.6	100.0	

③ 건강·보건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전체 청소년의 3/4 이상(77.1%)이 안전·응급처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2.9%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78.2%)이 남자 청소년(76.1%)보다 참여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1.4%), 초등학생(76.4%), 고등학생(73.5%)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으며($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81.3%)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76.4%)나 대도시(76.3%)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또한 학업성적(상 78.7%, 중 76.9%, 하 75.2%)이 높을수록($p<.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79.1%, 중 76.5%, 하 72.6%)이 높을수록 안전·응급처치활동의 참여경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표 4-6 건강·보건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77.1	22.9	100.0	—
성별	남자	76.1	23.9	100.0	$\chi^2=6.860$ $p=0.009$
	여자	78.2	21.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6.4	23.6	100.0	$\chi^2=67.435$ $p=0.000$
	중학교	81.4	18.6	100.0	
	고등학교	73.5	26.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6.3	23.7	100.0	$\chi^2=18.565$ $p=0.000$
	중소도시	76.4	23.6	100.0	
	읍면지역	81.3	18.7	100.0	
학업성적	상	78.7	21.3	100.0	$\chi^2=9.917$ $p=0.007$
	중	76.9	23.1	100.0	
	하	75.2	24.8	100.0	
경제수준	상	79.1	20.9	100.0	$\chi^2=27.438$ $p=0.000$
	중	76.5	23.5	100.0	
	하	72.6	27.4	100.0	

④ 건강·보건활동: 성교육활동

성교육활동은 전체 청소년의 약 80%(80.2%)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0% 정도(19.8%)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7>).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81.9%)이 남자 청소년(78.6%)보다($p<.001$), 중학생(84.4%)이 초등학교(78.5%) 혹은 고등학교(77.5%)보다 성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84.9%) 거주 청소년의 경우, 대도시(79.4%)와 중소도시(79.3%)의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81.5%, 중 80.0%, 하 78.7%)이 높을수록($p<.05$),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81.7%), 하 집단(79.4%), 중 집단(78.9%)의 순으로 비교적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4-7 건강·보건활동: 성교육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80.2	19.8	100.0	—
성별	남자	78.6	21.4	100.0	$\chi^2=17.146$ $p=0.000$
	여자	81.9	18.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8.5	21.5	100.0	$\chi^2=63.390$ $p=0.000$
	중학교	84.4	15.6	100.0	
	고등학교	77.5	22.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9.4	20.6	100.0	$\chi^2=26.231$ $p=0.000$
	중소도시	79.3	20.7	100.0	
	읍면지역	84.9	15.1	100.0	
학업성적	상	81.5	18.5	100.0	$\chi^2=7.425$ $p=0.024$
	중	80.0	20.0	100.0	
	하	78.7	21.3	100.0	
경제수준	상	81.7	18.3	100.0	$\chi^2=11.763$ $p=0.003$
	중	78.9	21.1	100.0	
	하	79.4	20.6	100.0	

⑤ 건강·보건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87.7%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3%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8).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89.2%)이 남자 청소년(86.4%)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9.8%)과 초등학교(88.8%)이 고등학교(85.0%)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그리고 읍면지역(92.4%) 청소년이 대도시(87.4%)나 중소도시(86.4%)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상 89.1%, 중 87.9%, 하 85.6%)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89.4%, 중 86.6%, 하 85.8%)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4-8 건강·보건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87.7	12.3	100.0	—
성별	남자	86.4	13.6	100.0	$\chi^2=18.617$ $p=0.000$
	여자	89.2	10.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8.8	11.2	100.0	$\chi^2=45.270$ $p=0.000$
	중학교	89.8	10.2	100.0	
	고등학교	85.0	15.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87.4	12.6	100.0	$\chi^2=39.807$ $p=0.000$
	중소도시	86.4	13.6	100.0	
	읍면지역	92.4	7.6	100.0	
학업성적	상	89.1	10.9	100.0	$\chi^2=16.856$ $p=0.000$
	중	87.9	12.1	100.0	
	하	85.6	14.4	100.0	
경제수준	상	89.4	10.6	100.0	$\chi^2=22.332$ $p=0.000$
	중	86.6	13.4	100.0	
	하	85.8	14.2	100.0	

⑥ 건강·보건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표 4-9 건강·보건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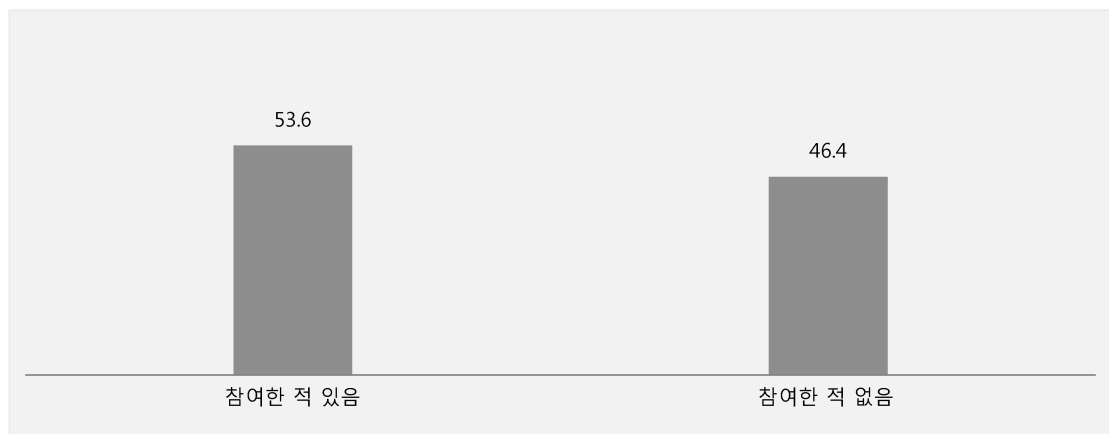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75.0	25.0	100.0	—
성별	남자	74.4	25.6	100.0	$\chi^2=2.668$ $p=0.102$
	여자	75.7	24.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9.1	20.9	100.0	$\chi^2=112.442$ $p=0.000$
	중학교	77.9	22.1	100.0	
	고등학교	69.2	30.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8.2	21.8	100.0	$\chi^2=83.262$ $p=0.000$
	중소도시	70.4	29.6	100.0	
	읍면지역	78.4	21.6	100.0	
학업성적	상	76.5	23.5	100.0	$\chi^2=15.870$ $p=0.000$
	중	75.3	24.7	100.0	
	하	72.2	27.8	100.0	
경제수준	상	77.4	22.6	100.0	$\chi^2=27.116$ $p=0.000$
	중	73.7	26.3	100.0	
	하	71.5	28.5	100.0	

전체 응답자의 3/4에 해당하는 75.0%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25.0%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이외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79.1%)이나 중학생(77.9%)이 고등학생(69.2%)보다($p < .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78.4%)과 대도시(78.2%)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70.4%)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 < .001$). 아울러 학업성적(상 76.5%, 중 75.3%, 하 72.2%)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77.4%, 중 73.7%, 하 71.5%)이 높을수록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과학정보활동

최근 1년간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53.6%)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4%는 참여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림 4-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과학정보활동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과학정보활동 영역의 참여여부를 비교한 결과(〈표 4-10〉), 남자 청소년(55.3%)이 여자 청소년(51.8%)보다($p < .001$), 학교급(초 71.9%, 중 50.8%, 고 42.5%)이 낮을수록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p < .0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60.0%), 대도시(54.3%), 중소도시(50.5%) 거주 청소년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 < .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61.1%, 중 53.9%, 하 43.4%)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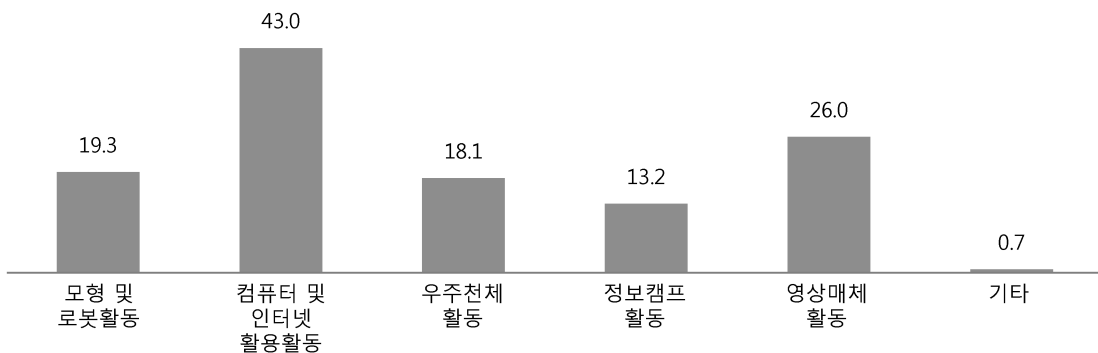
(59.5%)이 중(49.8%) 또는 하 집단(47.0%)보다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p < .001$).

표 4-10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과학정보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3.6	46.4	100.0	—
성별	남자	55.3	44.7	100.0	$\chi^2=12.273$ $p=0.000$
	여자	51.8	48.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1.9	28.1	100.0	$\chi^2=602.959$ $p=0.000$
	중학교	50.8	49.2	100.0	
	고등학교	42.5	57.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4.3	45.7	100.0	$\chi^2=43.068$ $p=0.000$
	중소도시	50.5	49.5	100.0	
	읍면지역	60.0	40.0	100.0	
학업성적	상	61.1	38.9	100.0	$\chi^2=187.816$ $p=0.000$
	중	53.9	46.1	100.0	
	하	43.4	56.6	100.0	
경제수준	상	59.5	40.5	100.0	$\chi^2=114.051$ $p=0.000$
	중	49.8	50.2	100.0	
	하	47.0	53.0	100.0	

과학정보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경험의 비율을 살펴보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43.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상매체 활동’(26.0%), ‘모형 및 로봇활동’(19.3%), ‘우주천체 활동’(18.1%), ‘정보캠프활동’(13.2%)의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과학정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①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약 20%(19.3%)에 불과하였으며, 80% 이상(80.7%)의 청소년은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1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9.3	80.7	100.0	—
성별	남자	23.7	76.3	100.0	$\chi^2=145.921$ $p=0.000$
	여자	14.4	85.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0.1	69.9	100.0	$\chi^2=376.077$ $p=0.000$
	중학교	19.0	81.0	100.0	
	고등학교	11.4	88.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0.1	79.9	100.0	$\chi^2=20.091$ $p=0.000$
	중소도시	17.4	82.6	100.0	
	읍면지역	22.1	77.9	100.0	
학업성적	상	23.5	76.5	100.0	$\chi^2=75.396$ $p=0.000$
	중	18.7	81.3	100.0	
	하	14.7	85.3	100.0	
경제수준	상	23.0	77.0	100.0	$\chi^2=77.508$ $p=0.000$
	중	17.1	82.9	100.0	
	하	14.4	85.6	10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23.7%)이 여자 청소년(14.4%)보다($p<.001$), 학교급(초 30.1%, 중 19.0%, 고 11.4%)이 낮을수록 모형 및 로봇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2.1%), 대도시(20.1%), 중소도시(17.4%) 거주 청소년의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 학업성적(상 23.5%, 중 18.7%, 하 14.7%)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23.0%, 중 17.1%, 하 14.4%)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p<.001$).

② 과학정보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3.0%의 청소년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57.0%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표 4-12>).

표 4-12 과학정보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3.0	57.0	100.0	—
성별	남자	44.2	55.8	100.0	$\chi^2=6.539$ $p=0.011$
	여자	41.7	58.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1.7	38.3	100.0	$\chi^2=639.369$ $p=0.000$
	중학교	39.9	60.1	100.0	
	고등학교	31.7	68.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3.2	56.8	100.0	$\chi^2=56.053$ $p=0.000$
	중소도시	39.9	60.1	100.0	
	읍면지역	50.8	49.2	100.0	
학업성적	상	48.8	51.2	100.0	$\chi^2=128.566$ $p=0.000$
	중	43.6	56.4	100.0	
	하	34.3	65.7	100.0	
경제수준	상	48.1	51.9	100.0	$\chi^2=87.916$ $p=0.000$
	중	39.8	60.2	100.0	
	하	37.0	63.0	100.0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44.2%)이 여자 청소년(41.7%)보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p<.05$),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61.7%), 중학생(39.9%), 고등학생(31.7%)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50.8%), 대도시(43.2%), 중소도시(39.9%) 순으로($p<.001$),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상 48.8%, 중 43.6%, 하 34.3%)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48.1%)의 청소년이 중 집단(39.8%)이나 하 집단(37.0%)에 속하는 청소년에 비해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③ 과학정보활동: 우주천체활동

최근 1년간 우주천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18.1%), 상당수(81.9%)의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19.3%)이 여자 청소년(16.7%)보다($p<.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28.7%)이 중학생(15.8%) 또는 고등학생(12.3%)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p<.001$). 그리고 대도시와 읍면지역(19.6%)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15.9%)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상 24.0%, 중 17.2%, 하 12.0%)이 높을수록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22.1%)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간(15.8%) 혹은 낮은(12.3%)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표 4-13 과학정보활동: 우주천체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8.1	81.9	100.0	—
성별	남자	19.3	80.7	100.0	$\chi^2=11.967$ $p=0.001$
	여자	16.7	83.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8.7	71.3	100.0	$\chi^2=324.542$ $p=0.000$
	중학교	15.8	84.2	100.0	
	고등학교	12.3	87.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9.6	80.4	100.0	$\chi^2=22.786$ $p=0.000$
	중소도시	15.9	84.1	100.0	
	읍면지역	19.6	80.4	100.0	
학업성적	상	24.0	76.0	100.0	$\chi^2=149.894$ $p=0.000$
	중	17.2	82.8	100.0	
	하	12.0	88.0	100.0	
경제수준	상	22.1	77.9	100.0	$\chi^2=98.851$ $p=0.000$
	중	15.8	84.2	100.0	
	하	12.3	87.7	100.0	

④ 과학정보활동: 정보캠프활동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보캠프활동에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3.2%에 그쳐, 대부분(86.8%)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4-14).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 청소년(14.5%)이 여자 청소년(11.9%)보다($p < .001$), 학교급(초 18.2%, 중 12.9%, 고 9.9%)이 낮을수록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거주 지역규모의 경우, 읍면지역(17.0%), 대도시(13.7%), 중소도시(11.4%)의 순으로($p < .001$), 학업성적(상 14.9%, 중 13.4%, 하 10.8%)이 높은 청소년일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15.7%, 중 11.5%, 하 10.6%)이 높을수록 정보캠프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14 과학정보활동: 정보캠프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3.2	86.8	100.0	—
성별	남자	14.5	85.5	100.0	$\chi^2=14.921$ $p=0.000$
	여자	11.9	88.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8.2	81.8	100.0	$\chi^2=101.054$ $p=0.000$
	중학교	12.9	87.1	100.0	
	고등학교	9.9	90.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3.7	86.3	100.0	$\chi^2=33.186$ $p=0.000$
	중소도시	11.4	88.6	100.0	
	읍면지역	17.0	83.0	100.0	
학업성적	상	14.9	85.1	100.0	$\chi^2=22.268$ $p=0.000$
	중	13.4	86.6	100.0	
	하	10.8	89.2	100.0	
경제수준	상	15.7	84.3	100.0	$\chi^2=44.997$ $p=0.000$
	중	11.5	88.5	100.0	
	하	10.6	89.4	100.0	

⑤ 과학정보활동: 영상매체활동

표 4-15 과학정보활동: 영상매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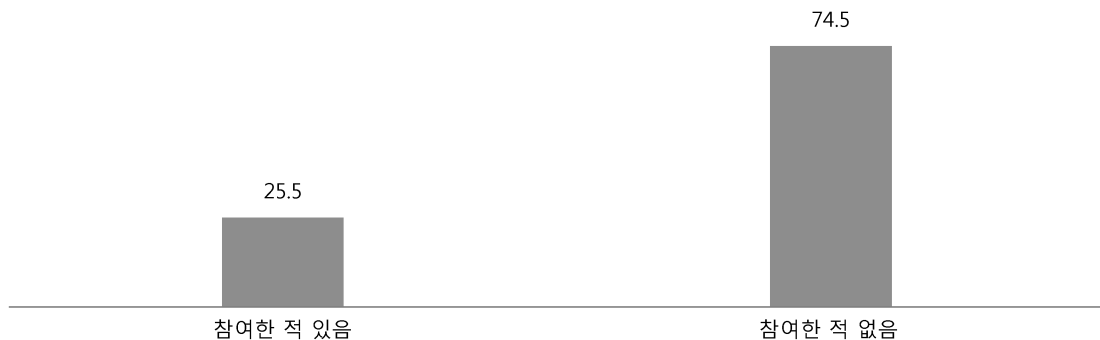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6.0	74.0	100.0	—
성별	남자	26.5	73.5	100.0	$\chi^2=1.394$ $p=0.238$
	여자	25.5	74.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9.8	70.2	100.0	$\chi^2=48.763$ $p=0.000$
	중학교	26.7	73.3	100.0	
	고등학교	22.5	77.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5.9	74.1	100.0	$\chi^2=37.724$ $p=0.000$
	중소도시	24.0	76.0	100.0	
	읍면지역	31.9	68.1	100.0	
학업성적	상	30.0	70.0	100.0	$\chi^2=58.287$ $p=0.000$
	중	25.8	74.2	100.0	
	하	21.3	78.7	100.0	
경제수준	상	29.5	70.5	100.0	$\chi^2=51.163$ $p=0.000$
	중	23.8	76.2	100.0	
	하	22.1	77.9	100.0	

영상매체활동은 전체 청소년의 1/4 정도(26.0%)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나머지 3/4 정도(74.0%)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5〉).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영상매체활동의 참여여부를 비교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학교급(초 29.8%, 중 26.7%, 고 22.5%)이 낮을수록($p < .001$), 읍면지역(31.9%)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25.9%)나 중소도시(24.0%)의 청소년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아울러 학업성적(상 30.0%, 중 25.8%, 하 21.3%)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29.5%)이 중(23.8%) 또는 하 집단(22.1%)보다 영상매체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p < .001$).

(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교류활동

최근 1년간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25.5%는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보다 많은 3/4 정도(74.5%)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4-7】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교류활동

구체적으로 〈표 4-16〉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27.5%)이 남자 청소년(23.7%)에 비해 참여경험이 더 많았고($p < .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0.1%)이 중학생(22.1%)이나 고등학생(17.8%)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했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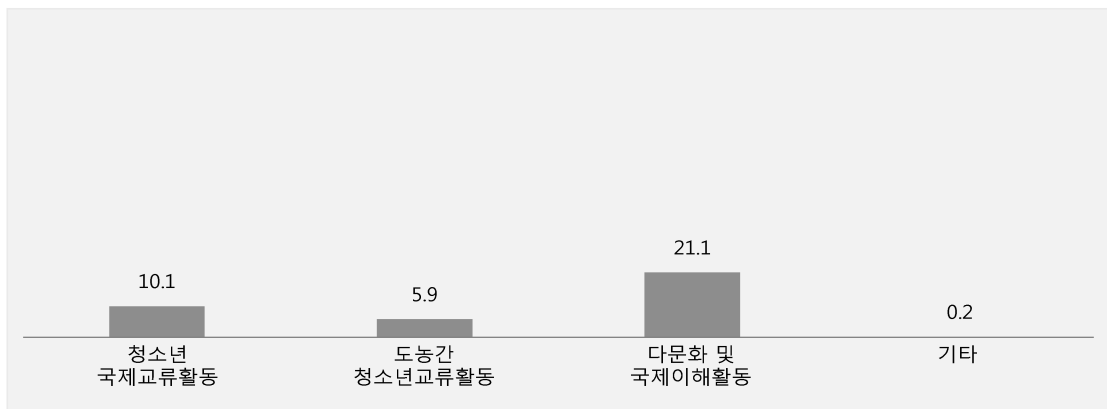
표 4-16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교류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5.5	74.5	100.0	—
성별	남자	23.7	76.3	100.0	$\chi^2=19.952$ $p=0.000$
	여자	27.5	72.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0.1	59.9	100.0	$\chi^2=475.181$ $p=0.000$
	중학교	22.1	77.9	100.0	
	고등학교	17.8	82.2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6.0	74.0	100.0	$\chi^2=9.832$ $p=0.007$
	중소도시	24.1	75.9	100.0	
	읍면지역	27.9	72.1	100.0	
학업성적	상	29.8	70.2	100.0	$\chi^2=81.067$ $p=0.000$
	중	25.7	74.3	100.0	
	하	19.6	80.4	100.0	
경제수준	상	29.3	70.7	100.0	$\chi^2=69.953$ $p=0.000$
	중	23.6	76.4	100.0	
	하	19.6	80.4	100.0	

지역규모의 경우에는 읍면지역(27.9%), 대도시(26.0%), 중소도시(24.1%)에 사는 청소년의 순으로 ($p<.01$), 학업성적(상 29.8%, 중 25.7%, 하 19.6%)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29.3%, 중 23.6%, 하 19.6%)이 높을수록 참여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세부 활동별로 교류활동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에 대한 참여가 21.1%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10.1%,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은 5.9%의 청소년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8】 교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①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전체 청소년의 약 10%(10.1%)가 참여했으며, 90% 가량(89.9%)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학교급, 지역규모,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급(초 11.6%, 중 10.0%, 고 9.2%)이 낮을수록($p<.01$),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13.0%), 대도시(11.0%), 중소도시(8.2%)의 순으로 국제교류활동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상 집단(11.2%) 청소년이 하 집단(9.4%)과 중 집단(9.3%)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5$).

표 4-17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0.1	89.9	100.0	—
성별	남자	10.1	89.9	100.0	$\chi^2=0.005$ $p=0.945$
	여자	10.2	89.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1.6	88.4	100.0	$\chi^2=10.833$ $p=0.004$
	중학교	10.0	90.0	100.0	
	고등학교	9.2	90.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1.0	89.0	100.0	$\chi^2=35.235$ $p=0.000$
	중소도시	8.2	91.8	100.0	
	읍면지역	13.0	87.0	100.0	
학업성적	상	10.4	89.6	100.0	$\chi^2=5.473$ $p=0.065$
	중	10.6	89.4	100.0	
	하	8.9	91.1	100.0	
경제수준	상	11.2	88.8	100.0	$\chi^2=9.277$ $p=0.010$
	중	9.3	90.7	100.0	
	하	9.4	90.6	100.0	

② 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5.9%의 소수 청소년만이 참여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94.1%의 대개의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4-18〉).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6.5%)이 여자 청소년(5.3%)보다($p<.01$), 학교급(초 9.4%, 중 6.2%, 고 3.1%)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6.7%) 또는 읍면지역(6.5%)에 사는 청소년이 중소도시(4.9%)의 청소년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그리고 학업성적(상 6.5%, 중 6.0%, 하 4.8%)이 높을수록($p<.05$), 가정의 경제수준(상 7.1%, 중 5.3%, 하 3.9%)이 높을수록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p<.001$).

표 4-18 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9	94.1	100.0	—
성별	남자	6.5	93.5	100.0	$\chi^2=7.817$ $p=0.005$
	여자	5.3	94.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4	90.6	100.0	$\chi^2=119.203$ $p=0.000$
	중학교	6.2	93.8	100.0	
	고등학교	3.1	96.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7	93.3	100.0	$\chi^2=14.851$ $p=0.001$
	중소도시	4.9	95.1	100.0	
	읍면지역	6.5	93.5	100.0	
학업성적	상	6.5	93.5	100.0	$\chi^2=7.468$ $p=0.024$
	중	6.0	94.0	100.0	
	하	4.8	95.2	100.0	
경제수준	상	7.1	92.9	100.0	$\chi^2=25.458$ $p=0.000$
	중	5.3	94.7	100.0	
	하	3.9	96.1	100.0	

③ 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전체 청소년 가운데 20% 정도(21.1%)는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약 80%(78.9%)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9).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23.0%)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19.4%)보다 높았으며($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36.3%), 중학생(18.3%), 고등학생(12.4%)의 순으로 더 많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또 학업성적(상 25.7%, 중 20.9%, 하 15.6%)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25.0%, 중 19.4%, 하 14.4%)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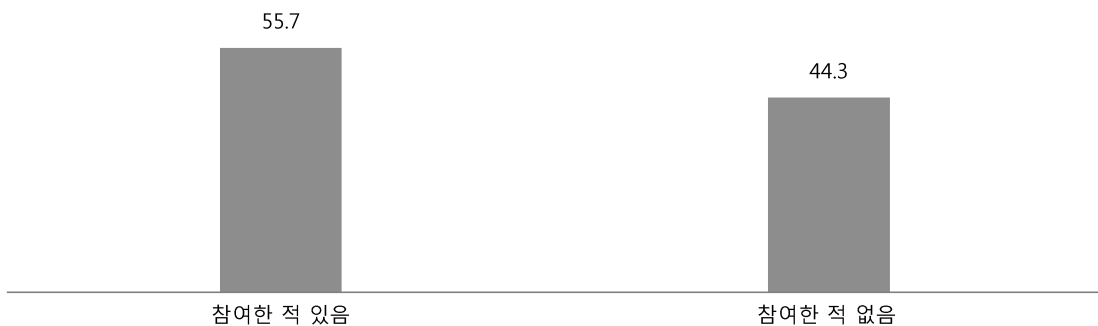
표 4-19 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1.1	78.9	100.0	—
성별	남자	19.4	80.6	100.0	$\chi^2=20.636$ $p=0.000$
	여자	23.0	77.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6.3	63.7	100.0	$\chi^2=601.820$ $p=0.000$
	중학교	18.3	81.7	100.0	
	고등학교	12.4	87.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1.4	78.6	100.0	$\chi^2=2.654$ $p=0.265$
	중소도시	20.4	79.6	100.0	
	읍면지역	22.3	77.7	100.0	
학업성적	상	25.7	74.3	100.0	$\chi^2=89.321$ $p=0.000$
	중	20.9	79.1	100.0	
	하	15.6	84.4	100.0	
경제수준	상	25.0	75.0	100.0	$\chi^2=87.590$ $p=0.000$
	중	19.4	80.6	100.0	
	하	14.4	85.6	100.0	

(4)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모험개척활동

청소년들에게 모험개척활동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참여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절반 이상(55.7%)의 청소년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4.3%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림 4-9】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모험개척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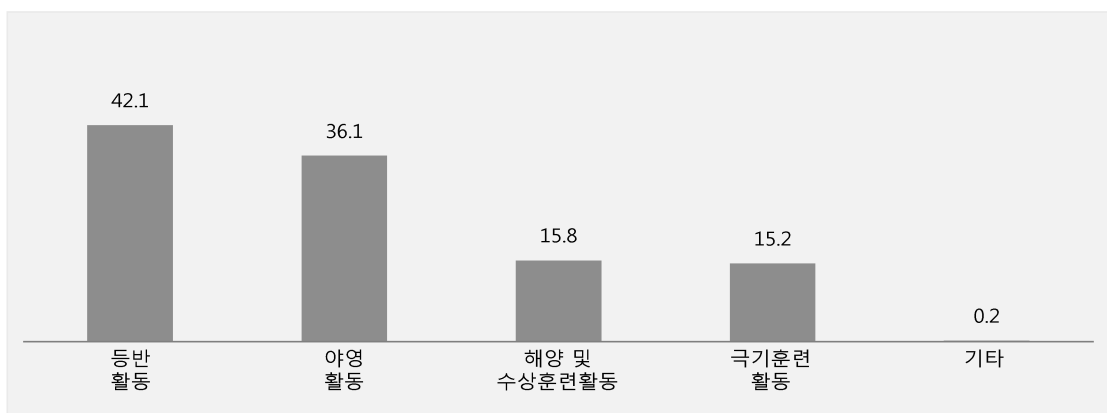
일반적 특성별로 참여여부를 비교한 결과, 성별 이외의 특성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초 67.4%, 중 54.5%, 고 47.9%)이 낮을수록 참여경험이 더 많았으며($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63.7%)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54.9%)나 대도시(53.6%) 거주 청소년보다 비교적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아울러 학업성적(상 61.7%, 중 55.4%, 하 48.4%)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61.7%, 중 52.6%, 하 46.6%)이 높을수록 모험개척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p < .001$).

표 4-20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모험개척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5.7	44.3	100.0	—
성별	남자	56.4	43.6	100.0	$\chi^2=2.562$ $p=0.109$
	여자	54.8	45.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7.4	32.6	100.0	$\chi^2=263.453$ $p=0.000$
	중학교	54.5	45.5	100.0	
	고등학교	47.9	52.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3.6	46.4	100.0	$\chi^2=50.137$ $p=0.000$
	중소도시	54.9	45.1	100.0	
	읍면지역	63.7	36.3	100.0	
학업성적	상	61.7	38.3	100.0	$\chi^2=106.459$ $p=0.000$
	중	55.4	44.6	100.0	
	하	48.4	51.6	100.0	
경제수준	상	61.7	38.3	100.0	$\chi^2=133.639$ $p=0.000$
	중	52.6	47.4	100.0	
	하	46.6	53.4	100.0	



【그림 4-10】 모험개척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보다 자세히 모험개척활동의 세부 활동별로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4-10]), 청소년들이 대체로 많이 참여한 활동은 ‘등반활동’(42.1%)과 ‘야영활동’(36.1%)이며,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15.8%), ‘극기훈련활동’(15.2%)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모험개척활동: 등반활동

전체 응답자의 약 40%(42.1%)는 등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57.9%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43.8%)이 여자 청소년(40.2%)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52.6%)이 중(38.4%)·고등학교(37.6%)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읍면지역(44.8%), 대도시(42.3%), 중소도시(40.8%)의 순으로($p<.05$), 학업성적(상 48.3%, 중 41.5%, 하 35.0%)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47.2%) 청소년이 중(38.7%) 혹은 하 집단(36.5%)의 청소년보다 등반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001$).

표 4-21 모험개척활동: 등반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2.1	57.9	100.0	—
성별	남자	43.8	56.2	100.0	$\chi^2=14.094$ $p=0.000$
	여자	40.2	59.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2.6	47.4	100.0	$\chi^2=187.644$ $p=0.000$
	중학교	38.4	61.6	100.0	
	고등학교	37.6	62.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2.3	57.7	100.0	$\chi^2=7.597$ $p=0.022$
	중소도시	40.8	59.2	100.0	
	읍면지역	44.8	55.2	100.0	
학업성적	상	48.3	51.7	100.0	$\chi^2=108.836$ $p=0.000$
	중	41.5	58.5	100.0	
	하	35.0	65.0	100.0	
경제수준	상	47.2	52.8	100.0	$\chi^2=89.705$ $p=0.000$
	중	38.7	61.3	100.0	
	하	36.5	63.5	100.0	

② 모험개척활동: 야영활동

전체 응답자의 1/3이 조금 넘는 36.1%의 청소년은 야영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밖의 2/3 정도(63.9%)의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의 차이를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즉, 학교급(초 46.6%, 중 37.8%, 고 26.6%)이 낮을수록($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46.5%)의 청소년이 중소도시(36.4%)나 대도시(32.2%) 청소년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아울러 학업성적(상 40.7%, 중 36.2%, 하 30.2%)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42.0%, 중 33.2%, 하 26.7%)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표 4-22 모험개척활동: 야영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6.1	63.9	100.0	—
성별	남자	35.7	64.3	100.0	$\chi^2=0.863$ $p=0.353$
	여자	36.6	63.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6.6	53.4	100.0	$\chi^2=297.104$ $p=0.000$
	중학교	37.8	62.2	100.0	
	고등학교	26.6	73.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32.2	67.8	100.0	$\chi^2=105.120$ $p=0.000$
	중소도시	36.4	63.6	100.0	
	읍면지역	46.5	53.5	100.0	
학업성적	상	40.7	59.3	100.0	$\chi^2=70.965$ $p=0.000$
	중	36.2	63.8	100.0	
	하	30.2	69.8	100.0	
경제수준	상	42.0	58.0	100.0	$\chi^2=140.005$ $p=0.000$
	중	33.2	66.8	100.0	
	하	26.7	73.3	100.0	

③ 모험개척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은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5.8%로 다소 낮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84.2%의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23).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17.3%)의 참여율이 여자 청소년(14.2%)보다 높았고($p < .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4.4%)가 중학교(14.7%)나 고등학교(10.3%)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대도시 및 읍면지역(16.9%) 거주 청소년의 경우, 중소도시(14.2%) 청소년에 비해 참여경험이 많았으며($p < .01$), 학업성적(상 18.7%, 중 15.8%, 하 11.9%)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19.7%, 중 13.2%, 하 11.8%)이 높을수록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 < .001$).

표 4-23 모험개척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5.8	84.2	100.0	—
성별	남자	17.3	82.7	100.0	$\chi^2=18.521$ $p=0.000$
	여자	14.2	85.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4.4	75.6	100.0	$\chi^2=254.367$ $p=0.000$
	중학교	14.7	85.3	100.0	
	고등학교	10.3	89.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6.9	83.1	100.0	$\chi^2=13.763$ $p=0.001$
	중소도시	14.2	85.8	100.0	
	읍면지역	16.9	83.1	100.0	
학업성적	상	18.7	81.3	100.0	$\chi^2=52.928$ $p=0.000$
	중	15.8	84.2	100.0	
	하	11.9	88.1	100.0	
경제수준	상	19.7	80.3	100.0	$\chi^2=91.770$ $p=0.000$
	중	13.2	86.8	100.0	
	하	11.8	88.2	100.0	

④ 모험개척활동: 극기훈련활동

극기훈련활동의 참여율을 보면, 15.2%의 청소년이 참여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참여 청소년의 5배가 넘는 84.8%의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4-24〉). 일반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초 21.5%, 중 15.1%, 고 10.5%)이 낮을수록($p<.001$), 읍면지역(19.1%) 청소년이 대도시(14.7%) 및 중소도시(14.2%)의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상 16.4%, 중 15.3%, 하 12.9%)이 높을수록($p<.01$), 가정의 경제수준(상 17.8%, 중 13.8%, 하 10.9%)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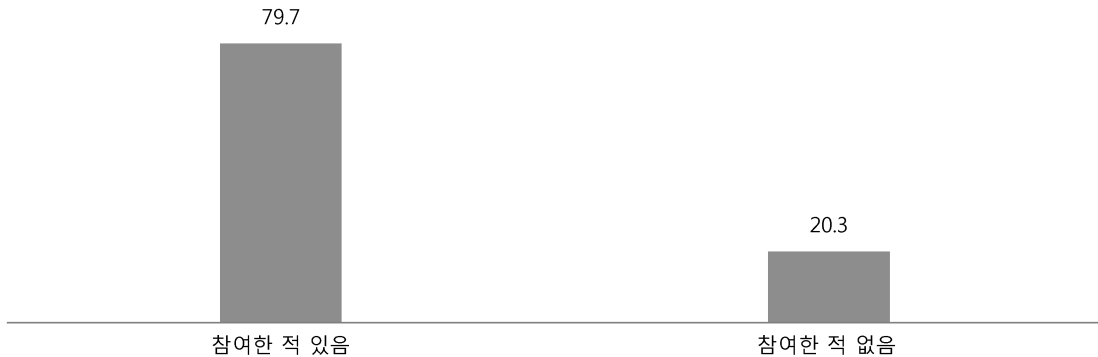
표 4-24 모험개척활동: 극기훈련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5.2	84.8	100.0	—
성별	남자	15.8	84.2	100.0	$\chi^2=3.766$ $p=0.052$
	여자	14.5	85.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1.5	78.5	100.0	$\chi^2=158.846$ $p=0.000$
	중학교	15.1	84.9	100.0	
	고등학교	10.5	89.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4.7	85.3	100.0	$\chi^2=22.464$ $p=0.000$
	중소도시	14.2	85.8	100.0	
	읍면지역	19.1	80.9	100.0	
학업성적	상	16.4	83.6	100.0	$\chi^2=14.563$ $p=0.001$
	중	15.3	84.7	100.0	
	하	12.9	87.1	100.0	
경제수준	상	17.8	82.2	100.0	$\chi^2=52.679$ $p=0.000$
	중	13.8	86.2	100.0	
	하	10.9	89.1	100.0	

(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문화예술활동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3/4 이상(79.7%)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3%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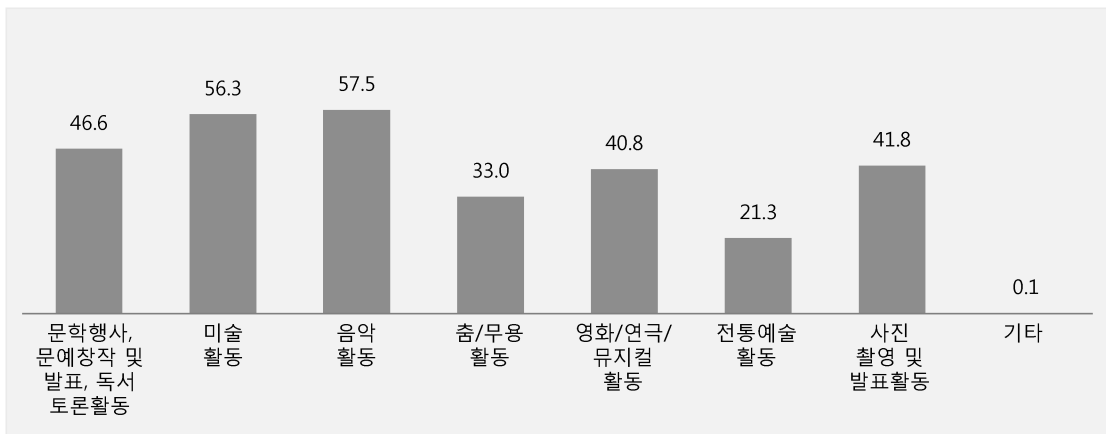
【그림 4-1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문화예술활동

〈표 4-25〉와 같이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85.6%)이 남자 청소년(74.3%)보다 참여경험이 많았으며($p < .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87.2%)이 중(77.8%)·고등학생(75.7%)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 < .0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83.2%), 대도시(80.4%), 중소도시(77.6%)의 순으로($p < .001$), 학업성적(상 85.3%, 중 79.3%, 하 73.0%)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 집단(83.1%)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 집단(77.2%)이나 하 집단(76.5%)의 청소년보다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문화예술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79.7	20.3	100.0	—
성별	남자	74.3	25.7	100.0	$\chi^2=206.322$ $p=0.000$
	여자	85.6	14.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7.2	12.8	100.0	$\chi^2=150.029$ $p=0.000$
	중학교	77.8	22.2	100.0	
	고등학교	75.7	24.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80.4	19.6	100.0	$\chi^2=25.561$ $p=0.000$
	중소도시	77.6	22.4	100.0	
	읍면지역	83.2	16.8	100.0	
학업성적	상	85.3	14.7	100.0	$\chi^2=138.170$ $p=0.000$
	중	79.3	20.7	100.0	
	하	73.0	27.0	100.0	
경제수준	상	83.1	16.9	100.0	$\chi^2=59.682$ $p=0.000$
	중	77.2	22.8	100.0	
	하	76.5	23.5	100.0	



【그림 4-12】 문화예술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세부 활동은 ‘음악활동’(57.5%)과 ‘미술활동’(56.3%)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그 다음으로는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46.6%),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41.8%), ‘영화·연극·뮤지컬활동’(40.8%), ‘춤·무용활동’(33.0%), ‘전통예술활동’(21.3%)의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① 문화예술활동: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은 46.6%이고,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은 53.4%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 이외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52.0%)이 남자 청소년(41.5%)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p < .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56.2%)가 고등학교(43.9%)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56.7%, 중 44.3%, 하 37.3%)이 높을수록 ($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52.2%)의 청소년이 하 집단(42.4%) 또는 중 집단(42.2%)에 속하는 청소년에 비해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6 문화예술활동: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6.6	53.4	100.0	—
성별	남자	41.5	58.5	100.0	$\chi^2=115.364$ $p=0.000$
	여자	52.0	48.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6.2	43.8	100.0	$\chi^2=154.539$ $p=0.000$
	중학교	41.7	58.3	100.0	
	고등학교	43.9	56.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6.6	53.4	100.0	$\chi^2=4.919$ $p=0.085$
	중소도시	45.7	54.3	100.0	
	읍면지역	48.9	51.1	100.0	
학업성적	상	56.7	43.3	100.0	$\chi^2=239.002$ $p=0.000$
	중	44.3	55.7	100.0	
	하	37.3	62.7	100.0	
경제수준	상	52.2	47.8	100.0	$\chi^2=102.466$ $p=0.000$
	중	42.2	57.8	100.0	
	하	42.4	57.6	100.0	

② 문화예술활동: 미술활동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미술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의 43.7%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62.6%)이 남자 청소년(50.5%)보다 ($p<.001$), 학교급(초 76.0%, 중 56.6%, 고 41.1%)이 낮을수록($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60.8%), 대도시(57.1%), 중소도시(53.7%)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p<.001$). 또한 학업성적(상 61.6%, 중 57.2%, 하 48.1%)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62.1%, 중 53.5%, 하 46.8%)이 높을수록 미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27 문화예술활동: 미술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6.3	43.7	100.0	—
성별	남자	50.5	49.5	100.0	$\chi^2=155.304$ $p=0.000$
	여자	62.6	37.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6.0	24.0	100.0	$\chi^2=827.943$ $p=0.000$
	중학교	56.6	43.4	100.0	
	고등학교	41.1	58.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7.1	42.9	100.0	$\chi^2=26.375$ $p=0.000$
	중소도시	53.7	46.3	100.0	
	읍면지역	60.8	39.2	100.0	
학업성적	상	61.6	38.4	100.0	$\chi^2=112.410$ $p=0.000$
	중	57.2	42.8	100.0	
	하	48.1	51.9	100.0	
경제수준	상	62.1	37.9	100.0	$\chi^2=128.446$ $p=0.000$
	중	53.5	46.5	100.0	
	하	46.8	53.2	100.0	

③ 문화예술활동: 음악활동

음악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살펴본 결과, 과반수 이상(57.5%)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42.5%의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4-28〉). 특히, 여자 청소년(63.1%)이 남자 청소년(52.4%)보다($p<.001$), 학교급(초 71.7%, 중 56.9%, 고 47.4%)이 낮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읍면지역(65.0%), 대도시(58.1%), 중소도시(54.1%)의 순으로($p<.001$), 학업성적(상 63.7%, 중 57.8%, 하 49.2%)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62.7%) 청소년이 중 집단(54.3%) 또는 하 집단(51.3%)의 청소년보다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표 4-28 문화예술활동: 음악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7.5	42.5	100.0	—
성별	남자	52.4	47.6	100.0	$\chi^2=124.458$ $p=0.000$
	여자	63.1	36.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1.7	28.3	100.0	$\chi^2=405.906$ $p=0.000$
	중학교	56.9	43.1	100.0	
	고등학교	47.4	52.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8.1	41.9	100.0	$\chi^2=57.735$ $p=0.000$
	중소도시	54.1	45.9	100.0	
	읍면지역	65.0	35.0	100.0	
학업성적	상	63.7	36.3	100.0	$\chi^2=128.144$ $p=0.000$
	중	57.8	42.2	100.0	
	하	49.2	50.8	100.0	
경제수준	상	62.7	37.3	100.0	$\chi^2=92.581$ $p=0.000$
	중	54.3	45.7	100.0	
	하	51.3	48.7	100.0	

④ 문화예술활동: 춤·무용활동

춤·무용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33.0%)였으며, 2/3에 해당하는 67.0%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29).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43.1%)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23.8%)보다 높았으며($p<.001$), 학교급(초 47.9%, 중 30.0%, 고 24.6%)이 낮을수록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6.6%), 대도시(34.8%), 중소도시(29.8%)에 사는 청소년 순으로 참여경험이 많았으며($p<.001$), 학업성적(상 37.6%, 중 32.1%, 하 29.0%)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37.0%, 중 31.1%, 하 26.3%)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표 4-29 문화예술활동: 춤·무용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3.0	67.0	100.0	—
성별	남자	23.8	76.2	100.0	$\chi^2=440.478$ $p=0.000$
	여자	43.1	56.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7.9	52.1	100.0	$\chi^2=435.427$ $p=0.000$
	중학교	30.0	70.0	100.0	
	고등학교	24.6	75.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34.8	65.2	100.0	$\chi^2=36.500$ $p=0.000$
	중소도시	29.8	70.2	100.0	
	읍면지역	36.6	63.4	100.0	
학업성적	상	37.6	62.4	100.0	$\chi^2=53.073$ $p=0.000$
	중	32.1	67.9	100.0	
	하	29.0	71.0	100.0	
경제수준	상	37.0	63.0	100.0	$\chi^2=69.406$ $p=0.000$
	중	31.1	68.9	100.0	
	하	26.3	73.7	100.0	

⑤ 문화예술활동: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참여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40.8%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9.2%로 나타났다(〈표 4-30〉).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44.4%)이 남자 청소년(37.5%)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43.7%), 고등학교(41.6%), 중학교(37.6%)의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44.2%), 읍면지역(41.9%), 중소도시(36.8%) 순으로($p<.001$),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상 44.8%, 중 40.5%, 하 36.5%)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44.0%), 하 집단(40.3%), 중 집단(37.7%) 순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4-30 문화예술활동: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0.8	59.2	100.0	—
성별	남자	37.5	62.5	100.0	$\chi^2=50.884$ $p=0.000$
	여자	44.4	55.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3.7	56.3	100.0	$\chi^2=27.387$ $p=0.000$
	중학교	37.6	62.4	100.0	
	고등학교	41.6	58.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4.2	55.8	100.0	$\chi^2=52.129$ $p=0.000$
	중소도시	36.8	63.2	100.0	
	읍면지역	41.9	58.1	100.0	
학업성적	상	44.8	55.2	100.0	$\chi^2=42.929$ $p=0.000$
	중	40.5	59.5	100.0	
	하	36.5	63.5	100.0	
경제수준	상	44.0	56.0	100.0	$\chi^2=36.986$ $p=0.000$
	중	37.7	62.3	100.0	
	하	40.3	59.7	100.0	

⑥ 문화예술활동: 전통예술활동

표 4-31 문화예술활동: 전통예술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1.3	78.7	100.0	—
성별	남자	19.4	80.6	100.0	$\chi^2=25.345$ $p=0.000$
	여자	23.4	76.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7.5	62.5	100.0	$\chi^2=656.395$ $p=0.000$
	중학교	17.5	82.5	100.0	
	고등학교	12.8	87.2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2.8	77.2	100.0	$\chi^2=17.053$ $p=0.000$
	중소도시	19.4	80.6	100.0	
	읍면지역	22.4	77.6	100.0	
학업성적	상	26.0	74.0	100.0	$\chi^2=103.418$ $p=0.000$
	중	21.7	78.3	100.0	
	하	15.2	84.8	100.0	
경제수준	상	25.7	74.3	100.0	$\chi^2=88.833$ $p=0.000$
	중	18.3	81.7	100.0	
	하	17.3	82.7	100.0	

전통예술활동의 참여율은 전체 응답자의 20%를 웃도는 수준(21.3%)이었으며, 80% 가량(78.7%)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1〉).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23.4%)이 남자 청소년(19.4%)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37.5%), 중학생(17.5%), 고등학생(12.8%)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대도시(22.8%)와 읍면지역(22.4%)의 청소년이 중소도시(19.4%)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상 26.0%, 중 21.7%, 하 15.2%)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전통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25.7%)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중(18.3%) 또는 하 집단(17.3%)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⑦ 문화예술활동: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전체 청소년 가운데 약 40%(41.8%)가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으며, 60% 정도(58.2%)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표 4-32 문화예술활동: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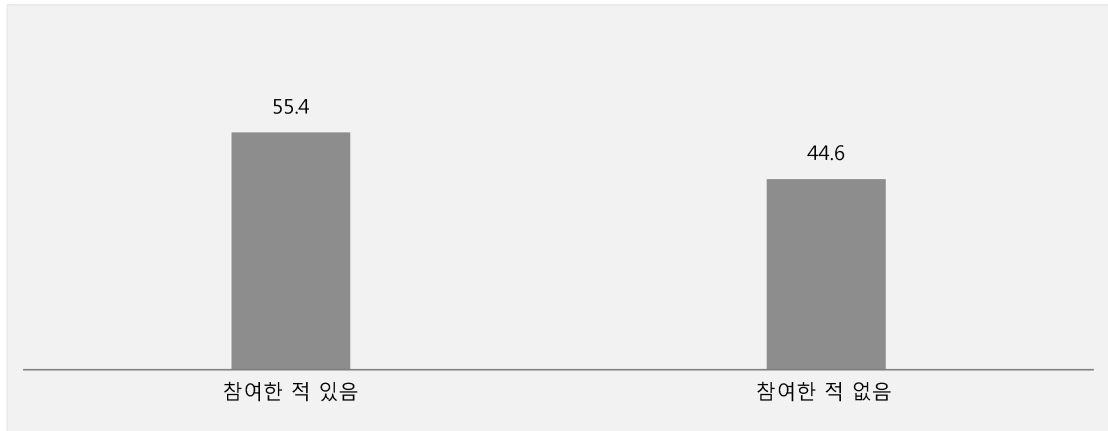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1.8	58.2	100.0	—
성별	남자	36.4	63.6	100.0	$\chi^2=136.765$ $p=0.000$
	여자	47.7	52.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3.4	46.6	100.0	$\chi^2=237.159$ $p=0.000$
	중학교	39.4	60.6	100.0	
	고등학교	35.3	64.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2.0	58.0	100.0	$\chi^2=10.567$ $p=0.005$
	중소도시	40.4	59.6	100.0	
	읍면지역	45.1	54.9	100.0	
학업성적	상	49.1	50.9	100.0	$\chi^2=155.061$ $p=0.000$
	중	41.5	58.5	100.0	
	하	33.1	66.9	100.0	
경제수준	상	46.7	53.3	100.0	$\chi^2=82.381$ $p=0.000$
	중	38.7	61.3	100.0	
	하	36.0	64.0	100.0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 청소년(47.7%)이 남자 청소년(36.4%)보다($p<.001$), 초등학생(53.4%)이 중(39.4%)·고등학생(35.3%)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45.1%), 대도시(42.0%), 중소도시(40.4%) 거주 청소년의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그리고 학업성적(상 49.1%, 중 41.5%, 하 33.1%)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46.7%), 중간(38.7%) 혹은 낮은 수준(36.0%)의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6)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봉사활동

최근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55.4%)의 청소년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6%의 청소년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봉사활동

구체적으로 <표 4-33>과 같이, 여자 청소년(60.3%)이 남자 청소년(51.0%)보다($p<.001$), 학교급(고 57.4%, 중 55.2%, 초 53.1%)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거주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58.3%)이 대도시(55.3%)나 중소도시(54.5%)보다($p<.05$), 학업성적(상 59.1%, 중 55.3%, 하 50.5%)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59.0%)이 낮은(53.2%) 혹은 중간 집단(5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표 4-33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봉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5.4	44.6	100.0	—
성별	남자	51.0	49.0	100.0	$\chi^2=92.802$ $p=0.000$
	여자	60.3	39.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3.1	46.9	100.0	$\chi^2=12.793$ $p=0.002$
	중학교	55.2	44.8	100.0	
	고등학교	57.4	42.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5.3	44.7	100.0	$\chi^2=6.782$ $p=0.034$
	중소도시	54.5	45.5	100.0	
	읍면지역	58.3	41.7	100.0	
학업성적	상	59.1	40.9	100.0	$\chi^2=44.644$ $p=0.000$
	중	55.3	44.7	100.0	
	하	50.5	49.5	100.0	
경제수준	상	59.0	41.0	100.0	$\chi^2=41.682$ $p=0.000$
	중	52.5	47.5	100.0	
	하	53.2	46.8	100.0	

봉사활동의 세부 활동별로 참여경험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일손돕기활동’이었으며, 36.0%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캠페인활동’(23.9%), ‘돌봄 및 지도활동’(19.2%), ‘재능기부활동’(16.8%), ‘자선·구호활동’(15.7%), ‘위문활동’(10.9%)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4】 봉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①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36.0%)가 일손돕기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2/3 정도(64.0%)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 이외의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38.3%)의 참여율이 남자 청소년(34.0%)보다 높았으며($p < .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38.2%)과 중학생(37.9%)이 초등학생(30.9%)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역규모별은 읍면지역(43.8%)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35.4%) 또는 중소도시(33.8%) 거주 청소년보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38.2%), 중 집단(34.7%), 하 집단(33.1%)의 순으로 일손돕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표 4-34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6.0	64.0	100.0	—
성별	남자	34.0	66.0	100.0	$\chi^2=21.317$ $p=0.000$
	여자	38.3	61.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0.9	69.1	100.0	$\chi^2=47.716$ $p=0.000$
	중학교	37.9	62.1	100.0	
	고등학교	38.2	61.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35.4	64.6	100.0	$\chi^2=50.795$ $p=0.000$
	중소도시	33.8	66.2	100.0	
	읍면지역	43.8	56.2	100.0	
학업성적	상	36.1	63.9	100.0	$\chi^2=4.121$ $p=0.127$
	중	36.6	63.4	100.0	
	하	34.3	65.7	100.0	
경제수준	상	38.2	61.8	100.0	$\chi^2=17.953$ $p=0.000$
	중	34.7	65.3	100.0	
	하	33.1	66.9	100.0	

② 봉사활동: 위문활동

위문활동은 약 10%(10.9%)의 청소년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대다수(89.1%)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35〉).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3.3%)이 고등학교(10.0%)이나 중학교(9.9%)보다($p < .0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13.4%), 대도시(11.5%), 중소도시(9.4%)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또한 학업성적(상 12.9%, 중 10.3%, 하 9.2%)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12.8%, 중 9.8%, 하 8.4%)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표 4-35 봉사활동: 위문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0.9	89.1	100.0	—
성별	남자	10.5	89.5	100.0	$\chi^2=2.155$ $p=0.142$
	여자	11.4	88.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3.3	86.7	100.0	$\chi^2=25.135$ $p=0.000$
	중학교	9.9	90.1	100.0	
	고등학교	10.0	90.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1.5	88.5	100.0	$\chi^2=22.044$ $p=0.000$
	중소도시	9.4	90.6	100.0	
	읍면지역	13.4	86.6	100.0	
학업성적	상	12.9	87.1	100.0	$\chi^2=24.275$ $p=0.000$
	중	10.3	89.7	100.0	
	하	9.2	90.8	100.0	
경제수준	상	12.8	87.2	100.0	$\chi^2=32.850$ $p=0.000$
	중	9.8	90.2	100.0	
	하	8.4	91.6	100.0	

③ 봉사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율은 20% 정도(19.2%)이며, 80.8%의 청소년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36〉).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22.4%)이 남자 청소년(16.3%)보다 ($p < .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23.7%)이 중학생(17.7%) 또는 초등학생(15.2%)보다 상대적으로 돌봄 및 지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1.9%), 대도시(19.8%), 중소도시(17.6%) 거주 청소년의 순으로($p < .001$),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상 20.8%, 중 18.8%, 하 17.8%)이 높을수록($p < .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21.2%), 하 집단(18.9%), 중 집단(17.3%)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 < .001$).

표 4-36 **봉사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9.2	80.8	100.0	—
성별	남자	16.3	83.7	100.0	$\chi^2=62.361$ $p=0.000$
	여자	22.4	77.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5.2	84.8	100.0	$\chi^2=87.070$ $p=0.000$
	중학교	17.7	82.3	100.0	
	고등학교	23.7	76.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9.8	80.2	100.0	$\chi^2=15.341$ $p=0.000$
	중소도시	17.6	82.4	100.0	
	읍면지역	21.9	78.1	100.0	
학업성적	상	20.8	79.2	100.0	$\chi^2=9.729$ $p=0.008$
	중	18.8	81.2	100.0	
	하	17.8	82.2	100.0	
경제수준	상	21.2	78.8	100.0	$\chi^2=21.231$ $p=0.000$
	중	17.3	82.7	100.0	
	하	18.9	81.1	100.0	

④ 봉사활동: 캠페인활동

캠페인활동의 참여율은 20%를 상회하는 수준(23.9%)이었으며,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은 76.1%로 나타났다(〈표 4-37〉).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27.2%)이 남자 청소년(20.9%)보다($p < .001$), 초등학생(26.3%)이 중(23.2%)·고등학생(22.9%)보다 상대적으로 캠페인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25.2%), 읍면지역(24.1%), 중소도시(22.5%) 순으로($p < .05$), 학업성적의 경우에는 상위권(28.2%)이 중위권(22.8%)이나 하위권(19.7%)보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26.8%)이 중(21.8%)·하 집단(21.5%)보다 캠페인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 < .001$).

표 4-37 **봉사활동: 캠페인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3.9	76.1	100.0	—
성별	남자	20.9	79.1	100.0	$\chi^2=57.967$ $p=0.000$
	여자	27.2	72.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6.3	73.7	100.0	$\chi^2=12.055$ $p=0.002$
	중학교	23.2	76.8	100.0	
	고등학교	22.9	77.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5.2	74.8	100.0	$\chi^2=8.554$ $p=0.014$
	중소도시	22.5	77.5	100.0	
	읍면지역	24.1	75.9	100.0	
학업성적	상	28.2	71.8	100.0	$\chi^2=63.633$ $p=0.000$
	중	22.8	77.2	100.0	
	하	19.7	80.3	100.0	
경제수준	상	26.8	73.2	100.0	$\chi^2=35.975$ $p=0.000$
	중	21.8	78.2	100.0	
	하	21.5	78.5	100.0	

⑤ 봉사활동: 자선·구호활동

표 4-38 봉사활동: 자선·구호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5.7	84.3	100.0	—
성별	남자	15.0	85.0	100.0	$\chi^2=4.594$ $p=0.032$
	여자	16.5	83.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6.6	83.4	100.0	$\chi^2=17.886$ $p=0.000$
	중학교	13.6	86.4	100.0	
	고등학교	16.9	83.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5.6	84.4	100.0	$\chi^2=1.075$ $p=0.584$
	중소도시	15.4	84.6	100.0	
	읍면지역	16.5	83.5	100.0	
학업성적	상	19.8	80.2	100.0	$\chi^2=73.285$ $p=0.000$
	중	14.6	85.4	100.0	
	하	12.1	87.9	100.0	
경제수준	상	18.5	81.5	100.0	$\chi^2=52.613$ $p=0.000$
	중	13.0	87.0	100.0	
	하	15.3	84.7	100.0	

자선·구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7%로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84.3%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16.5%)이 남자 청소년(15.0%)보다($p<.05$), 고등학생(16.9%)과 초등학생(16.6%)이 중학생(13.6%)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또한 학업성적(상 19.8%, 중 14.6%, 하 12.1%)이 높을수록($p<.001$),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에는 상 집단(18.5%), 하 집단(15.3%), 중 집단(13.0%)의 순으로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⑥ 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재능기부활동의 청소년 참여율은 16.8%,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은 83.2%로 나타났다.

표 4-39 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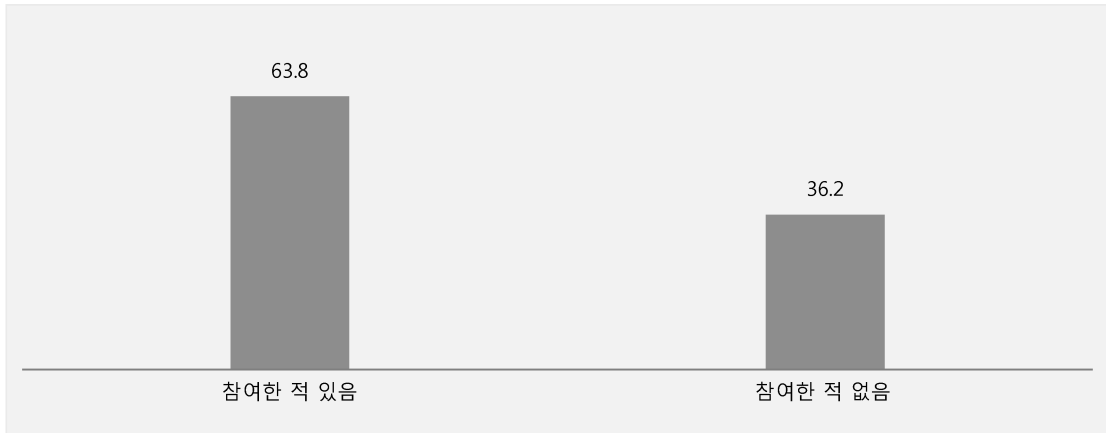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6.8	83.2	100.0	—
성별	남자	14.5	85.5	100.0	$\chi^2=41.588$ $p=0.000$
	여자	19.2	80.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7.2	82.8	100.0	$\chi^2=4.828$ $p=0.089$
	중학교	15.7	84.3	100.0	
	고등학교	17.5	82.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6.1	83.9	100.0	$\chi^2=20.913$ $p=0.000$
	중소도시	16.1	83.9	100.0	
	읍면지역	20.7	79.3	100.0	
학업성적	상	19.4	80.6	100.0	$\chi^2=28.869$ $p=0.000$
	중	16.4	83.6	100.0	
	하	14.2	85.8	100.0	
경제수준	상	20.1	79.9	100.0	$\chi^2=64.757$ $p=0.000$
	중	14.1	85.9	100.0	
	하	14.6	85.4	100.0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급 이외의 특성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19.2%)이 남자 청소년(14.5%)보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0.7%) 청소년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16.1%)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19.4%, 중 16.4%, 하 14.2%)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20.1%) 청소년이 낮은(14.6%) 혹은 중간 수준(14.1%)인 청소년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7)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63.8%는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6.2%는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4-1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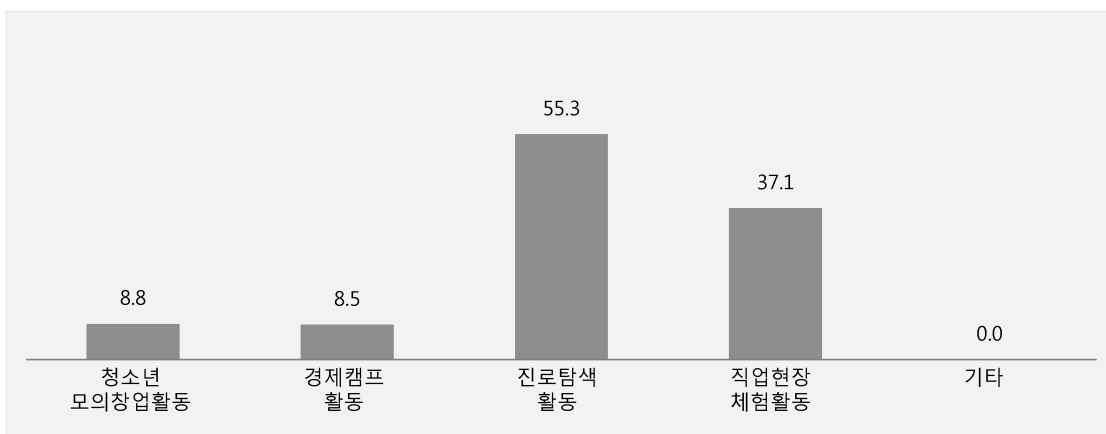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4-40〉), 여자 청소년(67.0%)이 남자 청소년(60.9%)보다($p < .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67.8%), 고등학생(63.9%), 초등학생(58.7%) 순으로($p < .0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65.3%)가 읍면지역(63.1%) 혹은 중소도시(62.5%)보다 참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p < .05$). 아울러 학업성적(상 68.8%, 중 62.3%, 하 59.6%)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66.3%)이 중간(61.9%)이거나 낮은 집단(61.7%)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40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3.8	36.2	100.0	—
성별	남자	60.9	39.1	100.0	$\chi^2=42.651$ $p=0.000$
	여자	67.0	33.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8.7	41.3	100.0	$\chi^2=58.344$ $p=0.000$
	중학교	67.8	32.2	100.0	
	고등학교	63.9	36.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5.3	34.7	100.0	$\chi^2=7.837$ $p=0.020$
	중소도시	62.5	37.5	100.0	
	읍면지역	63.1	36.9	100.0	
학업성적	상	68.8	31.2	100.0	$\chi^2=60.876$ $p=0.000$
	중	62.3	37.7	100.0	
	하	59.6	40.4	100.0	
경제수준	상	66.3	33.7	100.0	$\chi^2=22.748$ $p=0.000$
	중	61.9	38.1	100.0	
	하	61.7	38.3	100.0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세부 활동은 과반수 이상(55.3%)의 참여율을 보인 ‘진로탐색활동’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현장체험활동’(37.1%)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청소년모의창업활동’(8.8%)과 ‘경제캠프활동’(8.5%) 등의 참여율은 1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6】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①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활동

청소년모의창업활동은 8.8%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91.2%)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9.4%)이 여자 청소년(8.1%)보다($p < .05$), 초등학생(10.0%) 혹은 중학생(9.6%)이 고등학생(7.1%)보다($p < .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11.5%), 대도시(9.4%), 중소도시(7.1%)의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9.8%)이 하위권(8.4%)이나 중위권(8.1%)에 비해($p < .05$), 가정의 경제수준(상 10.4%, 중 8.1%, 하 5.7%)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표 4-4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8.8	91.2	100.0	—
성별	남자	9.4	90.6	100.0	$\chi^2=5.670$ $p=0.017$
	여자	8.1	91.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0	90.0	100.0	$\chi^2=21.862$ $p=0.000$
	중학교	9.6	90.4	100.0	
	고등학교	7.1	92.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4	90.6	100.0	$\chi^2=31.353$ $p=0.000$
	중소도시	7.1	92.9	100.0	
	읍면지역	11.5	88.5	100.0	
학업성적	상	9.8	90.2	100.0	$\chi^2=7.862$ $p=0.020$
	중	8.1	91.9	100.0	
	하	8.4	91.6	100.0	
경제수준	상	10.4	89.6	100.0	$\chi^2=33.734$ $p=0.000$
	중	8.1	91.9	100.0	
	하	5.7	94.3	100.0	

②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경제캠프활동

경제캠프활동의 참여율은 8.5%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다수(91.5%)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의 차이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초 13.8%, 중 8.0%, 고 5.1%)이 낮을수록($p<.001$), 읍면지역(10.0%)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8.6%) 또는 중소도시(8.0%) 거주 청소년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그리고 학업성적(상 9.8%, 중 8.5%, 하 6.8%)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10.6%, 중 7.3%, 하 6.0%)이 높을수록 참여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4-4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경제캠프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8.5	91.5	100.0	—
성별	남자	9.0	91.0	100.0	$\chi^2=3.063$ $p=0.080$
	여자	8.0	92.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3.8	86.2	100.0	$\chi^2=163.841$ $p=0.000$
	중학교	8.0	92.0	100.0	
	고등학교	5.1	94.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8.6	91.4	100.0	$\chi^2=6.288$ $p=0.043$
	중소도시	8.0	92.0	100.0	
	읍면지역	10.0	90.0	100.0	
학업성적	상	9.8	90.2	100.0	$\chi^2=16.721$ $p=0.000$
	중	8.5	91.5	100.0	
	하	6.8	93.2	100.0	
경제수준	상	10.6	89.4	100.0	$\chi^2=46.549$ $p=0.000$
	중	7.3	92.7	100.0	
	하	6.0	94.0	100.0	

③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탐색활동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3%)이 참여하였고, 44.7%의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43〉).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59.0%)이 남자 청소년(51.9%)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학교급별로는 중(61.9%)·고등학생(60.2%)이 초등학교(40.5%)보다($p < .001$),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59.6%) 청소년이 중위권(53.3%)이나 하위권(52.8%)에 속하는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 < .001$).

표 4-43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5.3	44.7	100.0	—
성별	남자	51.9	48.1	100.0	$\chi^2=53.910$ $p=0.000$
	여자	59.0	41.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0.5	59.5	100.0	$\chi^2=363.047$ $p=0.000$
	중학교	61.9	38.1	100.0	
	고등학교	60.2	39.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6.2	43.8	100.0	$\chi^2=3.704$ $p=0.157$
	중소도시	54.2	45.8	100.0	
	읍면지역	55.6	44.4	100.0	
학업성적	상	59.6	40.4	100.0	$\chi^2=38.252$ $p=0.000$
	중	53.3	46.7	100.0	
	하	52.8	47.2	100.0	
경제수준	상	56.3	43.7	100.0	$\chi^2=4.436$ $p=0.109$
	중	54.1	45.9	100.0	
	하	55.6	44.4	100.0	

④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표 4-44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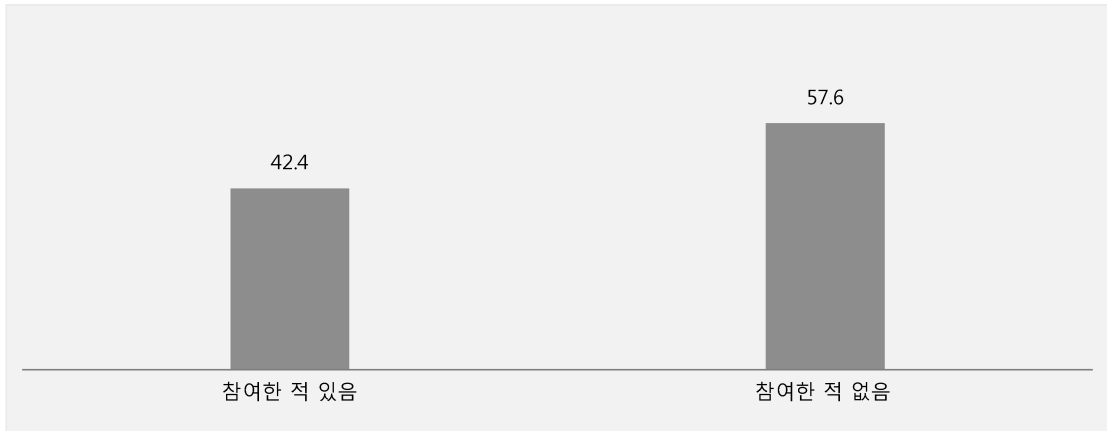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7.1	62.9	100.0	—
성별	남자	34.5	65.5	100.0	$\chi^2=33.394$ $p=0.000$
	여자	39.9	60.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2.0	58.0	100.0	$\chi^2=161.570$ $p=0.000$
	중학교	41.5	58.5	100.0	
	고등학교	29.3	70.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0.1	59.9	100.0	$\chi^2=35.602$ $p=0.000$
	중소도시	34.0	66.0	100.0	
	읍면지역	37.0	63.0	100.0	
학업성적	상	41.9	58.1	100.0	$\chi^2=54.786$ $p=0.000$
	중	35.7	64.3	100.0	
	하	33.2	66.8	100.0	
경제수준	상	41.8	58.2	100.0	$\chi^2=78.054$ $p=0.000$
	중	34.0	66.0	100.0	
	하	31.9	68.1	100.0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40%(37.1%)가 직업현장체험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이 밖에 60% 정도(62.9%)의 청소년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44〉).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39.9%)이 남자 청소년(34.5%)보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42.0%)과 중학생(41.5%)이 고등학생(29.3%)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40.1%), 읍면지역(37.0%), 중소도시(34.0%)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고($p<.001$), 학업성적(상 41.9%, 중 35.7%, 하 33.2%)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41.8%, 중 34.0%, 하 31.9%)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8)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환경보존활동

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간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42.4%는 ‘참여한 적 있음’으로 응답한 반면, ‘참여한 적 없음’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57.6%로 더 많았다.



【그림 4-17】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환경보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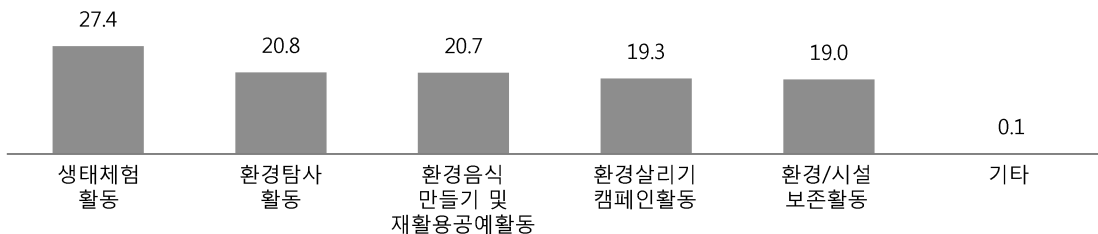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표 4-45〉)에서는 여자 청소년(44.8%)이 남자 청소년(40.2%)보다 ($p<.001$), 학교급(초 64.2%, 중 39.7%, 고 28.5%)이 낮을수록($p<.001$), 읍면지역(47.1%)에 사는 청소년이 대도시(42.0%)나 중소도시(41.1%)에 사는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또한 학업성적(상 48.8%, 중 42.7%, 하 33.7%)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48.9%, 중 39.1%, 하 32.4%)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표 4-4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환경보존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2.4	57.6	100.0	—
성별	남자	40.2	59.8	100.0	$\chi^2=23.078$ $p=0.000$
	여자	44.8	55.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4.2	35.8	100.0	$\chi^2=890.852$ $p=0.000$
	중학교	39.7	60.3	100.0	
	고등학교	28.5	71.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2.0	58.0	100.0	$\chi^2=17.744$ $p=0.000$
	중소도시	41.1	58.9	100.0	
	읍면지역	47.1	52.9	100.0	
학업성적	상	48.8	51.2	100.0	$\chi^2=138.070$ $p=0.000$
	중	42.7	57.3	100.0	
	하	33.7	66.3	100.0	
경제수준	상	48.9	51.1	100.0	$\chi^2=158.483$ $p=0.000$
	중	39.1	60.9	100.0	
	하	32.4	67.6	100.0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생태체험활동’이 27.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환경탐사활동’(20.8%),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20.7%), ‘환경살리기 캠페인활동’(19.3%), ‘환경·시설 보존활동’(19.0%)의 참여율은 20% 안팎으로 유사하였다.



【그림 4-18】 환경보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① 환경보존활동: 생태체험활동

전체 청소년의 1/4 정도(27.4%)가 생태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2.6%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교급(초 49.5%, 중 24.3%, 고 13.7%)이 낮을수록($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1.9%), 대도시(27.5%), 중소도시(25.8%)에 사는 청소년의 순으로 생태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울러 학업성적(상 33.5%, 중 28.1%, 하 18.7%)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33.6%, 중 24.3%, 하 18.3%)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표 4-46 환경보존활동: 생태체험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7.4	72.6	100.0	—
성별	남자	27.5	72.5	100.0	$\chi^2=0.009$ $p=0.925$
	여자	27.4	72.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9.5	50.5	100.0	$\chi^2=1106.468$ $p=0.000$
	중학교	24.3	75.7	100.0	
	고등학교	13.7	86.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7.5	72.5	100.0	$\chi^2=21.664$ $p=0.000$
	중소도시	25.8	74.2	100.0	
	읍면지역	31.9	68.1	100.0	
학업성적	상	33.5	66.5	100.0	$\chi^2=164.702$ $p=0.000$
	중	28.1	71.9	100.0	
	하	18.7	81.3	100.0	
경제수준	상	33.6	66.4	100.0	$\chi^2=169.038$ $p=0.000$
	중	24.3	75.7	100.0	
	하	18.3	81.7	100.0	

② 환경보존활동: 환경탐사활동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8%의 청소년이 환경탐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나머지 79.2%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47〉).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학교급(초 37.6%, 중 17.7%, 고 11.1%)이 낮을수록($p<.001$), 읍면지역(23.8%), 대도시(21.0%), 중소도시(19.4%) 순으로($p<.01$), 학업성적(상 25.1%, 중 20.9%, 하 15.0%)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25.9%, 중 18.2%, 하 12.9%)이 높을수록 환경탐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표 4-47 환경보존활동: 환경탐사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0.8	79.2	100.0	—
성별	남자	21.3	78.7	100.0	$\chi^2=2.012$ $p=0.156$
	여자	20.2	79.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7.6	62.4	100.0	$\chi^2=756.805$ $p=0.000$
	중학교	17.7	82.3	100.0	
	고등학교	11.0	89.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1.0	79.0	100.0	$\chi^2=13.982$ $p=0.001$
	중소도시	19.4	80.6	100.0	
	읍면지역	23.8	76.2	100.0	
학업성적	상	25.1	74.9	100.0	$\chi^2=93.334$ $p=0.000$
	중	20.9	79.1	100.0	
	하	15.0	85.0	100.0	
경제수준	상	25.9	74.1	100.0	$\chi^2=144.756$ $p=0.000$
	중	18.2	81.8	100.0	
	하	12.9	87.1	100.0	

③ 환경보존활동: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은 전체 청소년 중 20.7%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9.3%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표 4-48).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24.1%)이 남자 청소년(17.5%)보다($p<.001$), 학교급(초 38.8%, 중 19.1%, 고 8.5%)이 낮을수록 비교적 많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24.3%), 대도시(20.4%), 중소도시(19.6%)의 순으로($p<.001$), 학업성적(상 23.1%, 중 21.2%, 하 16.6%)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상 25.0%, 중 18.9%, 하 12.4%)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표 4-48 환경보존활동: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0.7	79.3	100.0	—
성별	남자	17.5	82.5	100.0	$\chi^2=69.249$ $p=0.000$
	여자	24.1	75.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8.8	61.2	100.0	$\chi^2=948.855$ $p=0.000$
	중학교	19.1	80.9	100.0	
	고등학교	8.5	91.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0.4	79.6	100.0	$\chi^2=15.406$ $p=0.000$
	중소도시	19.6	80.4	100.0	
	읍면지역	24.3	75.7	100.0	
학업성적	상	23.1	76.9	100.0	$\chi^2=39.396$ $p=0.000$
	중	21.2	78.8	100.0	
	하	16.6	83.4	100.0	
경제수준	상	25.0	75.0	100.0	$\chi^2=122.718$ $p=0.000$
	중	18.9	81.1	100.0	
	하	12.4	87.6	100.0	

④ 환경보존활동: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표 4-49 환경보존활동: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9.3	80.7	100.0	—
성별	남자	18.2	81.8	100.0	$\chi^2=8.846$ $p=0.003$
	여자	20.5	79.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6.7	73.3	100.0	$\chi^2=155.882$ $p=0.000$
	중학교	17.8	82.2	100.0	
	고등학교	15.0	85.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9.8	80.2	100.0	$\chi^2=5.355$ $p=0.069$
	중소도시	18.2	81.8	100.0	
	읍면지역	20.5	79.5	100.0	
학업성적	상	22.5	77.5	100.0	$\chi^2=38.551$ $p=0.000$
	중	18.4	81.6	100.0	
	하	16.5	83.5	100.0	
경제수준	상	23.0	77.0	100.0	$\chi^2=72.666$ $p=0.000$
	중	16.7	83.3	100.0	
	하	15.5	84.5	100.0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의 참여율은 19.3%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80.7%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4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지역규모를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20.5%)이 남자 청소년(18.2%)보다($p<.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26.7%)이 중(17.8%)·고등학생(15.0%)보다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p<.001$), 학업성적(상 22.5%, 중 18.4%, 하 16.5%)이 높을수록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23.0%)이 중(16.7%)·하 집단(15.5%)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001$).

⑤ 환경보존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전체 응답자 중 환경·시설 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9.0%이며, 그 외의 다수(81.0%)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50 환경보존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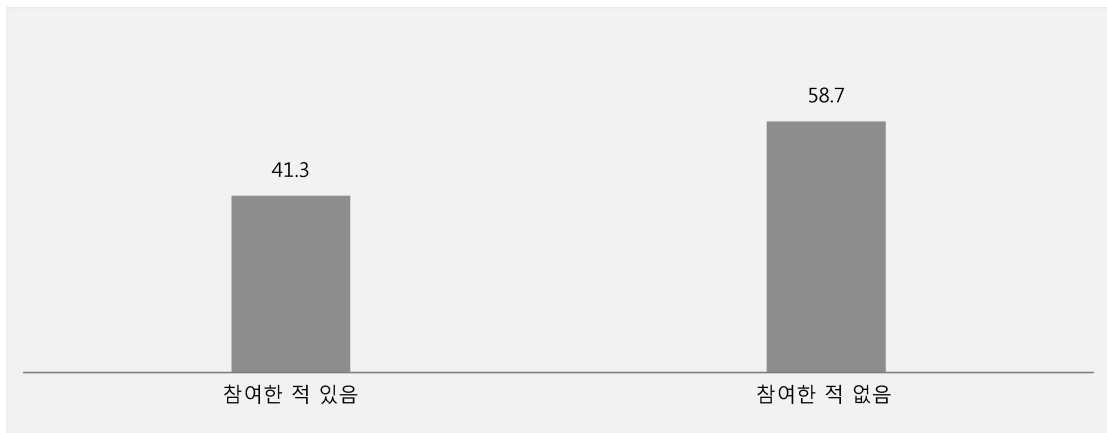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9.0	81.0	100.0	—
성별	남자	18.5	81.5	100.0	$\chi^2=1.549$ $p=0.213$
	여자	19.5	80.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5.7	74.3	100.0	$\chi^2=142.115$ $p=0.000$
	중학교	18.4	81.6	100.0	
	고등학교	14.4	85.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9.5	80.5	100.0	$\chi^2=8.139$ $p=0.017$
	중소도시	17.7	82.3	100.0	
	읍면지역	20.7	79.3	100.0	
학업성적	상	21.4	78.6	100.0	$\chi^2=25.028$ $p=0.000$
	중	18.7	81.3	100.0	
	하	16.3	83.7	100.0	
경제수준	상	22.4	77.6	100.0	$\chi^2=66.995$ $p=0.000$
	중	16.9	83.1	100.0	
	하	14.5	85.5	100.0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교급(초 25.7%, 중 18.4%, 고 14.4%)이 낮을수록($p<.001$), 읍면지역(20.7%), 대도시(19.5%), 중소도시(17.7%) 거주 청소년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5$). 또한 학업성적(상 21.4%, 중 18.7%, 하 16.3%)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22.4%, 중 16.9%, 하 14.5%)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9)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자기(인성)계발활동

최근 1년 동안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참여한 적 있음’과 ‘참여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4:6 정도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41.3%는 참여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58.7%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림 4-19】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자기(인성)계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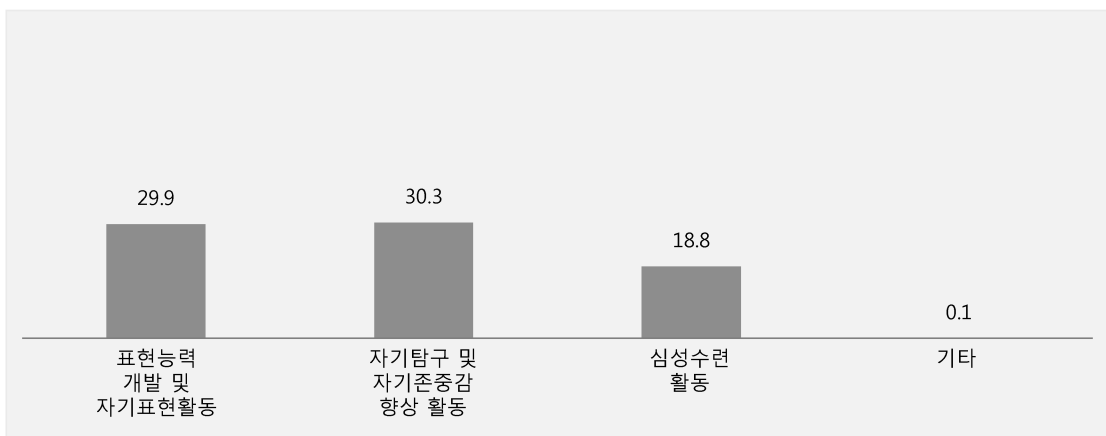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4-51〉),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44.5%)이 남자 청소년(38.4%)보다($p < .001$), 학교급(초 44.5%, 중 42.4%, 고 37.9%)이 낮을수록 참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거주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46.9%)이 대도시(40.8%)나 중소도시(39.9%)보다($p < .001$),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상 46.6%, 중 40.0%, 하 36.5%)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45.5%)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38.2%) 또는 하 집단(37.7%)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 < .001$).

표 4-5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자기(인성)개발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1.3	58.7	100.0	—
성별	남자	38.4	61.6	100.0	$\chi^2=39.568$ $p=0.000$
	여자	44.5	55.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4.5	55.5	100.0	$\chi^2=33.051$ $p=0.000$
	중학교	42.4	57.6	100.0	
	고등학교	37.9	62.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0.8	59.2	100.0	$\chi^2=25.180$ $p=0.000$
	중소도시	39.9	60.1	100.0	
	읍면지역	46.9	53.1	100.0	
학업성적	상	46.6	53.4	100.0	$\chi^2=67.546$ $p=0.000$
	중	40.0	60.0	100.0	
	하	36.5	63.5	100.0	
경제수준	상	45.5	54.5	100.0	$\chi^2=59.131$ $p=0.000$
	중	38.2	61.8	100.0	
	하	37.7	62.3	100.0	

자기(인성)개발활동의 세부 활동별로 보면,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30.3%)과 ‘표현능력 개발 및 자기표현활동’(29.9%)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으며, ‘심성수련활동’의 참여율은 18.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0】 자기(인성)개발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① 자기(인성)개발활동: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전체 응답자의 약 30%(29.9%)는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에 참여하였고, 70.1%의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32.3%)이 남자 청소년(27.7%)보다($p<.001$), 학교급(초 35.4%, 중 28.9%, 고 26.7%)이 낮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35.0%), 중소도시(29.6%), 대도시(28.4%)에 거주하는 청소년 순으로($p<.001$), 학업성적(상 35.0%, 중 29.0%, 하 24.9%)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34.2%)이 중(26.7%)·하 집단(26.0%)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p<.001$).

표 4-52 자기(인성)개발활동: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9.9	70.1	100.0	—
성별	남자	27.7	72.3	100.0	$\chi^2=27.014$ $p=0.000$
	여자	32.3	67.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5.4	64.6	100.0	$\chi^2=63.796$ $p=0.000$
	중학교	28.9	71.1	100.0	
	고등학교	26.7	73.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8.4	71.6	100.0	$\chi^2=24.681$ $p=0.000$
	중소도시	29.6	70.4	100.0	
	읍면지역	35.0	65.0	100.0	
학업성적	상	35.0	65.0	100.0	$\chi^2=75.712$ $p=0.000$
	중	29.0	71.0	100.0	
	하	24.9	75.1	100.0	
경제수준	상	34.2	65.8	100.0	$\chi^2=72.183$ $p=0.000$
	중	26.7	73.3	100.0	
	하	26.0	74.0	100.0	

② 자기(인성)계발활동: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의 참여율은 전체 응답자의 1/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30.3%)이었으며, 69.7%의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3〉).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32.1%)이 남자 청소년(28.7%)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1.4%)와 중학생(31.1%)이 고등학생(28.7%)보다($p<.05$),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35.5%)이 중소도시(29.6%)나 대도시(29.2%)보다 참여한 경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35.3%, 중 28.9%, 하 26.2%)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33.8%, 중 28.0%, 하 26.5%)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4-53 자기(인성)계발활동: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0.3	69.7	100.0	—
성별	남자	28.7	71.3	100.0	$\chi^2=14.432$ $p=0.000$
	여자	32.1	67.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1.4	68.6	100.0	$\chi^2=7.742$ $p=0.021$
	중학교	31.1	68.9	100.0	
	고등학교	28.7	71.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9.2	70.8	100.0	$\chi^2=23.767$ $p=0.000$
	중소도시	29.6	70.4	100.0	
	읍면지역	35.5	64.5	100.0	
학업성적	상	35.3	64.7	100.0	$\chi^2=65.637$ $p=0.000$
	중	28.9	71.1	100.0	
	하	26.2	73.8	100.0	
경제수준	상	33.8	66.2	100.0	$\chi^2=47.504$ $p=0.000$
	중	28.0	72.0	100.0	
	하	26.5	73.5	100.0	

③ 자기(인성)개발활동: 심성수련활동

전체 청소년의 20% 정도(18.8%)는 심성수련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80% 정도(81.2%)의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54〉).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21.0%), 대도시(19.6%), 중소도시(17.2%)의 순으로($p < .01$),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21.7%) 청소년이 중(17.7%)·하위권(17.0%) 청소년보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높은 집단(21.8%)에 속하는 청소년이 낮은(16.9%) 또는 중간 집단(16.5%)의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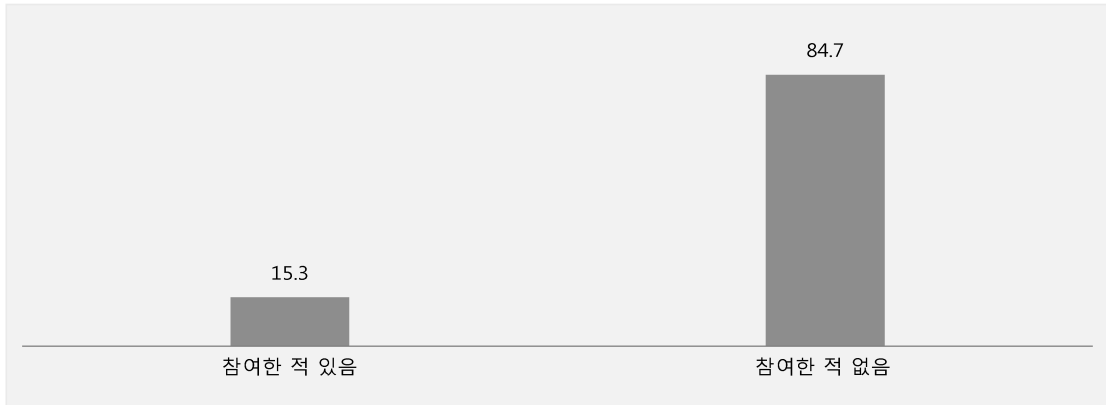
표 4-54 자기(인성)개발활동: 심성수련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8.8	81.2	100.0	—
성별	남자	18.2	81.8	100.0	$\chi^2=2.736$ $p=0.098$
	여자	19.5	80.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7.5	82.5	100.0	$\chi^2=5.617$ $p=0.060$
	중학교	19.8	80.2	100.0	
	고등학교	19.0	81.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9.6	80.4	100.0	$\chi^2=13.860$ $p=0.001$
	중소도시	17.2	82.8	100.0	
	읍면지역	21.0	79.0	100.0	
학업성적	상	21.7	78.3	100.0	$\chi^2=27.610$ $p=0.000$
	중	17.7	82.3	100.0	
	하	17.0	83.0	100.0	
경제수준	상	21.8	78.2	100.0	$\chi^2=44.688$ $p=0.000$
	중	16.5	83.5	100.0	
	하	16.9	83.1	100.0	

(10)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참여활동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3%로 적은 편이었으며, 상당 수(84.7%)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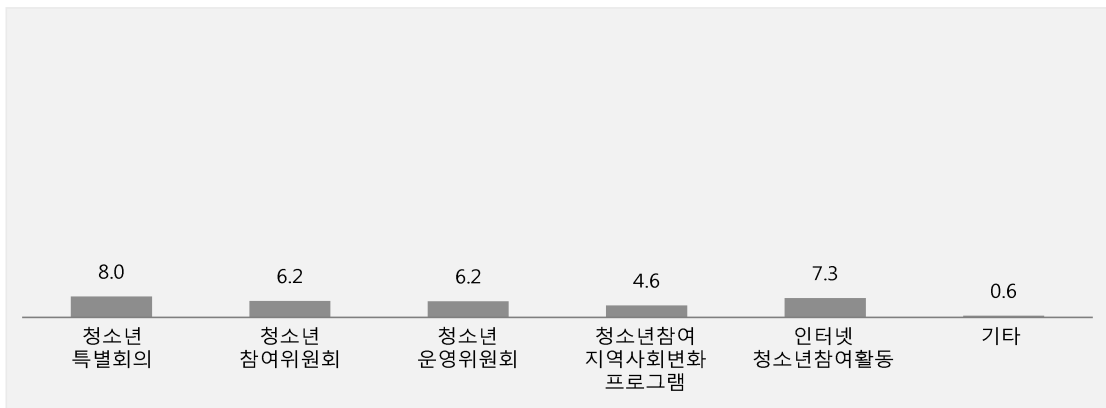
【그림 4-2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초 17.4%, 중 15.3%, 고 13.7%)이 낮을수록($p < .001$), 읍면지역(18.2%)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14.8%)와 중소도시(14.6%) 거주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1$). 또한 학업성적(상 17.5%, 중 15.0%, 하 12.7%)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18.0%, 중 13.5%, 하 12.4%)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01$).

표 4-55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참여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5.3	84.7	100.0	—
성별	남자	15.0	85.0	100.0	$\chi^2=0.880$ $p=0.348$
	여자	15.6	84.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7.4	82.6	100.0	$\chi^2=17.621$ $p=0.000$
	중학교	15.3	84.7	100.0	
	고등학교	13.7	86.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4.8	85.2	100.0	$\chi^2=12.566$ $p=0.002$
	중소도시	14.6	85.4	100.0	
	읍면지역	18.2	81.8	100.0	
학업성적	상	17.5	82.5	100.0	$\chi^2=27.317$ $p=0.000$
	중	15.0	85.0	100.0	
	하	12.7	87.3	100.0	
경제수준	상	18.0	82.0	100.0	$\chi^2=45.722$ $p=0.000$
	중	13.5	86.5	100.0	
	하	12.4	87.6	100.0	



【그림 4-22】 청소년참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

청소년참여활동의 세부 활동별로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4-22]),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가 8.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인터넷 청소년참여활동’(7.3%),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6.2%),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4.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①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특별회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는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92.0%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9.3%)이 중학생(7.7%)이나 고등학생(7.2%)보다 ($p<.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9.7%), 대도시(8.2%), 중소도시(7.1%)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조사되었다($p<.01$). 아울러 학업성적(상 9.4%, 중 7.7%, 하 6.4%)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9.4%, 중 7.0%, 하 6.3%)이 높을수록 청소년특별회의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p<.001$).

표 4-56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특별회의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8.0	92.0	100.0	—
성별	남자	8.1	91.9	100.0	$\chi^2=0.348$ $p=0.555$
	여자	7.8	92.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3	90.7	100.0	$\chi^2=10.246$ $p=0.006$
	중학교	7.7	92.3	100.0	
	고등학교	7.2	92.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8.2	91.8	100.0	$\chi^2=11.408$ $p=0.003$
	중소도시	7.1	92.9	100.0	
	읍면지역	9.7	90.3	100.0	
학업성적	상	9.4	90.6	100.0	$\chi^2=18.812$ $p=0.000$
	중	7.7	92.3	100.0	
	하	6.4	93.6	100.0	
경제수준	상	9.4	90.6	100.0	$\chi^2=23.792$ $p=0.000$
	중	7.0	93.0	100.0	
	하	6.3	93.7	100.0	

②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2%이며,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9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7.9%)의 청소년이 대도시(6.0%)나 중소도시(5.9%)에 사는 청소년보다($p < .05$),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7.4%)이 중(5.6%)·하위권(5.5%)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1$).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상 7.5%, 중 5.6%, 하 4.3%)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01$).

표 4-57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2	93.8	100.0	—
성별	남자	6.5	93.5	100.0	$\chi^2=1.296$ $p=0.255$
	여자	5.9	94.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0	93.0	100.0	$\chi^2=4.352$ $p=0.113$
	중학교	5.9	94.1	100.0	
	고등학교	5.9	94.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0	94.0	100.0	$\chi^2=8.710$ $p=0.013$
	중소도시	5.9	94.1	100.0	
	읍면지역	7.9	92.1	100.0	
학업성적	상	7.4	92.6	100.0	$\chi^2=13.499$ $p=0.001$
	중	5.6	94.4	100.0	
	하	5.5	94.5	100.0	
경제수준	상	7.5	92.5	100.0	$\chi^2=24.456$ $p=0.000$
	중	5.6	94.4	100.0	
	하	4.3	95.7	100.0	

③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6.2%이고, 이 밖에 93.8%의 청소년들은 활동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별과 학교급 이외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8.3%)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5.9%) 또는 대도시(5.7%)의 청소년보다($p<.01$),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7.7%) 청소년이 중(5.5%)·하위권(5.3%)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7.2%, 중 5.8%, 하 4.1%)이 높을수록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표 4-58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2	93.8	100.0	—
성별	남자	6.4	93.6	100.0	$\chi^2=0.983$ $p=0.322$
	여자	5.9	94.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2	93.8	100.0	$\chi^2=0.114$ $p=0.945$
	중학교	6.3	93.7	100.0	
	고등학교	6.1	93.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7	94.3	100.0	$\chi^2=14.959$ $p=0.001$
	중소도시	5.9	94.1	100.0	
	읍면지역	8.3	91.7	100.0	
학업성적	상	7.7	92.3	100.0	$\chi^2=20.040$ $p=0.000$
	중	5.5	94.5	100.0	
	하	5.3	94.7	100.0	
경제수준	상	7.2	92.8	100.0	$\chi^2=19.138$ $p=0.000$
	중	5.8	94.2	100.0	
	하	4.1	95.9	100.0	

④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표 4-59〉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4.6%의 소수 청소년만이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대다수(95.4%)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입증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5.0%)이 여자 청소년(4.1%)보다($p < .05$), 학교급(초 5.3%, 중 4.6%, 고 3.9%)이 낮을수록($p < .05$), 가정의 경제수준(상 5.6%, 중 4.0%, 하 2.9%)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 4-59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6	95.4	100.0	—
성별	남자	5.0	95.0	100.0	$\chi^2=4.575$ $p=0.032$
	여자	4.1	95.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3	94.7	100.0	$\chi^2=7.774$ $p=0.021$
	중학교	4.6	95.4	100.0	
	고등학교	3.9	96.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5	95.5	100.0	$\chi^2=1.556$ $p=0.459$
	중소도시	4.4	95.6	100.0	
	읍면지역	5.1	94.9	100.0	
학업성적	상	5.2	94.8	100.0	$\chi^2=5.189$ $p=0.075$
	중	4.3	95.7	100.0	
	하	4.1	95.9	100.0	
경제수준	상	5.6	94.4	100.0	$\chi^2=22.871$ $p=0.000$
	중	4.0	96.0	100.0	
	하	2.9	97.1	100.0	

⑤ 청소년참여활동: 인터넷 청소년참여활동

인터넷 청소년참여활동의 경우 응답자의 7.3%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92.7%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표 4-6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교급과 경제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급(초 9.3%, 중 7.5%, 고 5.7%)이 낮을수록 ($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8.7%, 중 6.7%, 하 5.1%)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참여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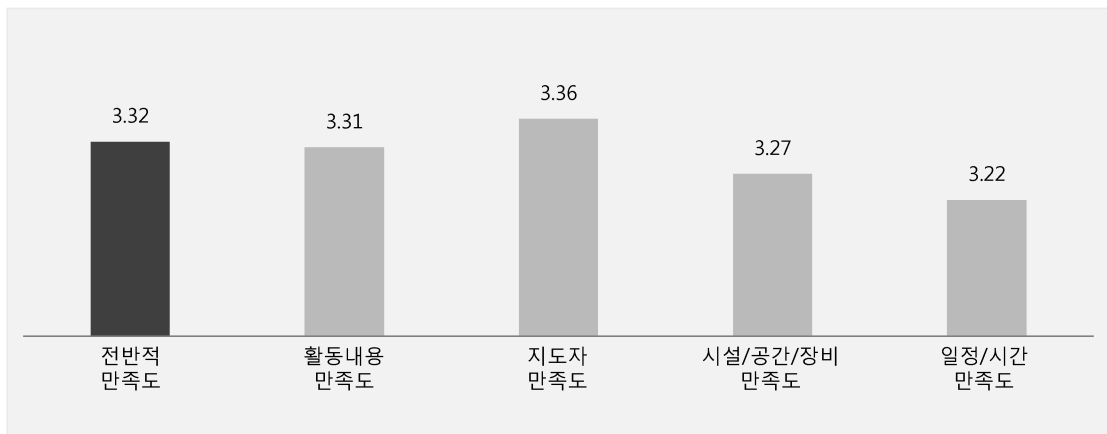
표 4-60 청소년참여활동: 인터넷 청소년참여활동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7.3	92.7	100.0	—
성별	남자	7.5	92.5	100.0	$\chi^2=0.618$ $p=0.432$
	여자	7.1	92.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3	90.7	100.0	$\chi^2=32.109$ $p=0.000$
	중학교	7.5	92.5	100.0	
	고등학교	5.7	94.3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6	92.4	100.0	$\chi^2=6.010$ $p=0.050$
	중소도시	6.7	93.3	100.0	
	읍면지역	8.5	91.5	100.0	
학업성적	상	7.8	92.2	100.0	$\chi^2=2.303$ $p=0.316$
	중	6.9	93.1	100.0	
	하	7.4	92.6	100.0	
경제수준	상	8.7	91.3	100.0	$\chi^2=26.173$ $p=0.000$
	중	6.7	93.3	100.0	
	하	5.1	94.9	100.0	

2) 청소년활동 만족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2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도자 만족도'의 평균이 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활동내용 만족도'(M=3.3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27), '일정·시간 만족도'(M=3.22)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3】 청소년활동 만족도

(1)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평균 점수는 3.32이며,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M=3.34)이 남자 청소년(M=3.29)보다 ($p<.01$), 학교급(초 3.51, 중 3.32, 고 3.17)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대도시(M=3.36)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27) 거주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상 3.43, 중 3.31, 하 3.20)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M=3.39) 청소년이 중(M=3.27)·하 집단(M=3.24)의 청소년보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표 4-61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2	.89	—	—
성별	남자	3.29	.90	t=-2.950 p=0.003	—
	여자	3.34	.88		
학교급	초등학교 ^a	3.51	.99	F=119.489 p=0.000	a>b>c
	중학교 ^b	3.32	.84		
	고등학교 ^c	3.17	.82		
지역규모	대도시 ^a	3.36	.90	F=11.510 p=0.000	a>b
	중소도시 ^b	3.27	.88		
	읍면지역	3.33	.88		
학업성적	상 ^a	3.43	.93	F=49.878 p=0.000	a>b>c
	중 ^b	3.31	.87		
	하 ^c	3.20	.85		
경제수준	상 ^a	3.39	.92	F=26.917 p=0.000	a>b,c
	중 ^b	3.27	.86		
	하 ^c	3.24	.83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2)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표 4-62〉와 같이, 청소년활동의 내용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 3.31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M=3.34)의 만족도가 남자 청소년(M=3.28)보다 높았으며($p<.01$), 학교급(초 3.50, 중 3.30, 고 3.17)이 낮을수록($p<.001$), 대도시(M=3.35) 청소년이 중소도시(M=3.27)의 청소년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리고 학업성적(상 3.42, 중 3.30, 하 3.17)이 높을수록($p<.001$),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에는 상 집단(M=3.40)이 중 집단(M=3.25)과 하 집단(M=3.22)에 비해 만족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4-62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1	.91	—	—
성별	남자	3.28	.93	t=-3.175 p=0.002	—
	여자	3.34	.89		
학교급	초등학교 ^a	3.50	1.00	F=111.243 p=0.000	a>b>c
	중학교 ^b	3.30	.88		
	고등학교 ^c	3.17	.84		
지역규모	대도시 ^a	3.35	.92	F=7.317 p=0.001	a>b
	중소도시 ^b	3.27	.90		
	읍면지역	3.31	.91		
학업성적	상 ^a	3.42	.95	F=54.749 p=0.000	a>b>c
	중 ^b	3.30	.89		
	하 ^c	3.17	.89		
경제수준	상 ^a	3.40	.95	F=36.870 p=0.000	a>b,c
	중 ^b	3.25	.88		
	하 ^c	3.22	.8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표 4-6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6	.90	—	—
성별	남자	3.33	.91	t=-2.421 p=0.015	—
	여자	3.38	.89		
학교급	초등학교 ^a	3.55	.99	F=126.149 p=0.000	a>b>c
	중학교 ^b	3.36	.86		
	고등학교 ^c	3.20	.84		
지역규모	대도시 ^a	3.39	.91	F=8.869 p=0.000	a>b
	중소도시 ^b	3.31	.90		
	읍면지역	3.36	.89		
학업성적	상 ^a	3.46	.94	F=43.972 p=0.000	a>b>c
	중 ^b	3.34	.88		
	하 ^c	3.24	.86		
경제수준	상 ^a	3.44	.94	F=37.329 p=0.000	a>b,c
	중 ^b	3.30	.87		
	하 ^c	3.25	.8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지도자 관련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평균은 3.36이며, 일반적 특성별로 유의한 평균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63〉). 여자 청소년($M=3.38$)이 남자 청소년($M=3.33$)보다($p<.05$), 학교급(초 3.55, 중 3.36, 고 3.20)이 낮을수록($p<.001$), 대도시($M=3.39$)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31$) 거주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또 학업성적(상 3.46, 중 3.34, 하 3.24)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M=3.44$)이 중($M=3.30$)·하 집단($M=3.25$)보다 지도자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과 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7로 분석되었다.

표 4-64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27	.90	—	—
성별	남자	3.23	.92	$t=-3.735$ $p=0.000$	—
	여자	3.30	.88		
학교급	초등학교 ^a	3.50	.96	$F=172.596$ $p=0.000$	a>b>c
	중학교 ^b	3.26	.87		
	고등학교 ^c	3.09	.84		
지역규모	대도시 ^p	3.31	.91	$F=9.446$ $p=0.000$	a>b
	중소도시 ^p	3.22	.89		
	읍면지역	3.27	.89		
학업성적	상 ^a	3.36	.94	$F=39.160$ $p=0.000$	a>b>c
	중 ^b	3.27	.88		
	하 ^c	3.15	.88		
경제수준	상 ^a	3.34	.95	$F=25.377$ $p=0.000$	a>b,c
	중 ^b	3.22	.86		
	하 ^c	3.18	.8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여자 청소년($M=3.30$)이 남자 청소년($M=3.23$)보다($p<.001$), 학교급(초 3.50, 중 3.26, 고 3.09)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시설·공간·장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M=3.31)가 중소도시(M=3.22)보다($p<.001$),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상 3.36, 중 3.27, 하 3.15)이 높은 청소년일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집단(M=3.34)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M=3.22)·하 집단(M=3.18)의 청소년보다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5)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 3.2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25)의 만족도가 남자 청소년(M=3.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1$), 학교급(초 3.43, 중 3.23, 고 3.06)이 낮을수록($p<.001$), 대도시(M=3.27)에 사는 청소년이 중소도시(M=3.17)의 청소년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또한 학업성적(상 3.32, 중 3.22, 하 3.10)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M=3.29)이 중간(M=3.18) 혹은 낮은 집단(M=3.1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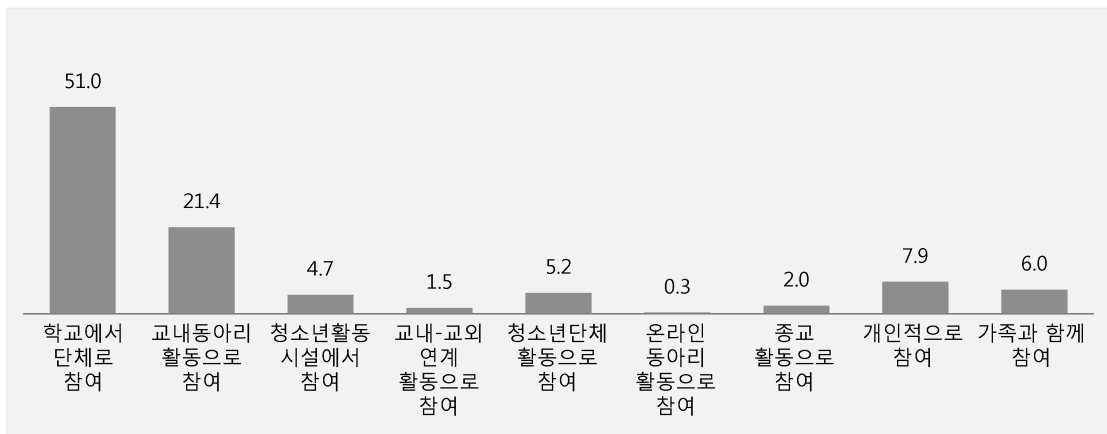
표 4-65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22	.91	—	—
성별	남자	3.20	.93	$t=-3.048$ $p=0.002$	—
	여자	3.25	.90		
학교급	초등학교 ^a	3.43	1.00	$F=132.620$ $p=0.000$	a)b)c
	중학교 ^b	3.23	.88		
	고등학교 ^c	3.06	.85		
지역규모	대도시 ^p	3.27	.92	$F=11.535$ $p=0.000$	a)b
	중소도시 ^p	3.17	.91		
	읍면지역	3.22	.89		
학업성적	상 ^a	3.32	.96	$F=40.684$ $p=0.000$	a)b)c
	중 ^b	3.22	.89		
	하 ^c	3.10	.88		
경제수준	상 ^a	3.29	.96	$F=24.795$ $p=0.000$	a)b,c
	중 ^b	3.18	.88		
	하 ^c	3.13	.85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3)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로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 질문한 결과,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라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51.0%)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가 21.4%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개인적으로 참여’(7.9%), ‘가족과 함께 참여’(6.0%),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5.2%),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4.7%) 등의 응답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4-24】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표 4-66〉),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1, 2순위의 응답률이 유사한 반면, 남자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참여’(7.5%) 다음 ‘가족과 함께 참여’(6.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참여’(8.3%),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6.4%) 순으로 조사되었다($p < .001$). 학교급별로 보면, 1순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는 고등학생(54.0%)과 중학생(53.1%)이 초등학생(44.6%)보다 많았으며, 2순위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는 학교급(고 25.3%, 중 21.1%, 초 16.6%)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가족과 함께 참여’는 초등학생(12.8%), 중학생(5.3%), 고등학생(1.5%)의 순으로,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는 초등학생(10.2%)이 중학생(3.8%)과 고등학생(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지역규모별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경우, 읍면지역(55.3%)의 비율이 대도시(50.4%)나 중소도시(50.2%)보다 높았고,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의 응답률은 대도시(22.0%) 및 중소도시(21.7%)가 읍면지역(18.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하위권(53.2%) 청소년이 상위권(50.6%)과 중위권(50.0%)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고, ‘교내동아리활동

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성적(하 23.8%, 중 21.3%, 상 19.7%)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낮은 수준(하 57.1%, 중 53.0%, 상 47.2%)일수록 1순위로 응답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표 4-6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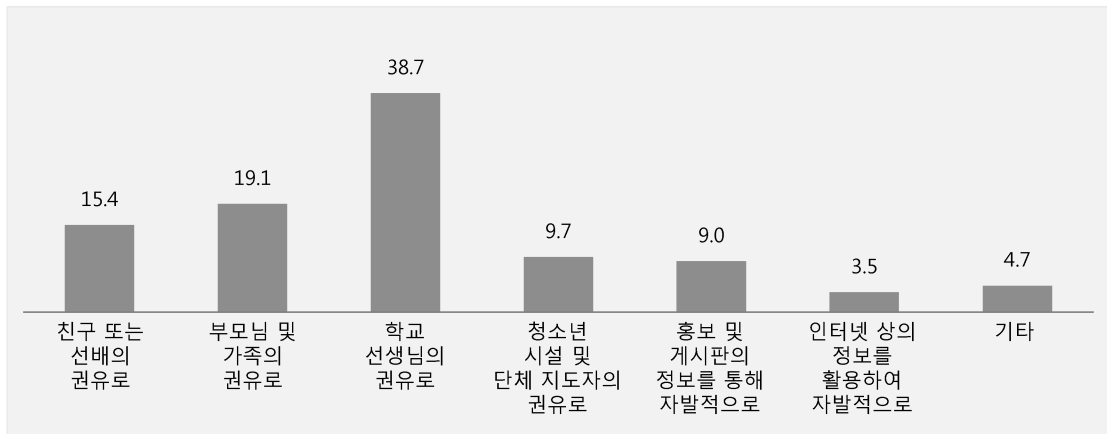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51.0	21.4	4.7	1.5	5.2	.3	2.0	7.9	6.0	100.0	—
성별	남자	51.7	21.6	4.6	1.5	4.1	.3	2.2	7.5	6.5	100.0	$\chi^2=38.865$ $p=0.000$
	여자	50.4	21.1	4.9	1.5	6.4	.2	1.8	8.3	5.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4.6	16.6	4.7	1.2	10.2	.3	2.6	7.0	12.8	100.0	$\chi^2=654.394$ $p=0.000$
	중학교	53.1	21.1	4.6	1.6	3.8	.4	2.2	8.0	5.3	100.0	
	고등학교	54.0	25.3	4.8	1.5	2.7	.2	1.4	8.5	1.5	100.0	
지역구분	대도시	50.4	22.0	4.3	1.7	5.6	.3	2.2	7.8	5.7	100.0	$\chi^2=40.466$ $p=0.001$
	중소도시	50.2	21.7	5.3	1.2	4.6	.2	1.9	8.6	6.5	100.0	
	읍면지역	55.3	18.8	4.6	1.4	5.6	.5	1.9	6.5	5.4	100.0	
학업성적	상	50.6	19.7	4.4	1.6	6.5	.2	2.2	8.1	6.8	100.0	$\chi^2=72.062$ $p=0.000$
	중	50.0	21.3	5.1	1.3	5.4	.4	2.0	8.0	6.5	100.0	
	하	53.2	23.8	4.5	1.5	3.2	.3	1.8	7.5	4.1	100.0	
경제수준	상	47.2	21.1	4.7	1.3	6.7	.2	2.1	8.9	7.7	100.0	$\chi^2=139.633$ $p=0.000$
	중	53.0	21.5	4.9	1.7	4.5	.3	2.0	6.8	5.2	100.0	
	하	57.1	22.1	4.2	1.1	2.4	.3	1.9	8.2	2.8	100.0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③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⑤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⑦ 종교활동으로 참여, ⑧ 개인적으로 참여, ⑨ 가족과 함께 참여

4)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9.1%),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5.4%) 참여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 밖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9.7%),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9.0%), ‘기타’(4.7%),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3.5%)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그림 4-25】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일반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남 40.9%, 여 36.3%),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남 20.1%, 여 18.0%)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p < .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은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35.9%),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32.5%), 중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0.5%),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7.7%), 고등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1.6%),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9.6%)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지역규모별 응답순위는 유사하였으나 1순위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는 읍면지역(42.0%), 대도시(40.5%), 중소도시(35.5%) 순으로, 2순위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는 중소도시(20.4%), 대도시(18.4%), 읍면지역(17.4%)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p < .001$).

학업성적별로 보면, 중위권 이상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상 36.8%, 중 38.1%),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상 22.5%, 중 19.8%) 순으로 참여했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권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1.7%),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7.4%) 순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과 중 집단의 경우,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상 35.0%, 중 40.7%),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상 22.8%, 중 17.2%) 순으로 참여한 비율이 높았으며, 하 집단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3.8%),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5.0%) 순으로 참여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p < .001$).

표 4-67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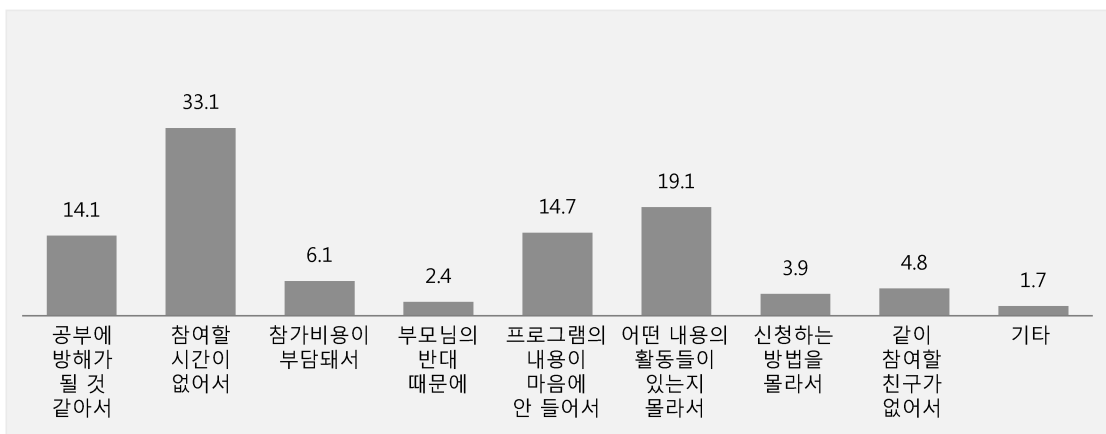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통계치
전체		15.4	19.1	38.7	9.7	9.0	3.5	4.7	100.0	—
성별	남자	15.4	20.1	40.9	9.0	7.0	3.3	4.4	100.0	$\chi^2=76.676$ $p=0.000$
	여자	15.3	18.0	36.3	10.5	11.1	3.8	5.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5	35.9	32.5	8.1	7.1	2.3	3.7	100.0	$\chi^2=922.620$ $p=0.000$
	중학교	14.9	17.7	40.5	10.5	7.4	4.0	5.0	100.0	
	고등학교	19.6	7.5	41.6	10.2	11.9	4.1	5.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4.7	18.4	40.5	9.7	8.4	3.7	4.7	100.0	$\chi^2=53.669$ $p=0.000$
	중소도시	16.1	20.4	35.5	9.6	9.5	3.5	5.5	100.0	
	읍면지역	15.2	17.4	42.0	10.2	9.4	3.2	2.6	100.0	
학업성적	상	13.5	22.5	36.8	9.7	8.9	4.4	4.2	100.0	$\chi^2=114.613$ $p=0.000$
	중	15.7	19.8	38.1	8.9	8.8	3.6	5.0	100.0	
	하	17.4	13.3	41.7	10.9	9.5	2.4	4.8	100.0	
경제수준	상	15.8	22.8	35.0	9.5	9.0	3.9	3.9	100.0	$\chi^2=126.344$ $p=0.000$
	중	15.0	17.2	40.7	10.2	8.3	3.4	5.2	100.0	
	하	15.0	12.9	43.8	8.8	11.0	2.7	5.7	100.0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④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⑤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⑦ 기타

5)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림 4-26】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그 결과([그림 4-26]),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9.1%),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4.7%),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4.1%) 등의 순으로 주요 방해요인을 꼽았다.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률이 공통적으로 높았으며,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녀 청소년이 응답한 순위는 동일했으나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인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남 18.0%, 여 20.4%)는 여자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남 15.3%, 여 13.9%)는 남자 청소년이 더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교급별로 보면,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는 학교급(고 35.1%, 중 33.1%, 초 30.5%)이 높을수록,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는 고등학생(20.9%), 초등학생(18.7%), 중학생(17.6%)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 밖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는 중학생(17.6%)이 고등학생(13.3%)과 초등학생(12.7%)에 비해,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는 학년(고 17.9%, 중 13.0%, 초 10.3%)이 높을수록 더 큰 방해요인으로 꼽았다($p < .001$).

표 4-68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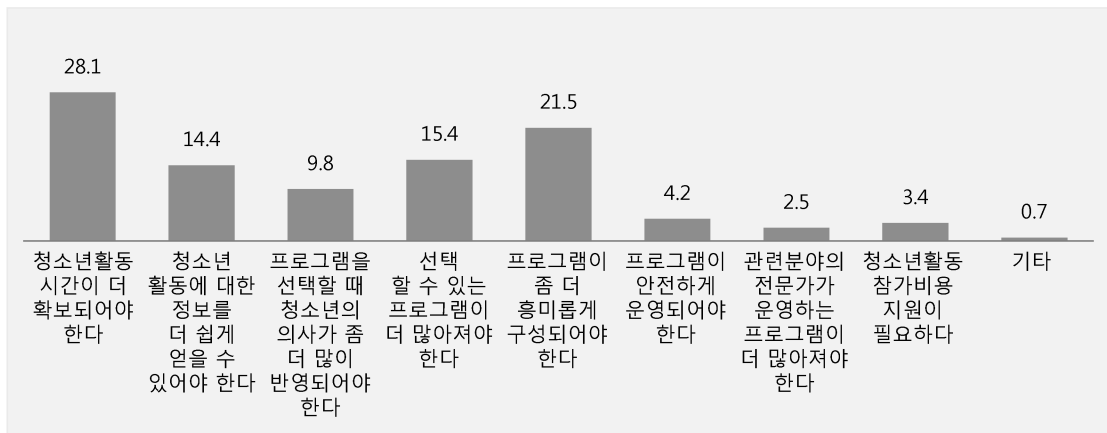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14.1	33.1	6.1	2.4	14.7	19.1	3.9	4.8	1.7	100.0	—
성별	남자	14.7	32.9	6.4	2.4	15.3	18.0	4.1	4.6	1.6	100.0	$\chi^2=19.569$ $p=0.012$
	여자	13.4	33.4	5.8	2.5	13.9	20.4	3.6	5.1	1.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3	30.5	8.7	5.5	12.7	18.7	4.2	7.9	1.6	100.0	$\chi^2=404.569$ $p=0.000$
	중학교	13.0	33.1	6.0	1.6	17.6	17.6	4.2	5.0	1.9	100.0	
	고등학교	17.9	35.1	4.5	1.0	13.3	20.9	3.3	2.4	1.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3.9	34.1	6.4	2.4	15.0	18.4	3.4	4.5	1.8	100.0	$\chi^2=31.833$ $p=0.011$
	중소도시	14.0	33.7	6.0	2.5	14.0	18.8	4.3	5.1	1.8	100.0	
	읍면지역	15.0	29.0	5.6	2.4	15.3	22.3	4.0	4.9	1.2	100.0	
학업성적	상	16.2	34.6	5.3	2.7	12.7	18.4	3.2	5.0	1.8	100.0	$\chi^2=52.785$ $p=0.000$
	중	13.5	32.7	6.2	2.6	15.0	19.4	4.2	4.9	1.6	100.0	
	하	12.3	32.4	7.1	1.9	16.4	19.6	4.1	4.4	1.8	100.0	
경제수준	상	14.7	35.7	6.0	2.9	13.4	17.4	3.4	4.9	1.7	100.0	$\chi^2=74.140$ $p=0.000$
	중	13.8	32.5	5.7	2.1	15.5	19.8	4.0	4.7	1.8	100.0	
	하	13.3	26.9	7.8	2.0	16.1	22.9	4.8	4.7	1.5	100.0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⑨ 기타

지역규모의 경우(〈표 4-68〉),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은 대도시(34.1%)나 중소도시(33.7%)가 읍면지역(29.0%)보다 많은 반면,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읍면지역(22.3%)이 중소도시(18.8%)나 대도시(18.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1순위에 대한 응답률이 유사했으며, 그 다음 응답으로 상 집단은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8.4%),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6.2%) 순으로, 중·하 집단은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중 19.4%, 하 19.6%),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중 15.0%, 하 16.4%) 순으로 장애요인을 밝혔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률은 경제수준(상 35.7%, 중 32.5%, 하 26.9%)이 높을수록,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의 비율은 경제수준(하 22.9%, 중 19.8%, 상 17.4%)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6)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림 4-27】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분석결과,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1%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1.5%)가 후순위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15.4%),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14.4%),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9.8%)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남녀 청소년의 응답순위가 유사했으나 1순위로 나타난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남 31.4%, 여 24.6%)는 남자 청소년이, 2순위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남 20.5%, 여 22.5%)는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적하였다($p<.001$). 학교급별로는 청소년활동의 시간확보(초 24.0%, 중 27.5%, 고 31.8%)와 프로그램의 흥미증대(초 19.9%, 중 23.8%, 고 20.4%)에 관한 응답률이 학교급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초 17.1%, 중 15.7%)는 의견이, 고등학생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17.1%)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10.8%)이 다른 학년(중 2.5%, 고 0.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표 4-69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28.1	14.4	9.8	15.4	21.5	4.2	2.5	3.4	.7	100.0	—
성별	남자	31.4	13.6	9.8	14.1	20.5	4.1	2.4	3.4	.8	100.0	$\chi^2=65.373$ $p=0.000$
	여자	24.6	15.2	9.8	16.8	22.5	4.3	2.7	3.5	.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4.0	14.0	7.1	17.1	19.9	10.8	2.7	3.8	.7	100.0	$\chi^2=591.555$ $p=0.000$
	중학교	27.5	11.8	12.9	15.7	23.8	2.5	2.1	3.3	.4	100.0	
	고등학교	31.8	17.1	9.0	13.8	20.4	.9	2.7	3.3	.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7.5	13.5	10.0	16.0	21.4	4.2	2.8	3.8	.7	100.0	$\chi^2=28.893$ $p=0.025$
	중소도시	29.2	15.4	9.7	14.5	20.8	4.5	2.2	3.0	.7	100.0	
	읍면지역	27.2	14.0	9.6	16.1	23.2	3.3	2.7	3.5	.4	100.0	
학업성적	상	26.9	15.2	9.4	15.0	22.7	4.3	2.1	3.5	1.0	100.0	$\chi^2=44.348$ $p=0.000$
	중	28.3	14.8	9.5	14.9	21.4	4.7	2.8	3.3	.5	100.0	
	하	29.6	12.8	10.8	16.7	19.9	3.3	2.7	3.6	.5	100.0	
경제수준	상	28.4	14.1	9.0	16.0	21.5	5.0	2.5	2.9	.7	100.0	$\chi^2=56.022$ $p=0.000$
	중	28.8	13.9	10.5	14.3	21.7	4.1	2.5	3.6	.6	100.0	
	하	25.2	17.0	10.3	16.9	20.7	2.1	2.9	4.3	.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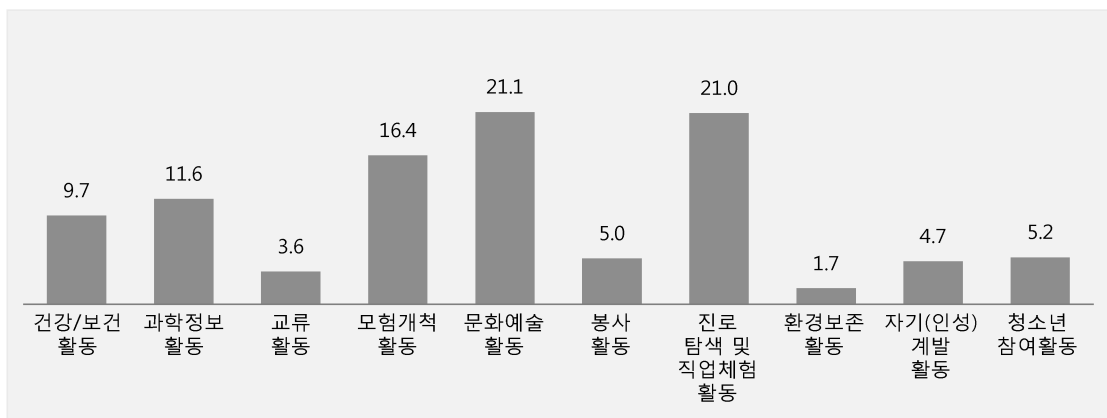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⑨ 기타

지역규모의 경우(<표 4-69>), 활성화요인 1, 2순위 응답 후순위로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청소년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대 16.0%, 읍 16.1%)를, 중소도시의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15.4%)를 꼽았다($p<.05$). 학업성적별로 보면, 1순위로

지목된 청소년활동의 시간확보에 관한 응답률은 성적(하 29.6%, 중 28.3%, 상 26.9%)이 낮을수록, 2순위 프로그램의 흥미증대에 관한 응답률은 성적(상 22.7%, 중 21.4%, 하 19.9%)이 높을수록 높게 확인되었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중 집단과 상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하 집단의 청소년보다 1순위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중 28.8%, 상 28.4%, 하 25.2%)는 의견과 2순위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중 21.7%, 상 21.5%, 하 20.7%)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7)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의 10가지 영역 중 향후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문화예술활동’(21.1%)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0%)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 ‘모험개척활동’(16.4%), ‘과학정보활동’(11.6%), ‘건강·보건활동’(9.7%)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청소년참여활동’(5.2%), ‘봉사활동’(5.0%), ‘자기(인성)계발활동’(4.7%), ‘교류활동’(3.6%), ‘환경보존활동’(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8】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모험개척활동’(21.7%), ‘과학정보활동’(17.8%),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17.5%)의 순으로, 여자 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31.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4.8%), ‘모험개척활동’(10.5%)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p < .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모험개척활동’(23.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16.5%), ‘문화예술활동’(15.2%) 순으로, 중학생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3.1%), ‘문화예술활동’(21.7%), ‘모험개척활동’(15.6%) 순으로, 고등학생

은 ‘문화예술활동’(25.0%),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2.5%), ‘모험개척활동’(11.9%) 순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p < .001$).

표 4-70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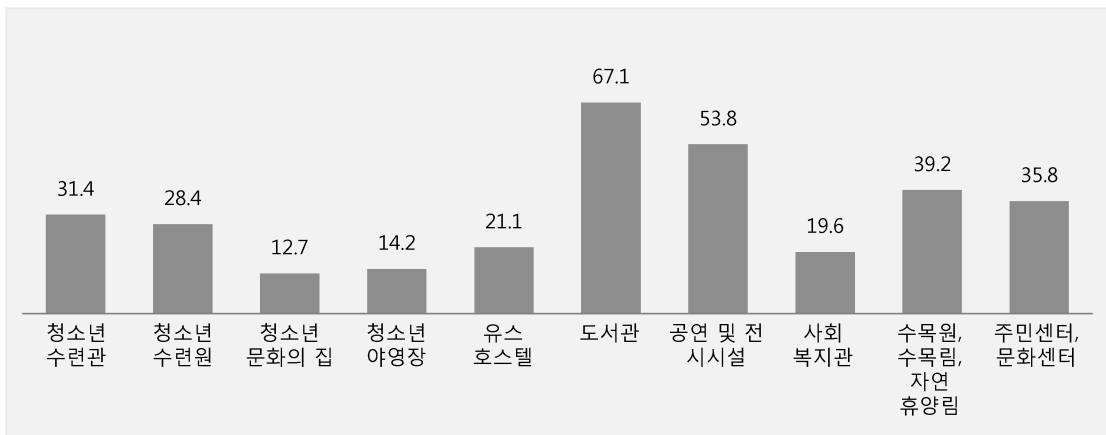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통계치
전체		9.7	11.6	3.6	16.4	21.1	5.0	21.0	1.7	4.7	5.2	100.0	—
성별	남자	11.9	17.8	3.1	21.7	11.2	4.4	17.5	2.2	5.0	5.2	100.0	$\chi^2=1255.709$ $p=0.000$
	여자	7.4	4.9	4.1	10.5	31.9	5.7	24.8	1.2	4.4	5.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2.0	14.7	1.2	23.2	15.2	5.5	16.5	3.0	2.2	6.4	100.0	$\chi^2=573.483$ $p=0.000$
	중학교	8.8	11.1	2.6	15.6	21.7	5.0	23.1	1.4	5.1	5.5	100.0	
	고등학교	8.9	9.6	6.3	11.9	25.0	4.7	22.5	1.0	6.2	3.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5	11.5	3.2	17.6	21.5	5.1	20.0	1.7	4.2	5.6	100.0	$\chi^2=41.085$ $p=0.001$
	중소도시	9.7	11.4	4.2	15.9	20.0	5.0	22.2	1.8	5.2	4.6	100.0	
	읍면지역	10.6	12.1	3.0	14.1	23.1	4.8	20.8	1.5	4.9	5.2	100.0	
학업성적	상	7.4	16.3	4.5	18.3	19.4	4.3	19.5	1.2	4.5	4.7	100.0	$\chi^2=226.710$ $p=0.000$
	중	10.3	10.8	3.3	16.3	20.8	5.0	21.4	2.2	4.6	5.3	100.0	
	하	11.8	6.9	2.8	13.7	24.1	6.0	22.4	1.6	5.1	5.5	100.0	
경제수준	상	9.7	13.5	3.8	18.2	19.1	4.7	20.2	1.5	4.0	5.3	100.0	$\chi^2=117.027$ $p=0.000$
	중	10.0	10.5	3.2	16.2	21.6	5.2	20.9	1.8	5.0	5.5	100.0	
	하	8.8	8.9	4.3	11.1	25.7	5.5	23.8	2.0	6.1	3.9	100.0	

① 건강·보건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봉사활동,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개발활동, ⑩ 청소년참여활동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문화예술활동’(대 21.5%, 읍 23.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대 20.0%, 읍 20.8%), ‘모험개척활동’(대 17.6%, 읍 14.1%) 순으로, 중소도시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2.2%), ‘문화예술활동’(20.0%), ‘모험개척활동’(15.9%) 순으로 응답하였다($p < .01$). 학업성적별로 보면, 중위권 이상의 청소년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상 19.5%, 중 21.4%), ‘문화예술활동’(상 19.4%, 중 20.8%), ‘모험개척활동’(상 18.3%, 중 16.3%)의 순으로, 하위권 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24.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2.4%), ‘모험개척활동’(13.7%)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의 경우,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0.2%), ‘문화예술활동’(19.1%), ‘모험개척활동’(18.2%)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중·하 집단은 ‘문화예술활동’(중 21.6%, 하 25.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중 20.9%, 하 23.8%), ‘모험개척활동’(중 16.2%, 하 11.1%)의 순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8)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의 이용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서관’ 이용률이 6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연 및 전시시설’이 53.8%,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이 39.2%, ‘주민센터, 문화센터’가 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청소년수련관’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원’(28.4%), ‘청소년문화의집’(12.7%), ‘청소년야영장’(14.2%), ‘청소년유스호스텔’(21.1%), ‘청소년수련원’(28.4%), ‘청소년유스호스텔’(21.1%), ‘청소년야영장’(14.2%), ‘청소년문화의집’(12.7%)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29】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4%로 전체 응답자의 1/3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68.6%의 청소년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34.7%), 고등학생(30.3%), 초등학생(28.9%)의 순으로($p < .0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38.9%)이 중소도시(30.3%)나 대도시(29.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p < .001$). 또한 학업성적(상 33.3%, 중 30.8%, 하 29.5%)이 높을수록($p < .01$), 가정의 경제수준(상 34.1%, 중 29.7%, 하 28.2%)이 높을수록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71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수련관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1.4	68.6	100.0	—
성별	남자	30.9	69.1	100.0	$\chi^2=1.603$ $p=0.206$
	여자	32.0	68.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8.9	71.1	100.0	$\chi^2=29.630$ $p=0.000$
	중학교	34.7	65.3	100.0	
	고등학교	30.3	69.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9.9	70.1	100.0	$\chi^2=47.691$ $p=0.000$
	중소도시	30.3	69.7	100.0	
	읍면지역	38.9	61.1	100.0	
학업성적	상	33.3	66.7	100.0	$\chi^2=10.918$ $p=0.004$
	중	30.8	69.2	100.0	
	하	29.5	70.5	100.0	
경제수준	상	34.1	65.9	100.0	$\chi^2=28.106$ $p=0.000$
	중	29.7	70.3	100.0	
	하	28.2	71.8	100.0	

(2)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수련원

전체 청소년의 28.4%는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71.6%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72〉).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이외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35.3%), 고등학생(26.9%), 초등학생(22.0%) 순으로 ($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5.1%), 대도시(29.2%), 중소도시(25.2%)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조사되었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30.5%, 중 27.8%, 하 26.8%)이 높을수록($p<.01$), 가정의 경제수준(상 30.9%, 중 27.0%, 하 25.0%)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고하였다($p<.001$).

표 4-72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수련원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8.4	71.6	100.0	—
성별	남자	28.5	71.5	100.0	$\chi^2=0.037$ $p=0.848$
	여자	28.4	71.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2.0	78.0	100.0	$\chi^2=146.591$ $p=0.000$
	중학교	35.3	64.7	100.0	
	고등학교	26.9	73.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9.2	70.8	100.0	$\chi^2=58.649$ $p=0.000$
	중소도시	25.2	74.8	100.0	
	읍면지역	35.1	64.9	100.0	
학업성적	상	30.5	69.5	100.0	$\chi^2=11.466$ $p=0.003$
	중	27.8	72.2	100.0	
	하	26.8	73.2	100.0	
경제수준	상	30.9	69.1	100.0	$\chi^2=26.487$ $p=0.000$
	중	27.0	73.0	100.0	
	하	25.0	75.0	100.0	

(3)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0%를 웃도는 수준(12.7%)이며,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은 87.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4-73〉).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과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14.0%)이 남자 청소년(11.6%)보다($p < .001$), 거주 지역의 규모(읍 18.3%, 중 13.0%, 대 10.6%)가 작을수록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표 4-73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2.7	87.3	100.0	—
성별	남자	11.6	88.4	100.0	$\chi^2=12.869$ $p=0.000$
	여자	14.0	86.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3.0	87.0	100.0	$\chi^2=1.700$ $p=0.427$
	중학교	13.2	86.8	100.0	
	고등학교	12.2	87.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0.6	89.4	100.0	$\chi^2=63.099$ $p=0.000$
	중소도시	13.0	87.0	100.0	
	읍면지역	18.3	81.7	100.0	
학업성적	상	12.8	87.2	100.0	$\chi^2=0.365$ $p=0.833$
	중	13.0	87.0	100.0	
	하	12.5	87.5	100.0	
경제수준	상	12.9	87.1	100.0	$\chi^2=0.595$ $p=0.743$
	중	12.7	87.3	100.0	
	하	12.2	87.8	100.0	

(4)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야영장

전체 청소년 중 14.2%만이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85.8%의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4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야영장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4.2	85.8	100.0	—
성별	남자	14.7	85.3	100.0	$\chi^2=2.031$ $p=0.154$
	여자	13.7	86.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8.4	81.6	100.0	$\chi^2=139.093$ $p=0.000$
	중학교	16.3	83.7	100.0	
	고등학교	9.1	90.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1.3	88.7	100.0	$\chi^2=74.522$ $p=0.000$
	중소도시	15.4	84.6	100.0	
	읍면지역	19.5	80.5	100.0	
학업성적	상	15.4	84.6	100.0	$\chi^2=32.666$ $p=0.000$
	중	15.3	84.7	100.0	
	하	10.9	89.1	100.0	
경제수준	상	16.8	83.2	100.0	$\chi^2=48.204$ $p=0.000$
	중	12.8	87.2	100.0	
	하	10.4	89.6	100.0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18.4%)과 중학생(16.3%)이 고등학생(9.1%)에 비해($p<.001$), 지역규모(읍 19.5%, 중 15.4%, 대 11.3%)가 작을수록 이용경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15.4%) 및 중위권(15.3%) 청소년이 하위권(10.9%)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16.8%, 중 12.8%, 하 10.4%)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고하였다($p<.001$).

(5)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의 이용률은 20% 정도(21.1%)이며, 80% 정도(78.9%)의 청소년들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24.0%)이 초등학교(19.8%)이나 고등학교(19.3%)보다($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24.7%), 대도시(21.4%), 중소도시(19.4%) 거주 청소년의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24.1%, 중 20.2%, 하 17.9%)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24.2%, 중 18.9%, 하 17.8%)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75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유스호스텔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21.1	78.9	100.0	—
성별	남자	20.8	79.2	100.0	$\chi^2=0.612$ $p=0.434$
	여자	21.4	78.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9.8	80.2	100.0	$\chi^2=29.494$ $p=0.000$
	중학교	24.0	76.0	100.0	
	고등학교	19.3	80.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1.4	78.6	100.0	$\chi^2=19.920$ $p=0.000$
	중소도시	19.4	80.6	100.0	
	읍면지역	24.7	75.3	100.0	
학업성적	상	24.1	75.9	100.0	$\chi^2=35.653$ $p=0.000$
	중	20.2	79.8	100.0	
	하	17.9	82.1	100.0	
경제수준	상	24.2	75.8	100.0	$\chi^2=48.347$ $p=0.000$
	중	18.9	81.1	100.0	
	하	17.8	82.2	100.0	

(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도서관

전체 응답자의 약 2/3에 해당(67.1%)하는 청소년은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1/3(32.9%)의 청소년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73.4%)이 남자 청소년(61.3%)보다($p<.001$), 학교급(초 71.6%, 중 66.6%, 고 64.1%)이 낮을수록($p<.001$), 거주 지역의 규모(읍 71.1%, 중 68.1%, 대 64.7%)가 작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p<.001$). 아울러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상 74.3%, 중 66.9%, 하 58.3%)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71.4%)이 중 집단(64.1%)이나 하 집단(62.9%)에 비해 이용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4-7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도서관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7.1	32.9	100.0	—
성별	남자	61.3	38.7	100.0	$\chi^2=172.177$ $p=0.000$
	여자	73.4	26.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1.6	28.4	100.0	$\chi^2=43.586$ $p=0.000$
	중학교	66.6	33.4	100.0	
	고등학교	64.1	35.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4.7	35.3	100.0	$\chi^2=24.824$ $p=0.000$
	중소도시	68.1	31.9	100.0	
	읍면지역	71.1	28.9	100.0	
학업성적	상	74.3	25.7	100.0	$\chi^2=171.820$ $p=0.000$
	중	66.9	33.1	100.0	
	하	58.3	41.7	100.0	
경제수준	상	71.4	28.6	100.0	$\chi^2=68.067$ $p=0.000$
	중	64.1	35.9	100.0	
	하	62.9	37.1	100.0	

(7)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공연 및 전시시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공연 및 전시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46.2%는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77〉). 여자 청소년(62.7%)이 남자 청소년(45.6%)보다($p<.001$), 학교급(초 58.0%, 중 53.0%, 고 51.3%)이 낮을수록($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57.2%), 대도시(54.8%), 중소도시(51.4%)의 순으로 공연 및 전시시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또한 학업성적(상 62.3%, 중 52.4%, 하 45.5%)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58.4%), 낮은(50.3%) 혹은 중간 수준(50.2%)일 때보다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77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공연 및 전시시설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3.8	46.2	100.0	—
성별	남자	45.6	54.4	100.0	$\chi^2=308.799$ $p=0.000$
	여자	62.7	37.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8.0	42.0	100.0	$\chi^2=31.124$ $p=0.000$
	중학교	53.0	47.0	100.0	
	고등학교	51.3	48.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4.8	45.2	100.0	$\chi^2=18.485$ $p=0.000$
	중소도시	51.4	48.6	100.0	
	읍면지역	57.2	42.8	100.0	
학업성적	상	62.3	37.7	100.0	$\chi^2=173.162$ $p=0.000$
	중	52.4	47.6	100.0	
	하	45.5	54.5	100.0	
경제수준	상	58.4	41.6	100.0	$\chi^2=68.635$ $p=0.000$
	중	50.2	49.8	100.0	
	하	50.3	49.7	100.0	

(8)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사회복지관

약 20%(19.6%)의 청소년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0.4%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대답하였다(표 4-78).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20.4%)의 이용률이 남자 청소년(18.9%)보다 높았고($p<.05$), 학교급(초 21.1%, 중 19.9%, 고 18.1%)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p<.01$). 거주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4.2%), 대도시(19.4%), 중소도시(18.1%)의 순으로($p<.001$),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상 21.9%, 중 19.1%, 하 17.2%)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22.0%), 하 집단(18.4%), 중 집단(17.5%)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78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사회복지관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19.6	80.4	100.0	—
성별	남자	18.9	81.1	100.0	$\chi^2=3.925$ $p=0.048$
	여자	20.4	79.6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1.1	78.9	100.0	$\chi^2=9.775$ $p=0.008$
	중학교	19.9	80.1	100.0	
	고등학교	18.1	81.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9.4	80.6	100.0	$\chi^2=27.708$ $p=0.000$
	중소도시	18.1	81.9	100.0	
	읍면지역	24.2	75.8	100.0	
학업성적	상	21.9	78.1	100.0	$\chi^2=21.619$ $p=0.000$
	중	19.1	80.9	100.0	
	하	17.2	82.8	100.0	
경제수준	상	22.0	78.0	100.0	$\chi^2=30.572$ $p=0.000$
	중	17.5	82.5	100.0	
	하	18.4	81.6	100.0	

(9)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을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은 약 40%(39.2%)로 확인되었으며, 60.8%는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9>).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42.5%)이 남자 청소년(36.2%)보다 ($p<.001$), 학교급(초 55.3%, 중 35.7%, 고 30.5%)이 낮을수록($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44.3%), 대도시(39.1%), 중소도시(37.6%)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p<.001$). 또한 학업성적(상 46.4%, 중 39.0%, 하 30.4%)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45.6%, 중 35.5%, 하 30.7%)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4-79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9.2	60.8	100.0	—
성별	남자	36.2	63.8	100.0	$\chi^2=44.059$ $p=0.000$
	여자	42.5	57.5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5.3	44.7	100.0	$\chi^2=462.698$ $p=0.000$
	중학교	35.7	64.3	100.0	
	고등학교	30.5	69.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39.1	60.9	100.0	$\chi^2=21.963$ $p=0.000$
	중소도시	37.6	62.4	100.0	
	읍면지역	44.3	55.7	100.0	
학업성적	상	46.4	53.6	100.0	$\chi^2=158.946$ $p=0.000$
	중	39.0	61.0	100.0	
	하	30.4	69.6	100.0	
경제수준	상	45.6	54.4	100.0	$\chi^2=147.722$ $p=0.000$
	중	35.5	64.5	100.0	
	하	30.7	69.3	100.0	

(10)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주민센터, 문화센터

주민센터, 문화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3을 상회하는 수준인 35.8%이며, 이용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38.6%)이 남자 청소년(33.2%)보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44.5%)이 중학생(33.3%)이나 고등학생(31.5%)보다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그리고 거주 지역의 규모(대 37.2%, 중 35.3%, 읍 32.9%)가 클수록($p<.01$), 학업성적(상 40.1%, 중 35.7%, 하 30.3%)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38.2%) 혹은 낮은 경우(37.0%), 중간 수준(32.9%)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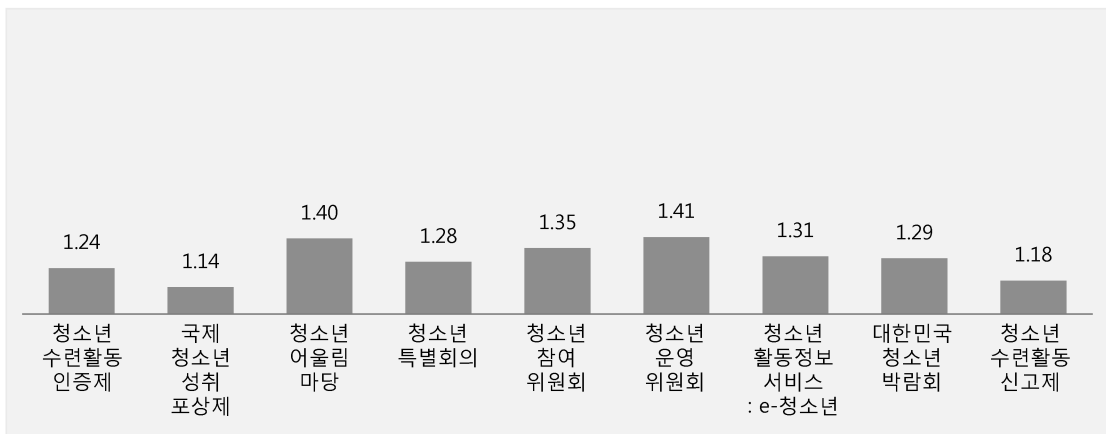
표 4-80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주민센터, 문화센터

(단위: %)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5.8	64.2	100.0	—
성별	남자	33.2	66.8	100.0	$\chi^2=32.956$ $p=0.000$
	여자	38.6	61.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4.5	55.5	100.0	$\chi^2=138.949$ $p=0.000$
	중학교	33.3	66.7	100.0	
	고등학교	31.5	68.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37.2	62.8	100.0	$\chi^2=9.894$ $p=0.007$
	중소도시	35.3	64.7	100.0	
	읍면지역	32.9	67.1	100.0	
학업성적	상	40.1	59.9	100.0	$\chi^2=62.043$ $p=0.000$
	중	35.7	64.3	100.0	
	하	30.3	69.7	100.0	
경제수준	상	38.2	61.8	100.0	$\chi^2=29.459$ $p=0.000$
	중	32.9	67.1	100.0	
	하	37.0	63.0	100.0	

9) 청소년정책 인지도

청소년들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9가지 청소년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3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의 인지수준은 평균 1.18~1.41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M=1.41)와 ‘청소년어울림마당’(M=1.40)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나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M=1.3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M=1.31),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M=1.29), ‘청소년특별회의’(M=1.2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M=1.2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M=1.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M=1.1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0】 청소년정책 인지도

(1)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지도는 평균 1.24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 결과,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M=1.26)이 남자 청소년(M=1.23)보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M=1.27)와 중학생(M=1.25)이 고등학생(M=1.21)보다($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M=1.28)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M=1.24)나 중소도시(M=1.23) 거주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1$). 학업성적별로 보면, 상위권(M=1.27) 청소년이 중위권(M=1.24)이나 하위권(M=1.21)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M=1.27)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M=1.22)·하 집단(M=1.21)의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4-81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24	.47	—	—
성별	남자	1.23	.46	$t=-3.871$ $p=0.000$	—
	여자	1.26	.48		
학교급	초등학교 ^a	1.27	.49	$F=14.419$ $p=0.000$	a,b>c
	중학교 ^b	1.25	.48		
	고등학교 ^c	1.21	.45		
지역규모	대도시 ^a	1.24	.47	$F=4.893$ $p=0.008$	c>a,b
	중소도시 ^b	1.23	.46		
	읍면지역 ^c	1.28	.51		
학업성적	상 ^a	1.27	.50	$F=10.251$ $p=0.000$	a>b,c
	중 ^b	1.24	.47		
	하 ^c	1.21	.44		
경제수준	상 ^a	1.27	.49	$F=18.149$ $p=0.000$	a>b,c
	중 ^b	1.22	.46		
	하 ^c	1.21	.45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2) 청소년정책인지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1.14이며,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82〉).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M=1.15)이 여자 청소년(M=1.13)보다($p<.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M=1.16)와 중학생(M=1.15)이 고등학생(M=1.12)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p<.001$). 지역규모의 경우, 읍면지역(M=1.17)의 청소년이 중소도시(M=1.13)의 청소년보다($p<.05$),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상 1.16, 중 1.14, 하 1.12)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M=1.16)의 청소년이 중(M=1.13)·하 집단(M=1.12)의 청소년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표 4-82 청소년정책인지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14	.38	—	—
성별	남자	1.15	.40	$t=2.710$ $p=0.007$	—
	여자	1.13	.37		
학교급	초등학교 ^a	1.16	.40	$F=8.481$ $p=0.000$	a,b>c
	중학교 ^b	1.15	.39		
	고등학교 ^c	1.12	.37		
지역규모	대도시	1.14	.38	$F=4.479$ $p=0.011$	b>a
	중소도시 ^a	1.13	.38		
	읍면지역 ^b	1.17	.41		
학업성적	상 ^a	1.16	.42	$F=11.346$ $p=0.000$	a>b>c
	중 ^b	1.14	.37		
	하 ^c	1.12	.35		
경제수준	상 ^a	1.16	.41	$F=12.477$ $p=0.000$	a>b,c
	중 ^b	1.13	.36		
	하 ^c	1.12	.39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3)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인지도는 다음 <표 4-83>과 같이 평균 1.40이며, 학교급과 학업성적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1.47)이 남자 청소년(M=1.33)보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는 읍면지역(M=1.47)이 중소도시(M=1.40)나 대도시(M=1.38)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M=1.42)이 중 집단(M=1.39)보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5$).

표 4-83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어울림마당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40	.58	—	—
성별	남자	1.33	.54	$t=-12.782$ $p=0.000$	—
	여자	1.47	.60		
학교급	초등학교	1.40	.58	$F=0.457$ $p=0.633$	
	중학교	1.41	.56		
	고등학교	1.40	.58		
지역규모	대도시 ^a	1.38	.56	$F=15.827$ $p=0.000$	c>a,b
	중소도시 ^b	1.40	.58		
	읍면지역 ^c	1.47	.61		
학업성적	상	1.40	.58	$F=0.330$ $p=0.719$	
	중	1.40	.57		
	하	1.41	.57		
경제수준	상 ^a	1.42	.59	$F=4.222$ $p=0.015$	a>b
	중 ^b	1.39	.57		
	하	1.38	.56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4)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인지도 평균 점수는 1.28로 조사되었다(〈표 4-84〉).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M=1.30)이 남자 청소년(M=1.26)보다($p<.001$), 학교급(초 1.37, 중 1.28, 고 1.21)이 낮을수록($p<.001$), 읍면지역(M=1.31) 청소년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M=1.27)의 청소년보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M=1.29)과 중위권(M=1.28)이 하위권(M=1.24)보다($p<.01$), 가정의 경제수준(상 1.32, 중 1.25, 하 1.21)이 높을수록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해 더욱 잘 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4-84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특별회의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28	.50	—	—
성별	남자	1.26	.49	$t=-3.844$ $p=0.000$	—
	여자	1.30	.51		
학교급	초등학교 ^a	1.37	.56	$F=86.181$ $p=0.000$	a>b>c
	중학교 ^b	1.28	.50		
	고등학교 ^c	1.21	.44		
지역규모	대도시 ^a	1.27	.50	$F=4.234$ $p=0.015$	c>a,b
	중소도시 ^b	1.27	.50		
	읍면지역 ^c	1.31	.52		
학업성적	상 ^a	1.29	.52	$F=7.566$ $p=0.001$	a,b>c
	중 ^b	1.28	.50		
	하 ^c	1.24	.47		
경제수준	상 ^a	1.32	.54	$F=34.941$ $p=0.000$	a>b>c
	중 ^b	1.25	.47		
	하 ^c	1.21	.45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5)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인지도는 평균 1.35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M=1.40)이 남자 청소년(M=1.30)보다($p<.001$), 학교급(초 1.41, 중 1.34, 고 1.31)이 낮을수록($p<.001$), 읍면지역(M=1.42)에 사는 청소년이 중소도시(M=1.34)나 대도시(M=1.33)에 사는 청소년보다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M=1.37)과 중위권(M=1.36) 청소년이 하위권(M=1.31)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1.38, 중 1.33, 하 1.29)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표 4-85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35	.54	—	—
성별	남자	1.30	.52	$t=-9.177$ $p=0.000$	—
	여자	1.40	.56		
학교급	초등학교 ^a	1.41	.58	$F=31.610$ $p=0.000$	a>b>c
	중학교 ^b	1.34	.53		
	고등학교 ^c	1.31	.52		
지역규모	대도시 ^a	1.33	.53	$F=15.475$ $p=0.000$	c>a,b
	중소도시 ^b	1.34	.54		
	읍면지역 ^c	1.42	.58		
학업성적	상 ^a	1.37	.56	$F=9.468$ $p=0.000$	a,b>c
	중 ^b	1.36	.54		
	하 ^c	1.31	.51		
경제수준	상 ^a	1.38	.57	$F=20.547$ $p=0.000$	a>b>c
	중 ^b	1.33	.53		
	하 ^c	1.29	.49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6)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인지도는 평균 1.41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M=1.47)이 남자 청소년(M=1.35)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1.43)과 초등학교생(M=1.42)이 고등학교생(M=1.38)보다($p<.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M=1.49)이 중소도시(M=1.41)나 대도시(M=1.38)보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업성적의 경우, 중·상위권(M=1.42)이 하위권(M=1.38)보다($p<.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M=1.44)이 중(M=1.39)·하 집단(M=1.37)보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 더욱 잘 아는 것으로 응답하였다($p<.001$).

표 4-86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운영위원회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41	.57	—	—
성별	남자	1.35	.55	$t=-10.973$ $p=0.000$	—
	여자	1.47	.58		
학교급	초등학교 ^a	1.42	.58	$F=6.800$ $p=0.001$	a,b>c
	중학교 ^b	1.43	.57		
	고등학교 ^c	1.38	.56		
지역규모	대도시 ^a	1.38	.55	$F=19.303$ $p=0.000$	c>a,b
	중소도시 ^b	1.41	.57		
	읍면지역 ^c	1.49	.61		
학업성적	상 ^a	1.42	.59	$F=5.764$ $p=0.003$	a,b>c
	중 ^b	1.42	.57		
	하 ^c	1.38	.55		
경제수준	상 ^a	1.44	.60	$F=14.529$ $p=0.000$	a>b,c
	중 ^b	1.39	.55		
	하 ^c	1.37	.54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7)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의 인지도 평균은 1.31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업 성적 이외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표 4-87〉).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M=1.32)이 남자 청소년(M=1.29)보다($p<.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M=1.35)와 중학생(M=1.32)이 고등학생(M=1.26)보다($p<.0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M=1.34)이 중소도시(M=1.29)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p<.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상 1.33, 중 1.30, 하 1.26)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수준을 보였다($p<.001$).

표 4-87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31	.53	—	—
성별	남자	1.29	.52	t=-2.735 p=0.006	—
	여자	1.32	.53		
학교급	초등학교 ^a	1.35	.56	F=25.981 p=0.000	a,b>c
	중학교 ^b	1.32	.53		
	고등학교 ^c	1.26	.48		
지역규모	대도시	1.31	.53	F=5.481 p=0.004	b>a
	중소도시 ^a	1.29	.51		
	읍면지역 ^b	1.34	.55		
학업성적	상	1.29	.54	F=1.798 p=0.166	
	중	1.32	.53		
	하	1.31	.51		
경제수준	상 ^a	1.33	.55	F=10.974 p=0.000	a>b>c
	중 ^b	1.30	.51		
	하 ^c	1.26	.48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8) 청소년정책인지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는 3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1.29로 나타났다(〈표 4-88〉). 일반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규모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다.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M=1.32)이 남자 청소년(M=1.27)보다($p<.001$), 학교급(초 1.37, 중 1.29, 고 1.24)이 낮을수록 높은 인지도를 보고하였다($p<.001$). 학업성적별로는 상위권(M=1.31)과 중위권(M=1.30) 청소년이 하위권(M=1.26)에 해당하는 청소년보다($p<.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상 1.33, 중 1.28, 하 1.23)이 높을수록 대한 민국 청소년박람회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88 청소년정책인지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29	.51	—	—
성별	남자	1.27	.50	$t=-4.818$ $p=0.000$	—
	여자	1.32	.53		
학교급	초등학교 ^a	1.37	.57	$F=56.122$ $p=0.000$	a)b)c
	중학교 ^b	1.29	.50		
	고등학교 ^c	1.24	.48		
지역규모	대도시	1.29	.51	$F=1.805$ $p=0.165$	
	중소도시	1.29	.51		
	읍면지역	1.32	.53		
학업성적	상 ^a	1.31	.54	$F=6.999$ $p=0.001$	a,b)c
	중 ^b	1.30	.51		
	하 ^c	1.26	.49		
경제수준	상 ^a	1.33	.54	$F=25.790$ $p=0.000$	a)b)c
	중 ^b	1.28	.50		
	하 ^c	1.23	.46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9)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의 인지도 평균 점수는 1.18이며, 성별을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89〉).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M=1.22)과 중학생(M=1.20)이 고등학생(M=1.13)보다($p < .001$),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M=1.22)이 대도시(M=1.18) 및 중소도시(M=1.16)보다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권(M=1.19)이 하위권(M=1.16)보다($p < .05$),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M=1.20)이 중(M=1.16)·하 집단(M=1.13)보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에 대해 더욱 잘 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표 4-89 청소년정책인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1.18	.42	—	—
성별	남자	1.18	.43	$t=1.760$ $p=0.078$	—
	여자	1.17	.41		
학교급	초등학교 ^a	1.22	.47	$F=37.881$ $p=0.000$	a,b>c
	중학교 ^b	1.20	.44		
	고등학교 ^c	1.13	.37		
지역규모	대도시 ^a	1.18	.42	$F=12.899$ $p=0.000$	c>a,b
	중소도시 ^b	1.16	.40		
	읍면지역 ^c	1.22	.47		
학업성적	상 ^a	1.19	.45	$F=3.454$ $p=0.032$	a>b
	중	1.18	.42		
	하 ^b	1.16	.40		
경제수준	상 ^a	1.20	.46	$F=19.420$ $p=0.000$	a>b,c
	중 ^b	1.16	.40		
	하 ^c	1.13	.37		

1)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3. 정의적 특성

1) 자아존중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58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표 4-90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58	.68	—	—
성별	남자	3.62	.67	t=5.489 p=0.000	—
	여자	3.55	.68		
학교급	초등학교 ^a	3.72	.68	F=95.781 p=0.000	a>b>c
	중학교 ^b	3.56	.67		
	고등학교 ^c	3.50	.66		
지역규모	대도시 ^a	3.61	.68	F=5.187 p=0.006	a>b
	중소도시	3.57	.67		
	읍면지역 ^b	3.55	.67		
학업성적	상 ^a	3.87	.64	F=644.626 p=0.000	a>b>c
	중 ^b	3.55	.62		
	하 ^c	3.28	.66		
경제수준	상 ^a	3.78	.65	F=442.584 p=0.000	a>b>c
	중 ^b	3.51	.64		
	하 ^c	3.23	.68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표 4-90〉과 같이, 남자 청소년(M=3.62)이 여자 청소년(M=3.55)보다($p<.001$), 학교급(초 3.72, 중 3.56, 고 3.50)이 낮을수록($p<.001$), 대도시(M=3.61)의 청소년이 읍면지역(M=3.55)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p<.01$). 또한 학업성적(상 3.87, 중 3.55, 하 3.28)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3.78, 중 3.51, 하 3.23)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p<.001$).

2) 진로성숙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평균 3.64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M=3.65)이 남자 청소년(M=3.62)보다($p<.05$),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M=3.73)이 고등학생(M=3.60)과 중학생(M=3.59)에 비해 진로성숙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상 3.77, 중 3.61, 하 3.52)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3.72, 중 3.59, 하 3.52)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91 진로성숙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64	.75	—	—
성별	남자	3.62	.77	$t=-2.436$ $p=0.015$	—
	여자	3.65	.74		
학교급	초등학교 ^a	3.73	.76	$F=34.658$ $p=0.000$	a)b,c
	중학교 ^b	3.59	.74		
	고등학교 ^c	3.60	.76		
지역규모	대도시	3.65	.76	$F=0.888$ $p=0.412$	
	중소도시	3.62	.75		
	읍면지역	3.63	.75		
학업성적	상 ^a	3.77	.76	$F=90.655$ $p=0.000$	a)b)c
	중 ^b	3.61	.73		
	하 ^c	3.52	.76		
경제수준	상 ^a	3.72	.76	$F=57.592$ $p=0.000$	a)b)c
	중 ^b	3.59	.74		
	하 ^c	3.52	.7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3)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82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별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청소년($M=3.89$)이 여자 청소년($M=3.76$)보다($p<.001$), 학교급(초 4.02, 중 3.83, 고 3.67)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M=3.85$)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M=3.81$)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주관적 행복감 수준을 보였으며($p<.05$), 학업성적(상 4.07, 중 3.80, 하 3.55)이 높을수록($p<.001$), 가정의 경제수준(상 4.03, 중 3.74, 하 3.43)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을 보고하였다($p<.001$).

표 4-92 주관적 행복감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82	.74	—	—
성별	남자	3.89	.74	$t=9.073$ $p=0.000$	—
	여자	3.76	.73		
학교급	초등학교 ^a	4.02	.72	$F=201.143$ $p=0.000$	a>b>c
	중학교 ^b	3.83	.74		
	고등학교 ^c	3.67	.71		
지역규모	대도시 ^a	3.85	.74	$F=3.872$ $p=0.021$	a>b
	중소도시 ^b	3.81	.73		
	읍면지역	3.81	.75		
학업성적	상 ^a	4.07	.70	$F=392.949$ $p=0.000$	a>b>c
	중 ^b	3.80	.70		
	하 ^c	3.55	.74		
경제수준	상 ^a	4.03	.70	$F=448.566$ $p=0.000$	a>b>c
	중 ^b	3.74	.71		
	하 ^c	3.43	.7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4) 리더십생활기술

청소년들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은 평균 3.54로 조사되었으며, 성별, 학교급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93).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M=3.59)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M=3.51)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또한 학업성적(상 3.80, 중 3.48, 하 3.33)이 높을수록($p < .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3.71, 중 3.44, 하 3.35)이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 4-93 리더십생활기술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54	.62	—	—
성별	남자	3.54	.65	$t=-1.338$ $p=0.181$	—
	여자	3.55	.59		
학교급	초등학교	3.52	.69	$F=2.034$ $p=0.131$	
	중학교	3.55	.62		
	고등학교	3.55	.56		
지역규모	대도시 ^a	3.59	.62	$F=19.973$ $p=0.000$	a>b,c
	중소도시 ^b	3.51	.61		
	읍면지역 ^c	3.51	.63		
학업성적	상 ^a	3.80	.60	$F=527.954$ $p=0.000$	a>b>c
	중 ^b	3.48	.58		
	하 ^c	3.33	.60		
경제수준	상 ^a	3.71	.62	$F=317.961$ $p=0.000$	a>b>c
	중 ^b	3.44	.58		
	하 ^c	3.35	.59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4.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94〉). 즉, 참여 청소년($M=3.59$)이 비참여 청소년($M=3.42$)보다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높게 확인되었으며($p<.001$),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도 참여 청소년($M=3.64$)이 비참여 청소년($M=3.5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p<.05$). 아울러 주관적 행복감(참여 3.83, 비참여 3.53),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55, 비참여 3.24) 수준도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94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59	.67	$t=3.999$ $p=.000$
	비참여 청소년	3.42	.70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4	.75	$t=2.460$ $p=.014$
	비참여 청소년	3.52	.79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83	.74	$t=6.790$ $p=.000$
	비참여 청소년	3.53	.78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55	.62	$t=8.360$ $p=.000$
	비참여 청소년	3.24	.7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2)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이 최근 1년간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진로성숙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참여 3.59, 비참여 3.49), 주관적 행복감(참여 3.84, 비참여 3.64),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55, 비참여 3.40)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표 4-95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59	.68	t=3.894 p=.000
	비참여 청소년	3.49	.66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4	.75	t=1.258 p=.208
	비참여 청소년	3.60	.78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84	.73	t=6.647 p=.000
	비참여 청소년	3.64	.77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55	.62	t=6.334 p=.000
	비참여 청소년	3.40	.67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3)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모형 및 로봇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최근 1년 동안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따른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참여 3.64, 비참여 3.52), 진로성숙도(참여 3.67, 비참여 3.60), 주관적 행복감(참여 3.89, 비참여 3.74),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59, 비참여 3.49)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 4-96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4	.67	t=9.478 p=.000
	비참여 청소년	3.52	.68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7	.75	t=4.503 p=.000
	비참여 청소년	3.60	.76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89	.73	t=10.447 p=.000
	비참여 청소년	3.74	.74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59	.62	t=9.063 p=.000
	비참여 청소년	3.49	.6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3) 교류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표 4-97 교류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8	.67	t=8.565 p=.000
	비참여 청소년	3.55	.68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9	.76	t=4.088 p=.000
	비참여 청소년	3.62	.75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94	.73	t=9.450 p=.000
	비참여 청소년	3.78	.74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64	.63	t=9.303 p=.000
	비참여 청소년	3.51	.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최근 1년 동안의 교류활동 참여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4-97).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참여 3.68, 비참여 3.55), 진로성숙도(참여 3.69, 비참여 3.62), 주관적 행복감(참여 3.94, 비참여 3.78),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64, 비참여 3.51)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4)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극기훈련활동 등 최근 1년간 모험개척활동의 참여여부와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험개척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참여 3.64, 비참여 3.52), 진로성숙도(참여 3.66, 비참여 3.60), 주관적 행복감(참여 3.91, 비참여 3.72),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60, 비참여 3.47)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p < .001$).

표 4-98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4	.67	t=9.114 p=.000
	비참여 청소년	3.52	.68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6	.75	t=4.530 p=.000
	비참여 청소년	3.60	.76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91	.72	t=13.245 p=.000
	비참여 청소년	3.72	.74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60	.62	t=10.581 p=.000
	비참여 청소년	3.47	.6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5)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여부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표 4-99〉),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문화예술활동 참여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참여 3.62, 비참여 3.46), 진로성숙도(참여 3.66, 비참여 3.53), 주관적 행복감(참여 3.87, 비참여 3.66),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59, 비참여 3.38)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p < .001$).

표 4-99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2	.67	t=9.882 p=.000
	비참여 청소년	3.46	.67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6	.75	t=7.158 p=.000
	비참여 청소년	3.53	.77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87	.73	t=11.112 p=.000
	비참여 청소년	3.66	.76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59	.60	t=13.623 p=.000
	비참여 청소년	3.38	.6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6) 봉사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재능기부활동 등 최근 1년 동안의 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M=3.62$)이 비참여 청소년($M=3.55$)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도 참여 청소년($M=3.66$)이 비참여 청소년($M=3.61$)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p<.01$). 아울러 주관적 행복감(참여 3.87, 비참여 3.77),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62, 비참여 3.45) 평균도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표 4-100 봉사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2	.67	$t=5.261$ $p=.000$
	비참여 청소년	3.55	.68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6	.75	$t=3.027$ $p=.002$
	비참여 청소년	3.61	.76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87	.72	$t=7.216$ $p=.000$
	비참여 청소년	3.77	.75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62	.59	$t=14.627$ $p=.000$
	비참여 청소년	3.45	.64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최근 1년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여부와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참여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참여 3.62, 비참여 3.52), 진로성숙도(참여 3.66, 비참여 3.60), 주관적 행복감(참여 3.86, 비참여 3.76),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61, 비참여 3.42)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표 4-10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2	.67	t=7.272 p=.000
	비참여 청소년	3.52	.67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6	.74	t=3.739 p=.000
	비참여 청소년	3.60	.78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86	.72	t=6.376 p=.000
	비참여 청소년	3.76	.76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61	.59	t=14.725 p=.000
	비참여 청소년	3.42	.66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8)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표 4-102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6	.67	t=9.772 p=.000
	비참여 청소년	3.53	.67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8	.74	t=5.704 p=.000
	비참여 청소년	3.60	.76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94	.72	t=13.535 p=.000
	비참여 청소년	3.74	.74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63	.63	t=12.568 p=.000
	비참여 청소년	3.48	.61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이 최근 1년간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4-102).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참여 3.66, 비참여 3.53), 진로성숙도(참여 3.68, 비참여 3.60), 주관적 행복감(참여 3.94, 비참여 3.74),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63, 비참여 3.48)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9)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최근 1년간 자기(인성)계발활동의 경험여부에 따른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참여 3.65, 비참여 3.54), 진로성숙도(참여 3.68, 비참여 3.60), 주관적 행복감(참여 3.90, 비참여 3.77),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66, 비참여 3.47)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 4-103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5	.67	t=8.919 p=.000
	비참여 청소년	3.54	.68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8	.75	t=5.321 p=.000
	비참여 청소년	3.60	.76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90	.72	t=9.332 p=.000
	비참여 청소년	3.77	.74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66	.59	t=15.732 p=.000
	비참여 청소년	3.47	.63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10) 청소년참여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참여활동 참여경험에 따른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 이외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표 4-104〉). 구체적으로,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참여 3.65, 비참여 3.57), 주관적 행복감(참여 3.92, 비참여 3.81), 리더십생활기술(참여 3.71, 비참여 3.51)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104 청소년참여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자아존중감	참여 청소년	3.65	.68	t=4.029 p=.000
	비참여 청소년	3.57	.67	
진로성숙도	참여 청소년	3.66	.76	t=1.398 p=.162
	비참여 청소년	3.63	.75	
주관적 행복감	참여 청소년	3.92	.75	t=5.735 p=.000
	비참여 청소년	3.81	.73	
리더십생활기술	참여 청소년	3.71	.60	t=11.514 p=.000
	비참여 청소년	3.51	.62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5. 소 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97.4%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역별로는 ‘건강·보건활동’(93.7%), ‘문화예술활동’(79.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3.8%), ‘모험개척활동’(55.7%), ‘봉사활동’(55.4%), ‘과학정보활동’(53.6%), ‘환경보존활동’(42.4%), ‘자기(인성)계발활동’(41.3%), ‘교류활동’(25.5%), ‘청소년참여활동’(15.3%)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M=3.32$)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형태는 과반 수 이상이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했으며, 참여한 경로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은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모험개척활동’, ‘과학정보활동’, ‘건강·보건활동’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중 ‘도서관’ 이용률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청소년수련관’ 31.4%, ‘청소년수련원’ 28.4%, ‘청소년유스호스텔’ 21.1%, ‘청소년야영장’ 14.2%, ‘청소년문화의집’ 12.7%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 기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위영역별로도 참여 청소년과 비참여 청소년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 V 장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 결

제 5 장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학계전문가 10명, 현장전문가 12명, 관계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차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 · 회수하였다.

1)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개방형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활동 정의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과 청소년활동의 향후 개념 정의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인증수련활동 9가지 영역(여성가족부, 2014a)이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과 추가 · 변경이 필요한 영역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여 청소년의 측면,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의 측면,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측면, 기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셋째,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여 청소년의 측면,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의 측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측면, 제도적·정책적 측면, 기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2) 제2차 전문가 의견조사

2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만들고, 각각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와 추가의견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의정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

1)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1)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참여 청소년 측면

전문가들에게 참여 청소년의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관련된 7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간부족을 평균 4.28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M=4.08),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동기 부족’(M=4.00),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M=3.84), ‘청소년활동 시설·장비·공간의 부족’(M=3.7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보상 부족’은 평균 3.32, ‘참가비용의 부담’은 평균 2.80으로 다른 문제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표 5-1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참여 청소년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간부족	4.28	.68	1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4.08	.70	2
참가비용의 부담	2.80	.76	7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3.84	.75	4
청소년활동 시설·장비·공간의 부족	3.72	.74	5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동기 부족	4.00	.82	3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보상 부족	3.32	.95	6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참여 청소년 측면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M=4.52),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입시부담 완화’(M=4.40),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M=4.28),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M=4.20),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M=4.16), ‘청소년, 부모 등에게 청소년활동 이해교육’(M=4.12), ‘다양한 청소년활동 홍보방안 마련’(M=4.0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청소년활동 참여 인센티브 부여’(M=3.60)와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M=3.32)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 청소년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입시부담 완화	4.40	.65	2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	4.20	.65	4
다양한 청소년활동 홍보방안 마련	4.00	.82	7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	3.32	.90	9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28	.68	3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4.16	.85	5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4.52	.65	1
청소년, 부모 등에게 청소년활동 이해교육	4.12	.67	6
청소년활동 참여 인센티브 부여	3.60	.91	8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2)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 참여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평균 4.48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했다. 다음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여건 미흡’(M=4.28), ‘운영기관의 열악한 재정상태’(M=4.24),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 낮은 인식과 홍보부족’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M=4.12), ‘청소년육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M=3.88), ‘청소년활동시설의 낮은 접근성’(M=3.84), ‘청소년지도자 부족’(M=3.80), ‘신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미흡’(M=3.76) 순으로 대답했다. 장애요인들의 평균은 3.76~4.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3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여건 미흡	4.28	.74	2
신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미흡	3.76	.88	9
청소년육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	3.88	.83	6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4.48	.59	1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 낮은 인식과 홍보부족	4.12	.73	4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	4.12	.67	4
운영기관의 열악한 재정상태	4.24	.88	3
청소년지도자 부족	3.80	.91	8
청소년활동시설의 낮은 접근성	3.84	.62	7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와 관련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시된 모든 항목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표 5-4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강화	4.12	.83	6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4.04	.79	9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4.44	.77	2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4.08	.76	8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4.28	.68	4
청소년지도자 충원	4.12	.67	6
재정지원 확대	4.52	.51	1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4.36	.91	3
특성화·전문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28	.94	4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구체적으로 ‘재정지원 확대’(M=4.5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M=4.44),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M=4.36),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특성화·전문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28),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강화’ 및 ‘청소년지도자 충원’(M=4.12),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M=4.08),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M=4.04) 순으로 필요하다고 반응했다(<표 5-4>).

(3)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M=4.64)를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협조 부족’(M=4.20), ‘청소년활동의 홍보·정보부족’(M=4.12), ‘청소년활동 장소부족 및 낮은 접근성’과 ‘가족,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부족’(M=4.04) 순으로 응답했다.

표 5-5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4.64	.49	1
청소년활동의 홍보·정보부족	4.12	.78	4
청소년활동 장소부족 및 낮은 접근성	4.04	.61	5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4.64	.57	1
학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협조 부족	4.20	.65	3
가족,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부족	4.04	.79	5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M=4.56),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M=4.40), ‘접근성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확대’(M=4.32), ‘가정·학교·지역사회 대상 청소년활동의 홍보활성화 및 정보제공’(M=4.24), ‘가족, 학교,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1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표 5-6>).

표 5-6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4.56	.58	1
가정, 학교, 지역사회 대상 청소년활동의 홍보활성화 및 정보제공	4.24	.66	4
접근성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확대	4.32	.69	3
가족, 학교,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12	.73	5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	4.40	.71	2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2)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1)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측면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과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역할·기능 미흡’을 각각 평균 4.76, 4.72로 높게 평가했다.

표 5-7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	4.76	.44	1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역할·기능 미흡	4.72	.46	2
비효율적인 청소년행정전달체계	4.28	.68	9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미흡	4.56	.51	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미비	4.32	.80	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미흡	4.44	.71	6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 및 전문성 부족	4.60	.76	3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약화	4.56	.71	4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 부재	4.16	.85	11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4.44	.71	6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활동정책의 편차	4.20	.76	10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집중된 청소년활동정책	3.76	.97	12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다음으로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 및 전문성 부족’(M=4.60),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미흡’ 및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약화’(M=4.5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미흡’ 및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M=4.4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미비’(M=4.32), ‘비효율적인 청소년행정전달체계’(M=4.28),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활동정책의 편차’(M=4.20),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 부재’(M=4.16),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집중된 청소년활동정책’(M=3.76) 순으로 응답한 모든 항목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문제점을 인식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필요한 정책으로는 제시한 11개 항목 모두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M=4.6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M=4.60)가 우선적으로 지목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M=4.52),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정책 강화’, ‘청소년활동관련법의 합리적 개정’(M=4.4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전담부서 설치’ 및 ‘청소년활동정책 이슈화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강화’(M=4.44),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 수립’(M=4.36), ‘청소년행정전달체계 개선’(M=4.32), ‘청소년활동 관련 평가 시스템 개선 및 강화’(M=4.0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4.64	.57	1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	4.60	.82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전담부서 설치	4.44	.82	7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	4.52	.77	3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4.48	.59	4
청소년행정전달체계 개선	4.32	.85	10
청소년활동정책 이슈화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강화	4.44	.71	7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 수립	4.36	.76	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정책 강화	4.48	.65	4
청소년활동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4.48	.65	4
청소년활동 관련 평가 시스템 개선 및 강화	4.04	.84	11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2)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측면

청소년기관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먼저, 청소년기관의 문제점으로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과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가 각각 평균 4.2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서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의 현장성 부족’(M=4.16),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모호’(M=4.08),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M=4.00),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기능 모호’(M=3.88)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88~4.20의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표 5-9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청소년기관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모호	4.08	.95	4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기능 모호	3.88	.73	6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	4.00	.87	5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	4.20	.91	1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	4.20	.76	1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의 현장성 부족	4.16	.62	3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다음으로 청소년기관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도 평균 3.80~4.44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과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가 평균 4.4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의 현장성 강화’가 각각 평균 4.24, ‘관련단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와의 연계·협력 강화’가 평균 4.08, ‘시·군·구 단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이 평균 3.80으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5-10 청소년활동정책의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기관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4.44	.58	1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4.24	.66	3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4.44	.65	1
관련단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와의 연계·협력 강화	4.08	.76	5
시·군·구 단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3.80	1.26	6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의 현장성 강화	4.24	.66	3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3)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수련시설 측면

전문가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정책의 문제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을 평균 4.52로 가장 높게 동의했으며, 이어서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의 문제와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이 각각 평균 4.2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족과 시설 내 활동 공간 부족’(M=4.08),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낮은 인지도’(M=4.04),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부족’(M=4.00),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 모호’(M=3.92), ‘청소년수련 시설, 학교,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M=3.88)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표 5-11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 모호	3.92	.91	7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낮은 인지도	4.04	.84	5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	3.88	.88	8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부족	4.00	1.00	6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의 문제	4.28	.74	2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	4.28	.84	2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	4.52	.65	1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족과 시설 내 활동 공간 부족	4.08	.86	4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청소년수련시설 측면에서의 향후 필요한 활동정책 역시 제시된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들의 높은 동의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5-12〉). 구체적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가 평균 4.56,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이 평균 4.52,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단체 등과 연계·협력 강화’가 평균 4.44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 재정립’(M=4.28), ‘청소년수련시설 법적설치 기준 준수’(M=4.24),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20), ‘청소년수련시설의 홍보강화’(M=4.00),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변경’(M=3.9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12 청소년활동정책의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수련시설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 재정립	4.28	.68	4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변경	3.96	.84	8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단체 등과 연계·협력 강화	4.44	.58	3
청소년수련시설의 홍보강화	4.00	.82	7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20	.82	6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	4.52	.71	2
청소년수련시설 법적설치 기준 준수	4.24	.66	5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	4.56	.58	1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4)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단체 측면

청소년단체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활동정책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단체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92~4.48로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은 평균 4.48, ‘학교 의존적인 활동’과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모호’는 각각 평균 4.20, ‘특성화된 프로그램 부족’과 ‘청소년단체 회원 수 감소’는 평균 4.12, ‘청소년단체 지원 및 관리 부족’은 평균 4.08, ‘재정부족’은 평균 4.00, ‘청소년지도자 부족’은 평균 3.92로 조사되었다.

표 5-13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 청소년단체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학교 의존적인 활동	4.20	.87	2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모호	4.20	.91	2
청소년단체 지원 및 관리 부족	4.08	.81	6
청소년지도자 부족	3.92	.76	8
특성화된 프로그램 부족	4.12	.97	4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	4.48	.59	1
재정부족	4.00	.87	7
청소년단체 회원 수 감소	4.12	1.01	4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향후 필요한 활동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M=4.40),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M=4.36),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M=4.32), ‘청소년단체 관련 전문인력 배치’(M=4.28), ‘청소년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증대’(M=4.24), ‘청소년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M=4.1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5-14 청소년활동정책의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단체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4.40	.65	1
청소년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	4.16	.69	6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4.36	.57	2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	4.32	.80	3
청소년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증대	4.24	.78	5
청소년단체 관련 전문인력 배치	4.28	.68	4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3)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1)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참여 청소년 측면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요인으로 제시된 모든 문항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5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참여 청소년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동기 부족	4.20	.91	4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4.40	.65	1
활동시설·장비·공간의 부족	4.16	.69	5
개인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부족	4.32	.75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활동정책 부족	4.36	.64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4.04	.89	6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즉,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M=4.4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활동정책 부족’(M=4.36), ‘개인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부족’(M=4.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동기 부족’(M=4.20), ‘활동시설·장비·공간의 부족’(M=4.1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M=4.04)의 순으로 제시하였다(〈표 5-15〉).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M=4.48),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40), ‘관련 시설·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M=4.3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M=4.28), ‘활동시설·장비·공간 확보’(M=4.24)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청소년활동 참여 인센티브 방안 마련’(M=3.60)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는 보통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6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 청소년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관련 시설·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4.32	.69	3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40	.71	2
활동시설·장비·공간 확보	4.24	.60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28	.79	4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4.48	.65	1
청소년활동 참여 인센티브 방안 마련	3.60	.87	6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2)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문제점으로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M=4.56)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어서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 및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M=4.36),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부족’(M=4.32),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 미흡’(M=4.24),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시스템 미비’와 ‘관련 시설 부족 및 낮은 접근성’(M=4.20),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요구조사 부족’(M=4.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7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시스템 미비	4.20	.65	6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부족	4.32	.69	4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	4.36	.64	2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	4.56	.51	1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 미흡	4.24	.72	5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요구조사 부족	4.12	.83	8
관련 시설 부족 및 낮은 접근성	4.20	.65	6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4.36	.64	2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8개 항목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사자의 처우 개선’(M=4.48),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와 ‘전문 인력확보 및 배치’(M=4.4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M=4.40),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의 교육 확대’,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32), ‘관련 시설·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M=4.16)의 순으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표 5-18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4.40	.65	4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4.44	.65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32	.56	5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의 교육 확대	4.32	.69	5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32	.69	5
전문 인력확보 및 배치	4.44	.58	2
종사자의 처우 개선	4.48	.59	1
관련 시설·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4.16	.69	8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3)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했다. 먼저, 장애요인 및 문제점으로 응답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M=4.56), ‘지역사회 내 연계시스템 미흡(M=4.5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부족(M=4.40), ‘가정기능 약화(M=4.32), ‘청소년활동의 홍보·정보 부족(M=4.24)의 순으로 문제점을 인식했다.

표 5-19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	4.56	.65	1
가정기능 약화	4.32	.63	4
청소년활동의 홍보·정보 부족	4.24	.66	5
지역사회 내 연계시스템 미흡	4.52	.59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부족	4.40	.65	3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한 5개 항목 모두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5-20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4.48	.59	1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4.24	.72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	4.40	.76	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44	.65	2
청소년활동의 홍보 및 정보 제공	4.32	.75	4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가 평균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4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M=4.40), ‘청소년활동의 홍보 및 정보 제공’(M=4.32),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M=4.24)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표 5-20〉).

(4)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제도적·정책적 측면

전문가들은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에 대해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을 평균 4.52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부족’(M=4.48),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 미흡’(M=4.36), ‘입시위주의 교육풍토’(M=4.32), ‘활동정책 홍보 부족’(M=4.24), ‘예방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부족’(M=4.08)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층의 낮은 발급률 및 부정적 인식 확대’(M=3.40)의 경우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 제도적·정책적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	4.48	.59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 미흡	4.36	.64	4
활동정책 홍보 부족	4.24	.72	6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부족	4.48	.77	2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	4.52	.59	1
예방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부족	4.08	.91	7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4.32	.85	5
청소년층의 낮은 발급률 및 부정적 인식 확대	3.40	1.00	8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제시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가 평균 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22〉). 이어서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M=4.48),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확보’ 및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36),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의 개선·보완'(M=4.32), '예방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활동정책 홍보 강화'(M=4.12), '청소년증의 기능개선 및 학생증과 통합운영'(M=3.80)의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평균 3.80~4.60의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다.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제도적·정책적 측면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순위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4.60	.50	1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4.48	.65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의 개선·보완	4.32	.56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확보	4.36	.70	3
예방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12	.73	6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4.36	.70	3
활동정책 홍보 강화	4.12	.67	6
청소년증의 기능개선 및 학생증과 통합운영	3.80	.96	8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3. 소 결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2차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 본 절에서는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동의한 항목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은 참여 청소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첫째, 참여 청소년 측면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시간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입시부담 완화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여건 미흡, 운영기관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도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장애요인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반응했다.

2)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역할·기

능 미흡 등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향후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둘째, 청소년기관 측면의 문제점은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과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평가했다.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과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측면의 문제점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의 문제와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 등도 문제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필요한 활동정책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청소년단체 측면의 문제점은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의존적인 활동과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모호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여 청소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가정·학교·지역사회, 제도적·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은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활동정책 부족, 개인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문제점은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문제점이라 생각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전문 인력 확보 및 배치 등을 강조했다.

셋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장애요인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 지역사회 내 연계시스템 미흡 등을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넷째, 전문가들은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문제점으로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부족 등을 꼽았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제 VI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초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 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 만족도, 참여경로, 장애요인,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정책 인지도 및 정의적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10,5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의 참여율이 93.7%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활동’(79.7%)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3.8%)도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 이어서 ‘모험개척활동’(55.7%), ‘봉사활동’(55.4%), ‘과학정보활동’(53.6%), ‘환경보존활동’(42.4%), ‘자기(인성)계발활동’(41.3%), ‘교류활동’(25.5%), ‘청소년참여활동’(15.3%)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활동의 전체 참여율은 유사하였으나 영역별 참여율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모험개척활동’(22.3%p), ‘과학정보활동’(19.4%p), ‘환경보존활동’(13.9%p), ‘건강·보건활동’(12.1%p)은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15.8%p), ‘문화예술활동’

동'(13.2%p)의 참여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2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도자 만족도'의 평균이 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활동내용 만족도'(M=3.3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27), '일정·시간 만족도' (M=3.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51.0%)하였으며, 그 다음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21.4%)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9.1%),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5.4%)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요인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1.5%)가 후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는 '문화예술활동'(21.1%)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0%)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모험개척활동'(16.4%), '과학정보활동'(11.6%), '건강·보건활동'(9.7%)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의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이용률이 6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공연 및 전시시설'(53.8%),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39.2%), '주민센터, 문화센터'(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은 평균 1.18~1.41로 높지 않았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M=1.41)와 '청소년어울림마당'(M=1.40)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가운데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58, 진로성숙도는 평균 3.64,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3.82, 리더십생활기술은 평균 3.54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참여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보다 정의적 특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학계전문가 10명, 현장전문가 12명, 관계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이 제시한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참여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시간부족’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입시위주의 교육풍도’가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는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입시부담 완화’가,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정책의 현 문제점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이,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가,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차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가,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이, 청소년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이며,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으로 예산부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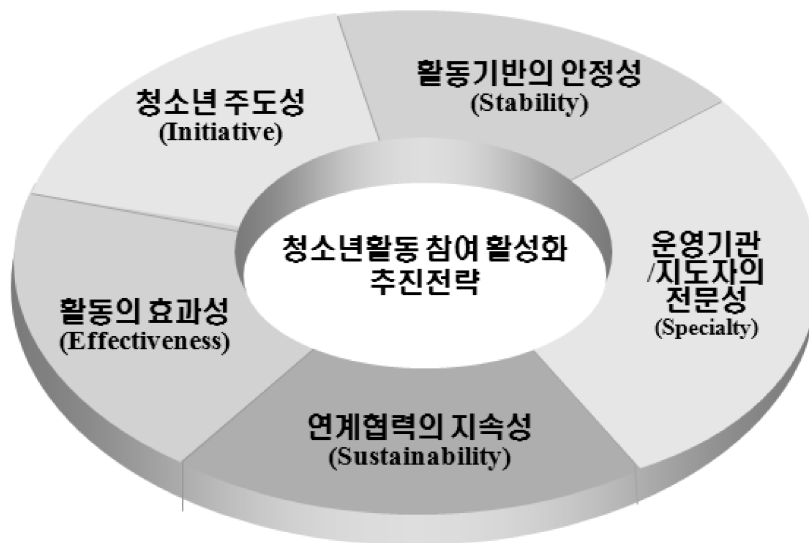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측면에서는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전문 인력확보 및 배치’가,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가,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1)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역량개발을 통해 개인, 조직, 사회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성인이 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참여 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담당자, 연구자 등의 다양한 역량강화와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전문가자문회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을 정립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은 ① 청소년 주도성(Initiative), ② 활동기반의 안정성(Stability), ③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전문성(Specialty), ④ 연계·협력의 지속성(Sustainability), ⑤ 활동의 효과성(Effectiveness)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6-1】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첫째, 청소년 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활동의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 기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기반 약화,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청소년활동 기반의 약화의 근원에는 재정지원의 감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과 함께 청소년활동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기관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지도자 역시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 최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운영기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개 국립청소년수련원,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계·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참여는 단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학교와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장려해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활동의 효과성 담보이다. 앞에서 제기한 전략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는 의미있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절실하며, 정책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과 측정, 자료축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3.1%)를 꼽았으며, 활성화 요인으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8.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문가들도 청소년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간부족(M=4.28)’을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시간부족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입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보장, 둘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셋째,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원 확보,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이다([그림 6-2]).

정책영역	정책과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보장	1. 학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2. 청소년 친화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3.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1. 표준임금표 개선 등 청소년지도자 복지 증진 2. 청소년수련시설 직종전환 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 재정여건 개선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강화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지원 확보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2.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강화 3.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확대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2. 청소년기관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3.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4.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전문 인력확보·배치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의 개선·보완

【그림 6-2】 청소년활동의 참여 활성화 방안

1)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 보장

(1) 학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M=4.52)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등에 청소년활동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협력 대상, 내용 등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못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 강제조항을 법제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연계방안을 내실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서 보다 실질적인 연계방안들을 강구해야 하겠다.

예컨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간에 청소년활동을 위한 협력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보호시설 등 청소년관련 기관들의 협력적인 연결망을 먼저 구축하고, 이후 이 연결망과 학교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분야의 협력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군구 단위별로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존의 제도·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계체계에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포함하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또한 효율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 친화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M=4.28)이 참여 청소년의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하고’(21.5%),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9.8%)는 의견 등을 통해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흥미 반영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활동’

(21.1%),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0%), ‘모험개척활동’(16.4%), ‘과학정보활동’(11.6%), ‘건강·보건활동’(9.7%) 등의 순으로 응답해, 청소년들의 현재 활동에 대한 요구도 살펴볼 수 있었다.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요구, 문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기존의 정책·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대규모 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시대적,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성별, 나이, 지역 등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기능 강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3.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9.1%)의 응답이 많았으며, 활성화요인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14.4%)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청소년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M=4.08)을 청소년활동 참여의 문제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M=4.20)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Dovol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이다. 여기서는 대상, 지역, 연령, 시기 등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사업 안내, 청소년복지보호 안내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M=1.31)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인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인 Dovol, 청소년참여포털 등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되며,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1) 표준임금표 개선 등 청소년지도자 복지 증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 참여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M=4.48)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M=4.44)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황진구(201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는 유사 휴먼서비스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열악하며, 청소년지도사 내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균종사기간 6년의 월평균 보수(기본급+수당)는 약 214만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지역에서는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절에 제작된 보수체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 시설별·지역별 보수 차이는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이며 표준화된 보수체계 마련, 시설별 지도자 충원, 지도사의 근무안정성 보장 등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2) 청소년수련시설 직종 전환 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재정여건 개선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장비의 노후뿐만 아니라 낮은 재정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홍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청소년프로그램의 운영보다 수영장, 헬스장 등의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재정문제는 지역, 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운영기관의 열악한 재정상태’(M=4.24)가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지원 확대’(M=4.52)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직종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직업군으로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이 교육훈련업 등으로 분류되어 세제지원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과도한 세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필요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종 전환에 유리할 것이다.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 · 강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여건 미흡’(M=4.28)이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청소년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 · 강화’(M=4.12)가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에 대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과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관한 시대적 경향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에서 규정한 보수교육 이외에 다양한 직무연수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및 단체, 학교 등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의 기능강화가 중요하다. 기존 보수교육과 직무연수를 특성화하고 청소년지도자연수에 대한 연구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에 있어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공통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 학교 · 지역사회 지원 확보

(1) 가정 · 학교 · 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M=4.64), ‘가정 · 학교 · 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M=4.5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 정보제공, 이해교육 등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동안 청소년활동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임희진, 송병국(2014)의 2014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할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 청소년활동 및 활동의 유익을 알리고,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인식개선은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자료 제작·배포, 유명인 및 청소년 홍보대사 임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매체를 활용하거나 학교,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과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강화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 장소부족 및 낮은 접근성’(M=4.04)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생각했으며, 활성화 방안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확대’(M=4.32)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설치 기준의 준수를 통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청소년수련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부족과 더불어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는 예산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와 적절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한 노력, 자체적인 차량운행, 학교와 연계된 버스운행 등 다양한 접근성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활동시설이 공동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확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개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향상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 결과에서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으로 ‘가족,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부족’(M=4.04), ‘가족, 학교,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12)이 언급되었다.

이에 일선 현장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의 확대시행을 통해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 보급·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4)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을 통해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기금의 확보와 함께 기업체 연계 사업의 발굴, 타부처 사업과의 사업연대 또는 정책연대 등을 통한 청소년활동 재원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⁷⁾의 발굴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토대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무원을 일컬으며, 현재 일부지역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되기 위해서는 승진체계마련, 포상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담당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국가 청소년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담공무원을 발굴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장의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으로 배치·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7)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시·도와 시·군·구 또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관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정책적인 지원은 거의 없고, 발굴 실적도 낮은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육성)정책담당공무원이 모여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축하여 상호간 연락 및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및 청소년활동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된 ‘과’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도 있고, 독립된 ‘과’ 단위는 아니지만 부서에 ‘청소년’ 명칭이 포함된 경우, ‘계’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 등이 있다. 반면, 청소년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정책만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 혹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정책 수행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자체 사업의 발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과다나 청소년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될 우려를 낳는다. 향후 복잡한 행정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독립된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및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청소년활동정책이 개발·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보강, 청소년정책의 충분한 재정보조, 주무부서에 ‘청소년’ 명칭의 포함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된 청소년기본법⁸⁾에 근거하여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확대·체계화하고, 청소년정책 주무부서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설치된 청소년정책분석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비평가와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정책분석센터에서 청소년정책시행 계획 추진실적의 분석, 평가,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이 국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하겠다.

다섯째, 청소년활동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및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04년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지만,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춘 전면적인 개정이 요청된다. 관련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8)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3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함께 모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⁹⁾, 청소년활동의 영역¹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등 전반적인 내용의 검토 및 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수립의 체계화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정책도 기본계획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 청소년 인구감소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청소년활동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2) 청소년기관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기관 측면에서 시급히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다. 활동정책의 중앙수행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도에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 중심의 운영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정책의 총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원 등의 역할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허브기능 중심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립청소년시설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특성화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각 청소년수련시설에 보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연계·협력 강화이다. 우선,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

9) 청소년관련법에 정의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정의된 청소년활동의 개념들은 그 개념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개념들간에 중첩되어 있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영역들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정의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으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발달적 맥락으로서의 조직화된 활동”의 개념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 또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개념정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현재 청소년정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모습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념정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10)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과 관련된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영역 등 청소년활동정책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모든 용어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각각의 개념들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과 의미들, 그리고 차별화된 모습들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정밀하게 개념정의를 해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유사개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과 유사 개념들 간의 차별화된 특징들을 명쾌하게 드러내는 개념정의 작업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센터 간의 연계 뿐 아니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련단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과의 연계·협력도 활성화하여 청소년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시·군·구 단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청소년상담, 보호·복지 정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반면, 청소년활동 영역은 시·도 단위까지만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시·군·구 단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과 복지, 보호를 통합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더디며 일부지역에서만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3)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과거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의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하지만 최근 가정의 기능 약화, 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행 등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시설,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변경을 통해 보다 청소년 친화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한층 더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재정립과 명칭변경이 요청된다.

둘째,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 배치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마다 급수별 배치기준의 부재 및 모호함이 존재한다. 즉,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로, 청소년특화시설의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로 명시되어 있는 등 시설에 따라 지도사의 급수별 배치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배치기준이 심각한 업무과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법적 최소 배치기준은 1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지도사 1명이 청소년지도, 행정 등 기관의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최소 배치기준의 미준수에 따른 조치 부재 등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첫째,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이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사업 뿐 아니라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수련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대적·사회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 간 또는 청소년단체 간의 역할·기능의 모호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의존적인 활동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단체별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함께 관련연구도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내외 청소년단체 간의 교류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1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a, 2014). 국가 혹은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단체 간 그리고 단체와 시설 간의 협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청소년단체 관련 전문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둘 것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최소 배치기준으로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법적 배치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덧붙여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청소년단체에서는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는 관련 법 정비, 처우개선, 재정확보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입장에서 보수교육, 직무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단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및 지원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회원 회비, 후원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회원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청소년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 하며, 청소년단체 내부에서는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후원자 개발 등과 같은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¹¹⁾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역사회 내 연계시스템 미흡’(M=4.52)이 지적되었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M=4.48)가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활동시설과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구축·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활동, 교육, 복지, 보호, 상담시설 등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M=4.60)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언급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책, 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협력·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의견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부족’(M=4.32),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M=4.40)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정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욕구, 청소년활동 참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전문화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11)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가 설치되어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정책은 보호 또는 시혜적인 시각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청소년개발 측면의 정책들이 새롭게 필요하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3) 전문 인력 확보 · 배치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M=4.56)으로, 활성화 방안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M=4.48), ‘전문 인력 확보 및 배치’(M=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예산의 지원 및 확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 · 배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화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 미흡’(M=4.24)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의 교육 확대’(M=4.32)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청소년지도사를 비롯한 청소년활동 전문가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보수교육, 직무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 · 정책의 개선 · 보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도적 · 정책적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확보’(M=4.36),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 · 정책의 개선 · 보완’(M=4.32) 등이 제시되었다. 보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법률이 개선 · 보완 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구태익 (2000). 한국 청소년수련체계에 관한 연구: 수련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 (2010). 청소년활동론. 서울: 공동체.
-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2006).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운진 (2013).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아영 (2008). 학습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진호 (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25.
- 김진호, 권일남, 이광호, 최창욱 (2009). 청소년활동론. 서울: KNOU Press.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연구보고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Ⅰ (연구보고 13-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태동 편 (2001). 존듀이의 경험과 교육.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미리, 조성연, 김은배, 김민 (2014). **청소년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7-R4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재연 (1988). **아동발달**. 서울: 문음사.
- 이현림, 김영숙 (2006).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희승 (2003).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영식, 문성호, 정정은 (2008). **2008년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연구보고 09-R1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보고 08-R0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3-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06-R41).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상호 (2004). **학문과 교육(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 (2006). **학문과 교육(중 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명기 (2006). **청소년활동론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06-S18(pp.3-46).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 정옥분 (2008).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3a). 청소년수련활동론. 서울: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학개론. 서울:교육과학사.
- 한승희 외(1994). 청소년 수련거리개발 기본계획 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진구(2014).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보수체계를 중심으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mperCollins.
- Eccles, J., & Gootman, J. A. (Eds.).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Jeffs, T. & Smith, M. K. (2010). *Youth practice*. NY: Palgrave Macmillan.
- Mahony, J. J., Larson, R. W., & Eccles, J. S. (2005). *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school and community programs*. NJ: Lawrence Erlbaun Associates, Inc.
-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In J. Eccles & J. A. Gootman(eds.). *Board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부록

부록

OPID
 ID

과	계
교	급

 -

학		교	

 -

학		급	

 -

실		문		지		연	

청소년활동 및 국제교류 실태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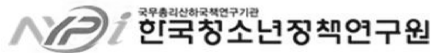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국제교류 실태를 살펴보고 이후 청소년활동 및 국제교류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조 사 문 의 처:	미디어리서치
	(청소년활동) 문호영 박사 (044) 415-2224 (국제교류) 황세영 박사 (044) 415-2243		문화정 부장 02-3488-2728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_____ 학교	학교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학년		_____ 동(읍/면)

면접날짜	2015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	---

면접원 ID/성명		S/V 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	--	--------	--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또는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은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PART I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신체단련활동	①	②	③	④
(2)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3) 안전·응급처치활동	①	②	③	④
(4) 성교육활동	①	②	③	④
(5) 학교폭력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6)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	①	②	③	④

문2.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모형 및 로봇활동	①	②	③	④
(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①	②	③	④
(3) 우주천체활동	①	②	③	④
(4) 정보캠프활동	①	②	③	④
(5) 영상매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문3.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③	④
(2)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①	②	③	④
(3)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	①	②	③	④

문4.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모험개척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등반활동	①	②	③	④
(2) 야영활동	①	②	③	④
(3)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①	②	③	④
(4) 극기훈련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	①	②	③	④

문5.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허동	①	②	③	④
(2) 미술활동	①	②	③	④
(3) 음악활동	①	②	③	④
(4) 춤·무용활동	①	②	③	④
(5)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①	②	③	④
(6) 전통예술활동	①	②	③	④
(7)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①	②	③	④
(8) 기타 ()	①	②	③	④

문6.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봉사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일손돕기활동	①	②	③	④
(2) 위문활동	①	②	③	④
(3) 돌봄 및 지도활동	①	②	③	④
(4) 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자선·구호활동	①	②	③	④
(6) 재능기부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	①	②	③	④

문7.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도의창업활동	①	②	③	④
(2) 경제캠프활동	①	②	③	④
(3) 진로탐색활동	①	②	③	④
(4) 직업현장체험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	①	②	③	④

문8.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생태체험활동	①	②	③	④
(2) 환경탐사활동	①	②	③	④
(3)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	①	②	③	④
(4)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환경·시설 보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문9.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①	②	③	④
(2)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 활동	①	②	③	④
(3) 심성수련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	①	②	③	④

문10.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년참여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④
(2)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④
(3)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②	③	④
(4)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①	②	③	④
(5) 인터넷 청소년참여활동(밴크 등)	①	②	③	④
(6) 기타 ()	①	②	③	④

문11.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문1~문10)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과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2.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형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했습니까?

- 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음
- ②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 ③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 ④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참여
- ⑤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 ⑥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 ⑦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 ⑧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 ⑨ 개인적으로 참여
- ⑩ 가족과 함께 참여

문13.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했습니까?

- 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음
- ②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 ③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 ④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⑤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 ⑥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 ⑦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 ⑧ 기타()

문14.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음
- ②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 ③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④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 ⑤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 ⑥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⑦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 ⑧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 ⑨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 ⑩ 기타()

문15.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 ⑨ 기타()

문16. 다음의 [보기]에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 | | | | |
|-----------|--------------|-----------------|----------|
| ① 건강·보건활동 | ② 과학정보활동 | ③ 교류활동 | ④ 모험개척활동 |
| ⑤ 문화예술활동 | ⑥ 봉사활동 |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 |
| ⑧ 환경보존활동 | ⑨ 자기(인성)개발활동 | ⑩ 청소년참여활동 | |

문17.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한 적 있음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
(1) 청소년수련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수련원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문화의집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야영장	①	②	③	④	⑤
(5) 유스호스텔	①	②	③	④	⑤
(6)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7) 공연 및 전시시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9)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①	②	③	④	⑤
(10) 주민센터, 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문18. 다음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①	②	③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①	②	③
(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①	②	③
(4) 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5)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6)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②	③
(7)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①	②	③
(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①	②	③
(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①	②	③

문19. 다음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다음은 ‘내가 직업과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다음 내용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해 본 적이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없다	조금 있다	자주 있다
(1) 도로와 공원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2) 따돌림 혹은 싸움을 말려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3) 장애인, 노인, 곤란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4) 외국 사람과 교류를 하거나,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5) 캠프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문24. 다음 내용의 도움들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장보기 등 심부름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집 청소 및 정리정돈을 도와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25. 다음 내용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는다	①	②	③	④
(2) 아침에 식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신의 이불을 정리정돈 한다	①	②	③	④
(4) 아침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5) 집에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6) 이웃 사람들과 아는 사람을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7) 버스와 전철에서 몸이 불편한 분 또는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만하도록 타이른다	①	②	③	④

문26. 다음 내용의 행동들을 일상에서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저녁을 혼자서 먹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4)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저금을 한다	①	②	③	④
(5) 친구와 싸움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주의 또는 혼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방과 후 또는 휴일에 친구들과 논다	①	②	③	④
(8) 가족들에게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9) 가족들에게 고민을 이야기 하거나 상담한다	①	②	③	④
(10) 가족들에게 혼나거나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짜증나거나 초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고민을 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27.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변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이 가능한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5)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여 자신의 미래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곤란에 처한 경우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느 누구와도 협력하여 그룹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곤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규칙을 지키며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국가, 지역의 정치, 선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그 날의 뉴스를 읽거나 본다	①	②	③	④	⑤

문28.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교내에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 교외의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3)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지금의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에게서는 나다운 개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체력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29. 최근 1년간 학교수업 및 행사 이외에 다음의 활동들을 어느 정도 체험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1) 등산,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①	②	③
(2) 바다와 강 등에서 수영을 하거나, 보트·카누·요트를 타기	①	②	③
(3) 캠핑하기	①	②	③
(4) 스키, 눈썰매 등 눈에서의 활동	①	②	③
(5) 방과 후, 휴일에 몸을 움직이는 놀이와 스포츠 하기	①	②	③
(6) 식사지원, 장보기, 청소 돕기	①	②	③
(7) 지역의 청소 활동과 폐품 회수(재활용 수거) 활동	①	②	③
(8) 지역의 스포츠대회와 문화제 등의 행사에 참가하기	①	②	③

문30.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단, 만화와 잡지는 제외)

- ① 전혀 읽지 않음 ② 1~2권 ③ 3~5권 ④ 6~9권 ⑤ 10권 이상

문31. 평일(월요일~금요일) 일어나는 시간은 몇 시 정도입니까?

- ① 오전 6시 이전 ② 오전 6시 ~ 6시 30분 이전 ③ 오전 6시 30분 ~ 7시 이전
④ 오전 7시 ~ 7시 30분 이전 ⑤ 오전 7시 30분 ~ 8시 이전 ⑥ 오전 8시 이후

문32. 평일(월요일~금요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몇 시 정도입니까?

- ① 오후 9시 이전 ② 오후 9시 ~ 10시 이전 ③ 오후 10시 ~ 11시 이전
④ 오후 11시 ~ 오전 0시 이전 ⑤ 오전 0시 ~ 오전 1시 이전 ⑥ 오전 1시 이후

문33. 다음의 각 항목들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안함	1시간미만	1시간 ~ 2시간미만	2시간 ~ 3시간미만	3시간이상
(1) 텔레비전, 비디오, DVD 시청	①	②	③	④	⑤
(2) 비디오게임, 컴퓨터게임	①	②	③	④	⑤
(3)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	①	②	③	④	⑤
(4) 컴퓨터, 태블릿 사용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 이용	①	②	③	④	⑤
(6) 만화책(만화 잡지도 포함) 읽기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수업, 방과 후 수업 이외의 공부	①	②	③	④	⑤

문34. 평소에 운동이나 스포츠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문35. 형제나 자매가 몇 명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문36.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함께 살고 있다 ② 함께 살고 있지 않다

문37. 자신의 방(혼자서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38. 개인용으로 다음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텔레비전 ② 휴대폰(스마트폰은 제외) ③ 스마트폰
④ 컴퓨터 ⑤ 태블릿 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문39.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문40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들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린다	①	②	③	④
(2) 식사나 대화중에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이 신경 쓰인다	①	②	③	④
(3)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메일 또는 SNS에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4) 메일, 문자메시지, SNS의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변을 한다	①	②	③	④
(5) 메일, 문자메시지, SNS의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답변이 없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구분	더내고 있지 않다	1~2일	3~4일	5~6일	매일
(1) 국어, 영어, 수학 등 공부를 위한 학원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①	②	③	④	⑤

PART Ⅲ. 다음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배경문항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구체적으로:) ⑧ 없음

배경문항3. 응답자(학생)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_____시/도 ② _____시/군/구 ③ _____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라면 서울 ㉔/도 서초 시/군/구 ㉕ 우면 ㉖/읍/면으로 표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시/㉖ 아산 ㉔/군/구 배방 동/읍/면으로 표기

배경문항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 다니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경문항6. 학생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7.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견조사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5년 고유연구과제로『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학계, 행정계,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개념과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오니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지의 답변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차 질문지는 주관식과 객관식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질문지는 1차 질문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요도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최창욱 박사(044-415-2238) / 문호영 박사(044-415-2224)】

질문지 작성 및 회신 // 입금 정보

- 마감날짜 : 2015년 9월 11일(금)까지
 ○ 회신 : ccwook@nypi.re.kr (최창욱 이메일)
 ○ 수당 : 수당 지급을 위해 아래의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 계좌번호(은행명)를 적어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입금통장	계좌번호(은행명) :		

I. 다음은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의 청소년활동 정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의견	○ ○
---------------------------------------	-------------------

【질문2】 만일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활동 정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활동의 향후 개념정의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청소년활동 개념정의 방향	○ ○
--------------------------	-------------------

【질문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수련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분류가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더불어 9개 영역 구분의 타당성과 추가·삭제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견
인증수련활동 9개 영역	①건강·보건활동, ②과학정보활동, ③교류활동, ④모험개척활동, ⑤문화예술활동, ⑥봉사활동, ⑦직업체험활동, ⑧환경보존활동, ⑨자기(인성)계발활동
9개 영역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 ○ ○
추가해야 할 영역 및 변경되어야 할 영역 등에 대한 의견	○ ○ ○

Ⅱ. 다음은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문제점	활성화 방안
참여 청소년 측면	○ ○ ○ ○	○ ○ ○ ○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 ○ ○ ○ ○	○ ○ ○ ○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	○ ○ ○ ○ ○	○ ○ ○ ○ ○
제도적·정책 적 측면	※ 이 부분은 다음페이지에 따로 묻고 있으니 그 곳에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의견	○ ○ ○ ○	○ ○ ○ ○

Ⅲ. 다음은 청소년활동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정부 및 민간 청소년활동 정책	
	현재의 문제점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정부 및 지자체	○ ○ ○	○ ○ ○
청소년기관 (지원센터 등)	○ ○ ○	○ ○ ○
청소년 수련시설	○ ○ ○	○ ○ ○
청소년단체	○ ○ ○	○ ○ ○
기타	○ ○ ○	○ ○ ○

IV.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학교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장애 요인/문제점	활성화 방안
참여청소년 측면	○ ○ ○	○ ○ ○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	○ ○ ○	○ ○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	○ ○ ○	○ ○ ○
제도적·정책적 측면	○ ○ ○	○ ○ ○
기타 의견	○ ○ ○	○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제2차 전문가의견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전문가의견조사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들이 아주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풍부하게 답변해 주셔서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1차 조사에 이어 1차 조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2차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지의 답변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질문지는 1차 질문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요도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연구 일정이 촉박하오니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최창욱 박사(044-415-2238) / 문호영 박사(044-415-2224)】

질문지 작성 및 회신

- 질문지 작성 : 각 영역별 해당란에 V표시, 추가의견 있을 경우 해당란에 간략히 작성
- 마 감 날 짜 : 2015년 10월 13일(화)까지
- 회 신 : ccwook@nypi.re.kr (최창욱 이메일)

1. 다음은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참여청소년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참여청소년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간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참가비용의 부담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 시설·장비·공간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동기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보상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 견	
--------------	--

1-2. 참여청소년 측면의 활성화 방안

구분	참여청소년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입시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청소년활동 홍보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부모 등에게 청소년활동 이해교육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활동 참여 인센티브 부여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 견	
--------------	--

2-1.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여건 미흡	①	②	③	④	⑤
2	신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미흡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 낮은 인식과 홍보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운영기관의 열악한 재정상태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지도자 부족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활동시설의 낮은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2-2.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

구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지도자 충원	①	②	③	④	⑤
7	재정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①	②	③	④	⑤
9	특성화·전문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3-1.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의 홍보·정보부족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 장소부족 및 낮은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4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협조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2.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활성화 방안

구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①	②	③	④	⑤
2	가정, 학교, 지역사회 대상 청소년활동의 홍보활성화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3	접근성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확대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학교, 지역사회 관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 Ⅱ. 다음은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활동정책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문제점

구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역할·기능 미흡	①	②	③	④	⑤
3	비효율적인 청소년행정전달체계	①	②	③	④	⑤
4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미흡	①	②	③	④	⑤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미비	①	②	③	④	⑤
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미흡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 및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8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약화	①	②	③	④	⑤
9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 부재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①	②	③	④	⑤
11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활동정책의 편차	①	②	③	④	⑤
12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집중된 청소년활동정책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 견	
--------------	--

1-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구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전담부서 설치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행정전달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활동정책 이슈화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중장기 청소년활동정책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정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활동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년활동 관련 평가 시스템 개선 및 강화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 견	
--------------	--

2-1. 청소년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현재 문제점

구분	청소년기관의 현재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모호	①	②	③	④	⑤
2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기능 모호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	①	②	③	④	⑤
5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의 현장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2-2. 청소년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구분	청소년기관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①	②	③	④	⑤
2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관련단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와의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시·군·구 단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의 현장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3-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문제점

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 모호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낮은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6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족과 시설 내 활동 공간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2. 청소년수련시설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기능 재정립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변경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단체 등과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수련시설의 홍보강화	①	②	③	④	⑤
5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수련시설 법적설치 기준 준수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4.1. 청소년단체의 현재 문제점

구분	청소년단체의 현재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학교 의존적인 활동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모호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단체 지원 및 관리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지도자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특성화된 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재정부족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단체 회원 수 감소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4.2. 청소년단체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구분	청소년단체의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단체 관련 전문인력 배치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Ⅲ.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참여청소년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참여청소년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동기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활동시설·장비·공간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개인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활동정책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1-2. 참여청소년 측면의 활성화 방안

구분	참여청소년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관련 시설·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2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3	활동시설·장비·공간 확보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활동 참여 인센티브 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2-1.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시스템 미비	①	②	③	④	⑤
2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 미흡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요구조사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관련 시설 부족 및 낮은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8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2-2.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

구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활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의 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6	전문 인력확보 및 배치	①	②	③	④	⑤
7	종사자의 처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8	관련 시설·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1.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	①	②	③	④	⑤
2	가정기능 약화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의 홍보·정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사회 내 연계시스템 미흡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2.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활성화 방안

구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의 홍보 및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4-1.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구분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 미흡	①	②	③	④	⑤
3	활동정책 홍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부족	①	②	③	④	⑤
5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예방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층의 낮은 발급률 및 부정적 인식 확대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4-2.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구분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의 개선·보완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예산확보	①	②	③	④	⑤
5	예방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6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7	활동정책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층의 기능개선 및 학생증과 통합운영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 감사 합 니 다 ♡♡♡

Abstract

A Study on Korean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II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Korean youths' participations in hands-on activities and further suggest adequate measures to promote their participations. Study methods consisted of a literature review, the survey on Korean youths' participations in the activity, a survey of expert opinions and more. Results were anticipated to implicate an evidence-based policy for promoting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y in Korea.

The results of youth survey indicated that over the past year, as high as 97.4% of Korean adolescents reported to have experienced one or more hands-on activities. Among various domains of activities, Health and Hygiene Domain showed the highest participation rate(93.7%). Their satisfactions o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y were above the average level. The participation was mainly organized in groups by schools and frequently recommended by teachers.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ion was mainly restricted due to lack of time, implicating their responses for securing more time to promote their active involvement in activities. For future participation, adolescents reported to have relatively high preference for activities in Art and Popular Culture Domain and Career Exploration and Work Experience Domain. Additionally, i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depending on whether a youth participated in the activity or not, his/her self-esteem, career maturity, perceived well-being, and leadership life skills differed significantly.

In the survey of expert opinions,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 First, as to the greatest obstacles hindering youth participations, youths reported lack of time as the cause, leaders and management ministry officers pointed out

poor working environments, and parents-school-local community representatives put them down to low awareness about the activity and the education system that focuses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s. Subsequently, the participant, leader, and representative groups each suggested strengthening network and collaboration between schools and management institutions, expanding subsidies for youth activities, and improving awareness of youth activities, respectively, as the foremost adequate measures for promoting the youth participation.

Second, as a current issue of youth activity-policy, national and provinci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reported lack of budgets for the implement of the policy, youth ministry officers reported inadequate skills in the transmission of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mong youth ministry-affiliates, and managers of youth-training centers pointed out lack of network and collaboration among the related youth centers. Subsequently, each of the above groups placed an emphasis on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budget for youth fostering policy,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 and function in affiliated institutions of youth ministry and in youth organizations, the reinforcement of network and collaboration among them, and the empowerment of support and management in youth training centers.

Third,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school-drop-outs'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and their obstacles from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aspects, school-drop-out participants, administrative institution officers and leaders, and representatives of family, school, and local community confirmed lack of information about hands-on activities for youth and difficulties in approaching them, a shortage of manpower and related-subsidies, negative awareness of activities for school-drop-outs and their lack of interests, and a shortage of activity program well fitted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the greatest problems, respectively. Further, in order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s, the

participant, leader, and representative groups each suggested measures as strengthening collaborations among schools, counseling and social welfare centers, improving labor conditions for the staff, and reinforcing network in local community for school-drop-outs. From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perspective,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and collaboration among related-government ministries was reported.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basic strategies to activate adolescents' participations in hands-on activities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initiatives of youths, stability based on activities, professionalism in activity management institutions for adolescents and in leaders implementing youth activities, effectiveness of the activity, continuity of network and collaboration, etc. Subsequently, the youth policy measures built upon the strategies are proposed: (1) to ensur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2) to empower capabilities of leaders and management institutions for youth; (3) to secure supports from families,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for youth activities; (4) to strengthen a youth activity policy; and (5) to promote participations of school-drop-outs in hands-on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policy measures that consist of 17 implementational details/tasks for the forementioned five areas are suggested.

Keywords: Hands-on activities for youth, adolescents' participations in youth activity, integrative research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송미경
- 15-R1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현·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직립금

-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증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험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자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자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자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기초분석보고서)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동명기획 전화 044)868-754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67-0 94330

979-11-5654-050-2 (세트)